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3권 (제21회 ~ 제3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21회 — 호법이 장원을 세워 손오공을 머물게 하고, 수미산의 영길 이 바람의 마귀를 잠재우다	5
제22회 — 저팔계가 유사하에서 크게 싸우고, 목타가 법을 받들어 오 정을 거두다	30
제23회 — 삼장이 근본을 잊지 않고, 네 성인이 선심을 시험하다....	55
제24회 — 만수산 대선이 옛 친구를 머물게 하고, 오장관 수행자가 인 삼을 훔치다	83
제25회 — 진원선이 경전을 구하러 온 승려를 쫓고, 손행자가 오장관 에서 크게 난동을 부리다	108
제26회 — 손오공이 세 섬을 돌며 비방을 구하고, 관세음보살의 감로 수가 마른 나무를 살리다	132
제27회 — 시마가 당삼장을 세 번 골탕 먹이고, 성승은 미후왕을 쫓아 냄을 한스러워하다	159
제28회 — 화과산에 요괴들이 모여 의를 나누고, 흑송림에서 삼장이 마귀를 만나다	184
제29회 — 재난을 벗어나 강을 따라 국토로 흘러오고, 은혜를 입은 저 팔계는 산림으로 향하다	207
제30회 — 사악한 마귀가 바른 법을 침범하고, 뜻을 둔 말은 마음의 원 숭이를 그리워하다	230

제21회 — 호법이 장원을 세워 손오공을 머물게 하고, 수미산의 영길이가 바람의 마 귀를 잠재우다

護法設莊留大聖 須彌靈吉定風魔

한편, 패배하여 흩어졌던 요괴 십 명이 부서진 깃발과 북을 들고 동굴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오며 보고했다. “대왕님, 호선봉이 그 털 많은 스님을 당해내지 못하고 동쪽 언덕 너머로 쫓겨났습니다!” 황풍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계책을 짜내고 있었다. 그때 앞문 쪽을 지키던 다른 요괴가 다시 외쳤다. “대왕님, 호선봉이 그 털 많은 스님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놈이 호선봉의 시체를 문 앞에 끌어다 놓고는 싸우자며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풍대왕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이놈이 정말 무지하구나! 나는 아직 그의 스승을 잡아먹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내 선봉장을 때려죽이다니! 가증스럽구나, 정말 가증스러워!” 이어 황풍대왕이 명령했다. “갑옷을 가져오너라! 나도 그 손행자라는 자에 대해 들어만 보았지, 직접 나가서 머리가 아홉 개고 꼬리가 여덟 개 달린 괴

물 같은 스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그놈을 잡아 와서 우리 호선봉의 목숨값을 치르게 하리라!” 요괴들이 서둘러 갑옷을 날랐다. 황풍대왕은 몸을 정돈하고 세 갈래로 갈라진 강철 삼지창을 움켜쥔 채, 요괴들을 거느리고 동굴 밖으로 힘차게 뛰어 나갔다.

손오공이 문밖에 멈춰 서서 요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니, 과연 그 기세가 매우 용맹했다. 그 차림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금빛 투구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금빛 갑옷은 빛을 머금어 눈부셨다. 투구 위에 달린 깃털 장식은 산뿔의 꼬리처럼 휘날렸고, 비단 도포는 연한 거위색으로 갑옷을 덮고 있었다. 갑옷을 고정하는 끈에는 용이 꿈틀대며 빛을 발했고, 가슴을 보호하는 경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사슴 가죽으로 만든 장화는 회화나무 꽃으로 물들었고, 비단 앞치마는 버들잎 모양의 비단으로 장식했다. 손에 든 세 갈래 철삼지창은 예전의 현성랑(顯聖郎) 못지않게 날카롭고 위엄이 넘쳤다.

그 요괴가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저기 있는 놈이 손행자냐?”

손행자는 호선봉의 가죽을 발에 걸치고 여의금고봉을 손에 든 채 대답했다. “네 손외조상이 여기 있다! 어서 내 스승님을 내놓아라!”

요괴가 자세히 살펴보니, 손행자는 몸집이 왜소하고 얼굴은 뼈만 남은 듯 수척했으며 키는 채 4척도 되지 않아 보였다.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가엾기도 해라, 가엾기도 해. 나는 또 대단한 호걸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뒤집어엎을 줄 알았더니, 고작 이런 해골 같은 병신이 나타난 것이냐?”

그러자 손행자가 웃으며 응수했다. “이놈아, 눈이 참으로 없구나! 네 외조상이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네가 머리 위로 창을 한 번 휘두르면 키가 3척은 더 커질 것이다!”

요괴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입만 살아있구나! 내 창맛을 좀 봐라!”

손오공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괴가 기세를 몰아 창을 내리치자, 손오공은 허리를 숙 숙이며 몸을 늘려 키를 3척이나 키우고 길이를 한 장(약 3미터) 정도로 늘려버렸다. 요괴는 당황하여 급히 강철 창으로 막아내며 꾸짖었다. “손행자, 네놈이 어찌하여 그런 호신용 변신술을 내 문앞에서 부리는 것이냐? 허장성세를 부리지 말고 당당히 올라 오너라. 네놈의 실력을 제대로 겨뤄보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애야, 흔히들 말하지 않느냐. ‘자비를 베풀면 손을 들지 못하고, 손을 들면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라고 말이다. 네 외조상의 손맛이 워낙 매서워서 네가 그 몽둥이를 건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요괴는 말로 설득할 생각도 없이 강철 창을 빙글 돌려 손오공의 가슴을 향해 곧장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손오공은 싸움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자였다. 요괴가 서툴게 던져들 때 손오공은 노련하게 대처했다. 그는 여의금고봉으로 ‘오룡약지세(검은 용이 땅을 훑듯 휘두르는 기술)’를 펼쳐 창을 쳐내고는, 곧바로 요괴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두 사람은 황풍동 입구에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요괴는 분노하여 손행자를 선봉으로 잡으려 하고, 대성은 위엄을 떨치며 요괴를 잡아 스승을 구하러 하네. 창이 오면 몽둥이로 막고, 몽둥이가 가면 창으로 맞서니, 한쪽은 산을 지키는 총사령관이요, 한쪽은 법을 수호하는 미후왕이라. 처음에는 먼지 속에서 뒤섞여 싸우더니, 나중에는 허공 중앙에서 맞붙네. 강철 창은 끝이 날카롭고 번뜩이며, 여의봉은 검은 몸에 노란 테가 둘러졌구나. 창에 찔리면 혼이 저승으로 돌아가고, 몽둥이에 맞으면 염라대왕을 보게 되리니, 오직 손이 빠르고 눈이 매서워야 하며, 힘이 세고 몸이 강건해야 하도다. 두 싸움꾼이 죽음을 잊고 생사를 초월하여 싸우니, 과연 누가 무사하고 누가 다칠지 알 길이 없구나.

그 요괴와 손오공이 서른 합을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오공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신외신(身外身, 몸 밖의 분신을 만드는 술법)'을 부렸다.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잘게 씹은 뒤, 하늘을 향해 뿜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백여 명의 손오공이 나타났다. 모두 똑같은 차림에 저마다 여의금고봉을 하나씩 들고는 괴물을 공중에서 에워쌌다. 요괴는 겁이 나자 자신도 비슷한 재주를 부렸다. 급히 고개를 돌려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입을 세 번 크게 벌리더니, 숨을 한꺼번에 "후!" 하고 내뿜었다. 그러자 갑자기 누런 바람이 허공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참으로 무시무시했다.

시로 이르되,

서늘한 바람에 천지가 변하고, 형체 없는 황사가 소용돌이치네. 숨을 뚫고 고개를 꺾으며 소나무와 매화를 쓰러뜨리고, 흙을 뿌려 먼지를 일으키며 산등성이를 무너뜨리네. 황하의 물결은 뒤섞여 흐려지고, 상

강의 물결은 뒤집혀 요동치네. 푸른 하늘은 진동하여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의 궁궐을 흔들고, 삼라전의 전각들을 통째로 쓸어버릴 듯하구나. 오백 나한은 하늘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고, 팔대금강도 일제히 소리치며 어지러워하네. 문수보살의 청모사자는 달아나고, 보현보살의 흰 코끼리도 찾기 어렵구나. 진무대제의 거북과 뱀은 무리를 잃고, 재동제군(梓潼帝君)의 노새는 안장 갈개가 흩날리는구나. 장사꾼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사공은 온갖 소원을 빌며 절을 하네. 안개 낀 물결 속에서 목숨은 위태롭고, 명예와 이익을 쫓던 남은 삶은 물결 따라 덧없구나. 신선의 산과 동굴은 칠혹같이 어두워지고, 봉래산의 섬들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네. 태상노군은 금단을 굽는 화로를 돌볼 겨를이 없고, 수성노군은 용수선을 거두어 숨기네. 왕모는 복숭아 잔치에 가려는데, 바람 한 줄기에 치맛자락과 팔찌가 흐트러지네. 이랑신은 관주성에서 길을 잃고, 나타는 상자 속의 검을 뽑기 어렵구나. 천왕은 손바닥 위의 탑을 보지 못하고, 노반은 금으로 만든 송곳을 놓쳐버렸네. 뇌음사의 보배로운 전각은 세 층이나 무너지고, 조주교의 돌다리는 두 동강이 났구나. 붉은 해는 빛을 잃고 흐릿해지며, 하늘 가득한 별들도 모두 어지럽게 흩어지네. 남산의 새는 북산으로 날아가고, 동호의 물은 서호로 넘쳐흐르네. 암수가 서로 떨어져 울음소리조차 못 내고, 부모도 갈라져 서로를 부르지 못하네. 용왕은 바다를 뒤지며 야차를 찾고, 뇌공은 곳곳을 누비며 번개를 찾아 헤매네. 십대 염라대왕은 판관을 찾고, 저승의 우두와 마면은 서로를 쫓아다니네. 이 바람은 보타락가산을 쓰러뜨리고, 관음보살의 경전 한 권을 휩쓸어 가네. 해변의 백련화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보살이 머무는 열두 원을 쓰러뜨리네. 반고 이래로 이런 바람을 본 적 없으니, 이토록 사악한 바람은 처음이라

네. 휘이익, 천지가 터져 나갈 듯 위태로우니, 만리강산이 모두 벌벌 떨고 있구나.

요괴가 광풍을 몰아치자, 손오공이 털을 뽑아 만든 분신들은 공중에서 마치 물레처럼 정신없이 빙빙 휘돌았습니다. 분신들은 도저히 여의금고봉을 휘두를 엄두도 내지 못했으니, 어찌 몸을 가눌 수 있었겠습니까? 당황한 손오공이 털을 흔들어 분신들을 다시 몸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손오공이 철봉을 치켜들고 앞으로 나아가 싸워보려 했으나, 요괴가 다시 그의 얼굴을 향해 누런 바람을 한 입 가득 내뿜었습니다. 그 바람에 손오공의 불꽃같은 금빛 두 눈이 따가워 짝 감겨 버렸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봉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손오공은 결국 싸움에 패하여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요괴는 바람을 거두어 동굴로 돌아갔다.

한편, 저팔계는 황풍대왕이 일으킨 거센 바람에 천지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자, 말과 짐을 챙겨 산골짜기 움푹한 곳에 엎드렸다. 눈을 뜨지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입으로는 연신 불경을 외우며 소원을 빌 뿐이었다. 손오공이 싸움에서 이겼는지, 스승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한참을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맑아졌다.

저팔계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 동굴 입구 쪽을 살펴보았으나, 싸우는 소리나 북소리는커녕 무기 부딪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겁이 난 저팔계는 감히 동굴로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말과 짐을 두고 갈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게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서쪽에서 손오공이 소리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팔계는 얼른 몸을 일으켜 맞이하며 말했다. "형님, 바람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대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손오공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장난이 아니야,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나 손오공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대풍은 처음 보았다. 그 요괴 놈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강철 삼각창을 휘두르며 나에게 덤벼들기에 서른합 넘게 싸웠지. 내가 '신외신(분신술)'을 써서 놈을 에워싸고 공격했더니, 요괴가 당황해서 저런 바람을 내뿜더구나. 정말 흉악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 결국 술법을 거두고 바람을 뚫고 도망쳐 나왔다. 에이, 정말 지독한 바람이야! 나도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릴 줄은 알지만, 저 요괴가 부리는 바람처럼 악독한 적은 없었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그 요괴의 무예는 좀 어떻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무예는 제법 쓸만하더구나. 삼각창을 쓰는 솜씨도 아주 정교해서 나랑 맞서 싸울 만했어. 다만 바람이 너무 독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

저팔계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스승님은 어떻게 구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구하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혹시 이 근처에 눈을 고쳐주는 의원이 있겠느냐? 내 눈부터 좀 고쳐야겠다."

저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눈이 왜 그러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 괴물이 내뿜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더니 눈
알이 시리고 아파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구나."

저팔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 이 산중에서 날은 벌써 저물어
가는데 눈 의원은커녕 하룻밤 목을 곳조차 없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목을 곳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내 생각에 저 요괴
가 아직은 감히 우리 스승님을 해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단 큰길로
나가서 사람 사는 집을 찾아 하룻밤 묵자꾸나. 그리고 나서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요괴를 잡으러 가자."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형님. 그게 좋겠어요."

그들은 말을 끌고 짐을 짊어진 채 산골짜기를 나와 큰길 입구로 향
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길 남쪽 산비탈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불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장원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길이 있든 없든 상관
하지 않고 풀숲을 헤치며 나아가 그 장원 대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 풍
경은 이러하였다.

자줏빛 지초는 무성하고 흰 돌은 푸르스름하구나. 자줏빛 지초 사이
로 푸른 풀이 무성하고, 하얀 돌 위에는 초록빛 이끼가 반쯤 덮였네. 작
은 반딧불이 몇 마리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들숲의 나무들은 뽁뽁하게
줄지어 서 있구나. 향기로운 난초는 향기를 내뿜고, 연한 대나무는 새
로 심었네. 맑은 샘물은 굽이진 계곡을 따라 흐르고, 오래된 측백나무
는 깊은 절벽에 기대어 있구나. 인적 드문 외진 곳이라 찾아오는 나그
네 없어도, 문 앞에는 들꽃만이 흐드러지게 피었네.

두 사람은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을 향해 크게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자 한 노인이 어린 농부 몇 명을 데리고 쇠스랑과 빗자루를 든 채 달려 나오며 물었다. "누구시오? 대체 누구길래 이리 소란을 피우시오?" 손오공이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했다. "저희는 동토 대당의 성스러운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들입니다.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 산을 지나다가, 황풍대왕에게 스승님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직 스승님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부디 댁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이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다.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은 구름이 많고 사람은 드문 외진 곳이라, 방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요괴나 여우, 호랑이, 혹은 산속 도적 같은 무리가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종놈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두 분 스님이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요."

그의 형제들은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안으로 들어가 말을 매어두고 짐을 내려놓은 뒤, 장로를 뵙고 마주 앉았다. 하인이 차를 내왔고, 차를 마신 뒤에는 깨를 섞은 밥 몇 그릇을 받쳐 왔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잠자리를 마련하라는 명을 내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잠이야 안 자도 그만입니다만, 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곳에 안약을 파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이 물었다. "어떤 스님께서 눈병이 나셨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어르신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수행자들은 본래 병이 없어서 눈병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다. "병이 없다면서 어찌 약을 찾으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오늘 황풍동 입구에서 스승님을 구하려는데, 뜻밖에 그 괴물 장수가 내뿜은 바람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눈알이 아리고 따가워 자꾸 눈물이 고이는데, 그래서 안약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려! 스님, 나이도 어린 분이 어찌 그리 거짓말을 하시오? 그 황풍대왕의 바람은 참으로 무시무시하오. 그 바람은 봄바람이나 가을바람,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혹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일반적인 바람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오."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그게 혹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풍이나 귀가 아픈 풍, 혹은 몸이 뒤틀리는 풍 같은 건가요?"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오, 아니오. 그것은 '삼매신풍(三昧神風)'이라 부르는 것이오."

손오공이 물었다. "그게 어떤 바람입니까?"

노인이 답했다. "그 바람은 천지를 어둡게 만들고, 귀신조차 근심하게 하며, 바위를 쪼개고 절벽을 무너뜨릴 만큼 흉악하오. 사람이 맞으

면 목숨이 그 즉시 끊어지고 말지. 만약 그 바람을 맞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소? 오직 신선이라야 무사할 수 있을 것이요."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과연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록 신선은 아니지만, 신선들도 제 후배나 다름없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은 맞으나, 그저 눈알이 아리고 따가운 정도일 뿐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보통 내력이 있는 분이로구려. 하지만 이 작은 곳에는 안약을 파는 곳이 없소. 다만 나도 바람을 맞아 눈물을 흘렸을 때 기이한 분을 만나 전수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삼화구자고(三花九子膏)'라고 하며 온갖 바람으로 인한 눈병을 다 고칠 수 있소."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청했다. "부디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시험 삼아 써보고 싶습니다."

노인이 그러겠다고 대답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마노로 만든 작은 단지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노인은 단지 마개를 열고 옥비녀로 약을 조금 찍어 손오공의 눈에 발라주었다. 그러고는 눈을 뜨지 말고 마음을 편히 하여 잠을 자면 내일 아침이면 나을 것이라 일러주었다. 약을 다 발라준 노인은 마노 단지를 챙겨 들고 하인들을 데리고 안으로 물러갔다.

저팔계는 붓짐을 풀고 잠자리를 펴며 손오공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권했다. 손오공은 눈을 감은 채 더듬더듬 물건을 찾았다.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갔습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네가 나를 눈먼 사람 취급하는구나!"

저팔계는 킬킬거리며 웃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손오공은 잠자리에 앉아 내공을 운용하며 기운을 다스리다가,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 지나서야 겨우 잠을 청했다.

어느덧 다시 새벽 다섯 시경이 되어 동이 터 오려 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얼굴을 씻고 눈을 뜨며 말했다. “과연 좋은 약이구나. 평소보다 눈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뒤를 살펴보니, 아차! 방금까지 있던 집과 창문은 간데없고 커다란 회화나무와 버드나무만 무성할 뿐이었다. 형제들은 모두 초록빛 풀밭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때 잠에서 깬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왜 그렇게 떠드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좀 봐라.” 어리둥절하던 저팔계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사람이 살던 흔적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며 외쳤다. “내 말은 어디 갔지?” “나무에 묶어 두지 않았느냐?” “짐은 또 어디 있고?” “네 머리맡에 두지 않았느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이 집 주인도 참 무책임하네. 이사를 가면서 왜 우리에게 말 한마디 안 해준대요? 내가 알았더라면 차라도 좀 대접했을 텐데. 아마 마을 사람들이 알까 봐 밤사이에 몰래 떠난 모양이에요. 에이!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었나 보네. 집을 헐고 나가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말이에요.” 손오공이 킬킬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아, 시끄럽게 굴지 마라. 저 나무에 붙어 있는 종이는 무엇인지 좀 봐라.” 저팔계가 앞으로 걸어가 손으로 종이를 떼어보니, 거기에는 네 구절의 계송이 적혀 있었다.

“장원에 머무는 이는 속세의 사람이 아니요, 불법을 수호하는 가람의 집이라네. 묘한 약으로 그대의 눈병을 고쳐주었으니, 정성을 다해 요괴를 물리치되 망설이지 마오.”

손오공이 말했다. "저 강한 신령들이 용마로 갈아탄 뒤로는 한동안 그들을 부르지 않았더니, 저들이 또 허튼수작을 부리는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분들이 어찌 형님의 점호와 명령에 복종한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놈아,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불법을 수호하는 가람신들과 육정육갑, 오방계제, 사치공조 같은 신령들은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어 우리 스승님을 남몰래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날 이름을 알린 이후로, 줄곧 네가 곁에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쓸 일이 없었기에 점호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저분들이 법지를 받들어 스승님을 몰래 보살피고 계시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그래서 신선의 장원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 가르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어제 그분이 형님의 눈을 고쳐주신 데다 우리에게 공양까지 대접해 주셨으니, 그 정성이 참으로 지극했습니다. 원망은 그만두고 어서 스승님을 구하러 갑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네 말이 맞다. 여기서 황풍동 입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너는 움직이지 말고 숲속에서 말이나 지키며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스승님의 행방을 살펴본 뒤에 다시 저놈과 싸우겠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그게 좋겠습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요. 만약 돌아가셨다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할 테고, 살아계신다면 온 힘을 다해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가 다녀오마."

그는 몸을 휙 날려 요괴의 문 앞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요괴는 잠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문을 두드려 요괴를 깨우는 대신, 요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문을 외우며 손가락으로 결을 맺었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아주 작고 정교한 모기 한 마리로 변신했다. 이를 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작고 미천한 몸에 날카로운 입을 가졌으나 웅웅거리는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드높구나. 난방의 사(紗)로 된 휘장 사이를 잘 드나들며 한여름의 따스한 기운을 무척이나 좋아하네. 모기채 휘두르는 것은 두렵다 해도 등불의 환한 빛은 어찌 그리 가련한가. 가볍고 작은 몸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어 요괴의 동굴 속으로 날아 들어가네.

문지기 요괴가 코를 골며 자고 있기에, 손오공이 그의 얼굴을 한 입 콧물었다. 깜짝 놀라 몸을 뒤척이며 깬 요괴가 투덜거렸다. "아이고 야! 세상에 저렇게 큰 모기가 다 있나. 한 번 물렸을 뿐인데 벌써 커다란 흑이 생겼네." 요괴는 눈을 번쩍 뜨더니 "벌써 날이 밝았구나."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문이 열렸다. 손오공은 웅웅 소리를 내며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안을 보니 늙은 요괴가 각 문을 지키는 이들에게 조심하라 이르고, 한쪽에서는 병기들을 정비

하고 있었다. 늙은 요괴가 말했다. "어제 불었던 바람이 손행자를 죽이지 못한 모양이다. 그놈이 분명 오늘 다시 올 테니, 오면 반드시 목숨을 끊어 놓아야 한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대청을 날아 지나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문이 겹겹이 굳게 닫혀 있었다. 손오공이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들어가 보니, 텅 빈 넓은 마당이 나타났는데 그 한쪽 정풍장에 당승이 밧줄로 꼬꽂 묶여 있었다. 당승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로지 손오공과 저팔계 생각뿐이었고, 두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

손오공은 날갯짓을 멈추고 당승의 매끈한 머리 위에 내려앉으며 "스승님!" 하고 불렀다. 당승은 그 목소리를 알아채고 말했다. "오공아, 네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대체 어디서 나를 부르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 여기 스승님 머리 위에 있어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희가 반드시 요괴를 잡아야 스승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승이 물었다. "제자야, 그 요괴를 언제쯤 잡을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을 붙잡았던 그 호랑이 요괴는 이미 저 팔계가 때려잡았습니다. 다만 그 늙은 요괴의 바람이 워낙 매서울 뿐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잡을 테니, 걱정 말고 울지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손오공은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잉잉거리며 앞쪽으로 날아갔다. 가보니 늙은 요괴가 윗자리에 앉아 각지의 우두머리들에게 명을 내리고 있었다. 이때 동굴 앞에 있던 작은 요괴 하나가 '령(令)' 자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휘저으며 대청으로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산을 순찰하러 막 나갔다가 숲속에 입이 길고 귀가 커다란 스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빨리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털투성이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늙은 요괴가 말했다. "손행자가 없다면 분명 바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디론가 구원병을 청하러 간 것이겠지."

요괴들이 말했다. "대왕님, 만약 정말로 그를 바람으로 죽였다면 저희에게는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죽이지 못했다면, 그가 신령한 병사들을 불러올 텐데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늙은 요괴가 대답했다. "신령한 병사들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만약 내 바람의 기세를 꺾을 자가 있다면 영길보살뿐이니,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손오공은 서까래 위에 있다가 저팔계의 말을 듣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밖으로 나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뒤, 숲속으로 날아가 저팔계에게 소리쳤다.

"형제야!"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방금 명령을 내리는 깃발을 든 요괴 놈을 제가 쫓아버렸거든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참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내가 모기나 파리 같은 벌레로 변신해서 스승님을 살피러 그놈의 동굴에 들어갔더니, 스승님이 그놈에게 붙잡혀 정풍장 앞에 묶인 채 울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울지 말라고 일러두었던단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서까래 위에서 지켜보니, 그 명령 깃발을 든 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가서 보고하더구나. 자기가 형님한테 쫓겨나느라 나를 못 봤다고 말이야. 그 요괴 놈이 제멋대로 추측하면서, 손오공이 바람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신병을 부르러 갔는지 떠들썩하게 떠들던데, 결국 제 입으로 사람 이름을 하나 불더라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지, 정말 기가 막혀!"

저팔계가 물었다.

"그놈이 누구를 말하던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무슨 신병이 무섭냐면서, 그놈의 바람 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영길보살뿐이라고 말하더구나. 그런데 영길보살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네."

의논하던 중에 큰길가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니, 그 모습이 이러하다.

지팡이 없이도 몸이 꼳꼳하고, 눈처럼 하얀 수염과 머리칼이 덮수룩하다.

금빛 꽃 같은 눈썹은 눈부시게 빛나고, 마른 몸에는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다.

허리는 굽고 고개는 숙여 천천히 걷는데, 짙은 눈썹과 붉은 얼굴은 아
이 같다.

그 용모는 세상이 부르는 모습 그대로, 마치 장수 신선이 동굴에서 나
온 듯하다.

저팔계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사형, 예부터 ‘산
아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오가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형이 앞으로 가서 저분께 한번 여쭙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오공은 정말로 여의금고봉을 숨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앞
으로 나아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문안 인사 올립니다.”

노인은 대답할 듯 말 듯 건성으로 예를 갖추며 물었다. “어디서 온
스님들이요? 이 황량한 들판에 무슨 일로 왔단 말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희는 불경을 구하러 가는 성스러운 승려들입
니다. 어제 이곳에서 스승님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어르신께 여쭙 것
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영길보살님은 어디에 머무시나요?”

노인이 말했다. “영길보살은 바로 남쪽으로 가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삼천 리는 더 가야 하오. 소수미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속 도량은 보살님이 경전을 강의하시는 선원이라오. 그쪽도 보살님의 경전을 받으러 가는 길ियो?”

손오공이 말했다. “경전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 보살님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좁은 양의 길을 따라 가면 된다네.”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길을 확인하는 사이, 노인은 맑은 바람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다만 길가에는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네 구절의 게송이 적혀 있었다.

시로 이르되, “제천대성 손오공은 들어보라. 노인은 바로 이장경이라네. 소수미산에는 비룡보장이 있으니, 영길보살은 예전에 부처님의 병기를 받았도다.”

손오공은 쪽지를 챙겨 들고 몸을 돌려 길을 떠났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요즘 운수가 너무 사나워서 그런지 이틀 연속 대낮에 귀신을 본 것 같아요. 아까 바람을 일으켜 사라진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쪽지를 건네며 내용을 소리 내어 읽었다. “이장경이라니, 이분이 누구냐?” “서방 태백금성의 명호야.” 손오공의 말에 저팔계는 겁에 질려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외쳤다. “은인이시여, 은인이시여! 이 못난 돼지가 금성님께 빌어 옥황제님께 말 씀이라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제 목숨이 무엇으로 변해 사라질지 모르

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그래도 은혜를 아는구나. 하지만 나서지는 말고, 그냥 이 숲 깊은 곳에 숨어서 짐이랑 말이나 잘 지고 있어라. 내가 소수미산으로 가서 보살님을 모셔 올 테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형님은 어서 가거나 하세요. 이 못난 돼지는 거북이처럼 머리를 꼭 집어넣는 법을 잘 아니까, 숨어야 할 때는 확실히 숨어 있을게요.”

손오공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근두운을 타고 곧장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과연 그 속도가 무척 빨라, 고개를 몇 번 까딱하며 3천 리를 지나고 허리를 한 번 비틀자 8백여 리를 더 나아갔다. 잠시 후, 높은 산 하나가 나타났는데 산 중턱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며 온통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산골짜기 안에는 과연 선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와 경쇠 소리가 들려오고 향연이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오공이 문 앞까지 다다르니, 목에 염주를 걸고 입으로는 불경을 외우는 한 도인이 보였다. 손오공이 "도사님, 인사 올립니다"라며 읊을 했다. 그러자 도인이 몸을 굽혀 답례하며 물었다. "어디서 오신 어르신 이십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이곳이 영길보살께서 경전을 강의하시는 곳이 맞습니까?"

도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르신께서 보살님께 제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동토 대당의 삼장법사님을 모시는 제자이자,

제천대성 손오공 행자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보살님을 뵈고자 합니다."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저 당승의 제자 손오공이 왔다고만 전해 주십시오."

도인은 말한 대로 강당으로 올라가 보고했다. 그러자 보살은 즉시 가사를 걸치고 향을 피우며 그를 맞이했다. 손오공이 막 발을 들여 안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온 방안이 비단처럼 아름답고 위엄이 넘쳤다. 문인들은 일제히 《법화경》을 암송하고 있었고, 우두머리 스님은 금으로 만든 경쇠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부처님 앞에는 신선들이 먹는 과일과 꽃들이 공양물로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 같은 촛불은 금빛 불꽃을 뿜어내며 무지개처럼 뻗어 나갔고, 향기로운 향에서는 옥빛 연기가 피어올라 오색 구름처럼 흩날렸다.

시로 이르되,

강의를 마치고 마음이 평온해지니 막 선정에 드는구나. 흰 구름은 조각조각 솔가지에 감돌아 있네. 고요히 지혜의 칼을 거두니 마귀의 기운이 끊어지고, 반야의 높은 깨달음이 선한 모임 속에 가득하도다.

보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와서 손행자를 맞이했다. 손행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님 자리에 앉아 차를 권하는 예법을 따랐다. 손행자가 말했다.

“차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스승님이 황풍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부디 보살님께서 법력을 베푸시어 요괴를 굴복시키고 스승님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보살이 대답했다.

“나는 여래의 명을 받아 이곳에서 황풍괴를 다스리고 있소. 여래께서 내게 정풍단(바람을 멈추는 단약) 한 알과 비룡보장(날아다니는 용의 보배 지팡이) 한 자루를 내려주셨지. 예전에 내가 그를 붙잡았을 때, 목숨만은 살려주는 대신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해치거나 죄를 짓지 말고 산으로 돌아가 몸을 숨기며 살라고 명했었소. 그런데 그가 오늘 스승님을 해치려 하다니, 이는 나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니 곧 나의 죄라 할 수 있겠구려.”

보살은 손행자를 머물게 하며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나, 손행자가 간곡히 사양했다. 결국 손행자는 비룡보장을 받아 들고 손오공과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풍산에 도착했다. 영길보살이 말했다. “손오공, 저 요괴가 나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 나는 구름 위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겠소. 그대가 아래로 내려가 요괴와 싸우며 놈을 밖으로 유인해 내시오. 그래야 내가 법력을 펼칠 수 있소.”

손오공은 그 말에 따라 구름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곧장 여의금고봉을 휘둘러 황풍동의 문을 박살 내며 외쳤다. “요괴야, 당장 내 스승님을 내놓아라!”

이 소란에 깜짝 놀란 문지기 요괴가 급히 안으로 소식을 전했다. 요괴가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 놈이 정말 무례하구나! 선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내 문을 부수다니. 나가자마자 신령한 바람을 일으켜 저놈을 만드시 붙어 죽여버리겠다.”

황풍대왕은 서둘러 무장을 갖추고 강철 삼각창을 손에 쥔 채 밖으로 나왔다. 요괴는 손오공을 보자마자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곧장 가슴을 향해 창을 찔러 들어갔으나, 손오공이 몸을 옆으로 비켜 피했다. 손오공이 봉을 휘두르며 맞서 싸운 지 수십 합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황풍대왕이 고개를 돌려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벌려 바람을 불러내려던 찰나, 허공에서 영길보살이 비룡보장을 던져 내렸다. 보살이 무슨 주문을 외웠는지, 보장이 공중에서 여덟 개의 발을 가진 금빛 용으로 변하더니 두 발을 힘차게 휘두르며 요괴를 덥석 낚아챘다. 보살이 요괴의 머리를 잡아채 산기슭 바위 절벽에 몇 번이고 내동댕이치자, 요괴는 마침내 본래의 모습인 노란 털을 가진 담비로 변했다.

손오공이 달려들어 여의금고봉을 휘두르며 내리치려 하자, 영길보살이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대성, 이놈의 목숨을 해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놈을 데려가 여래를 뵙게 해야 합니다."

보살은 이어 손오공에게 설명을 덧붙였다.

"이놈은 본래 영산 기슭에서 도를 닦던 쥐였습니다. 그런데 유리 등잔 안에 든 맑은 기름을 훔쳐 먹는 바람에 등불이 흐릿해졌지요. 금강역사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도망쳐 나온 것이, 이곳에서 요괴가 되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래께서 이놈을 살피셨을 때, 죽을 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저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생명을 해치고 죄를 지었으니 영산으로 압송해야 합니다. 이제 대성께 대들고 당승까지 해치려 했으니, 제가 이놈을 데려가 여래를 뵈고 그 죄를 분명히 밝혀야 비로소 이번 공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보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살은 서천으로 돌아갔고, 그 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전한다.

한편, 저팔계는 숲속에 숨어 손오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비탈 아래에서 "오능아, 형제여! 말과 짐을 메고 어서 나오게!"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저팔계는 그 목소리가 손오공인 것을 알아채고는 얼른 짐을 챙겨 숲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리고 손오공을 보자마자 물었다. "형님,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영길보살을 모셔 와서 비룡보장을 쓰게 했더니, 요괴를 잡아 영산에 있는 여래께 데려갔단다. 알고 보니 그놈은 노란 털을 가진 담비가 변한 것이었어. 이제 우리 스승님을 구하러 네 동굴로 가자꾸나." 그제야 저팔계는 기뻐하며 신이 났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이닥쳐 그곳에 굴을 틀고 살던 교활한 토끼와 여우, 향기로운 사슴과 노루 떼를 갈퀴와 철봉으로 마음껏 때려눕혀 죽인 뒤, 뒷마당으로 가서 스승을 구했다. 문을 열고 나온 당승이 물었

다. "너희 둘이 어찌 요괴를 잡았느냐? 또 어떻게 나를 구했느냐?" 손 오공은 영길보살을 청해 요괴를 굴복시켰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당승은 감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형제들은 동굴 안에 있는 음식들을 차려 간단히 끼니를 해결한 뒤, 다시 길을 나서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했다.

결국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2회 — 저팔계가 유사하에서 크게 싸우고, 목타가 법을 받들어 오정을 거두다

八戒大戰流沙河 木吒奉法收悟淨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 일행 세 사람이 여러 난관을 벗어나 길을 재촉한 끝에, 하루 이틀 만에 황풍령을 지나 서쪽으로 나아가니 눈앞에는 탁 트인 평지가 펼쳐졌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니, 쓰르라미는 시든 버드나무에서 울어대고 대화성(大火星)은 서쪽으로 기울었다. 한창 길을 가던 중, 눈앞에 거센 물결이 일렁이며 파도가 휘몰아치는 커다란 강이 나타났다.

말 위에 앉아 있던 당승이 급히 외쳤다. “제자들아, 저 앞을 보아라. 물살이 저토록 넓고 거센데 어찌 지나갈 배 한 척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저곳을 어떻게 건너야 하겠느냐?”

저팔계가 보고는 대답했다. “정말이지 거친 파도뿐이라 배를 타고 건널 수가 없겠습니다.”

이때 손오공이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 손을 햇빛 가리듯 이마에 얹고 살펴보더니, 자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예요! 이 강을 저만 생각한다면 허리 한 번 휩 돌려 건너면 그만이지만, 스승님께서는 정말이지 천 배로 건너기 어렵고 만 년이 걸려도 지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당승이 물었다. “내가 보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데, 대체 얼마나 넓은 것이냐?”

손오공이 답했다. “강줄기가 이어지는 거리가 800리 정도는 됩니다.”

저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형님,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아우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이 손오공의 눈은 낮 동안 천 리 밖의 길흥화복까지도 훤히 내다볼 수 있다네. 방금 공중에서 살펴보니 이 강이 위아래로 얼마나 뻗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나가는 길이는 족히 800리는 되어 보이더군.”

당승이 근심과 번뇌에 빠져 말머리를 돌리는데, 문득 강가에 돌비석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세 사람이 다가가 살펴보니, 비석 윗부분에는 ‘유사하’라는 세 글자가 전서체로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네 줄의 시가 적혀 있었다.

“팔백 리 유사하의 경계라, 삼천 리 약수의 깊은 물이라. 거위 깃털 하나 띄우지 못하고, 갈대 꽃송이조차 가라앉는구나.”

스승과 제자들이 비문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산더미처럼 파도가 치고 고개처럼 물결이 일렁이더니 강 한가운데서 아주 흥측하게 생긴 요괴 하나가 미끄러지듯 쑥 솟아올랐다.

시로 이르되, "붉은 불꽃 같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두 눈은 등불처럼 번쩍이네. 검지도 푸르지도 않은 남색 얼굴에, 목소리는 천둥과 북소리처럼 우렁차구나. 황색 겹옷을 몸에 걸치고, 허리에는 하얀 덩굴을 두른 채, 목에는 아홉 개의 해골을 매달고, 손에는 위엄 있는 보장(寶杖)을 들었네."

요괴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육지로 달려 올라와 곧장 당승을 낚아채려 했다. 당황한 손오공은 스승을 품에 안고 급히 언덕 위로 뛰어 올라 몸을 피했다. 저팔계는 짐을 내려놓고 곧장 고정자(못 박힌 갈퀴)를 뽑아 들고 요괴를 향해 달려들었다. 요괴는 보물 지팡이로 갈퀴를 막아냈다. 두 사람은 유사하 강가에서 각자의 용맹을 떨치며 격렬하게 싸웠다. 이 싸움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구치형 갈퀴와 요괴를 굴복시키는 지팡이가 강가에서 서로 맞서 싸우는구나. 한 명은 천계에서 대천봉이라 불리던 총독이었고, 한 명은 죄를 짓고 쫓겨난 권렴장이었네. 예전에는 영소전에서 함께 머물렀으나, 오늘은 이곳에서 누가 더 강한지 겨루는구나. 한 명은 갈퀴로 용의 발톱을 찌르고, 한 명은 지팡이로 코끼리의 어금니를 막네. 사방으로 크게 휘두르며 거침없이 몰아치고, 바람을 가르며 구석구석 파고드네. 한 명은 얼굴도 형체도 없이 마구 움켜쥐고, 한 명은 빈틈없이 휘둘러

내치네. 한 명은 오랫동안 유사하를 차지한 식인 요괴요, 한 명은 불법을 받들어 수행하던 장수였으니.

두 사람이 몇 번이고 오가며 스무 합을 넘게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오공은 당승을 보호하며 말을 끌고 짐을 지키고 섰다. 그러다 저팔계가 요괴와 싸우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리고 분해서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어댔다. 참다못해 싸움에 끼어들려는 듯 여의봉을 쑥 뽑아 들며 말했다.

"스승님, 앉아서 기다리세요. 겁내실 것 없습니다. 이 손오공이 저놈과 한판 놀아주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당승은 간곡히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손오공은 휘파람을 한번 휘 불더니 앞으로 꺾충 뛰어 나갔다. 마침 요괴와 저팔계는 한창 기세 좋게 싸우느라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철봉을 휘둘러 요괴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요괴는 깜짝 놀라 몸을 급히 돌려 간신히 피하더니 그대로 유사하 물속으로 쥘쥘 도망쳐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형님! 누가 오라고 했어요? 저 요괴 녀석은 손이 느려서 내 갈퀴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거든요. 서너 합만 더 싸웠으면 내가 딱 잡았을 텐데, 형님이 너무 험악하게 구니까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동생아, 사실대로 말해줄게. 황풍령의 요괴를 물리치고 산을 내려 온 뒤로 한 달 넘게 봉을 휘두를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네가 저놈이랑 아주 재미있게 싸우는 걸 보니 나도 모르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한판 놀아보려고 뛰어든 거야. 그런데 저놈이 요령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렸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웃고 떠들며 걷다가 당승을 발견했다. 당승이 물었다. "요괴는 잡았느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그 요괴는 싸움에 영 소질이 없어서, 패하자마자 물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들아, 저 요괴는 이곳에 오래 살았으니 물이 얼마나 깊고 얕은지 잘 알 것이다. 이토록 끝없이 넓은 약수를 건너야 하는데 배도 없으니, 물길을 잘 아는 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구나."

손행자가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옛말에 ‘붉은빛을 가까이하면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하면 검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저 요괴는 이곳에 사니 분명 물길을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놈을 붙잡되, 함부로 죽이지는 마십시오. 스승님을 강 건너로 인도하게 한 뒤에 다시 처분하도록 합시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 망설일 것 없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서 저놈을 잡으십시오. 그동안 이 저팔계가 스승님을 지키겠습니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우야, 이 일만큼은 내가 장담할 수가 없구나. 물속에서 벌이는 일은 내가 아주 능숙한 편은 아니거든. 그냥 들어가려면 손가락으로 결(訣)을 맺고 피수주(避水咒)를 외워야 겨우 다닐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물고기나 새우, 게, 자라 같은 것으로 변신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솜씨를 겨루는 일이라면 높은 산이나 구름 위에서 벌이는 기이한 일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물속에서 벌이는 일만큼은 내가 조금 서투른 구석이 있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나 저팔계는 예전에 천하(天河, 곧 은하수)를 총독하며 8만 수병을 거느렸던 몸이라, 물길을 다루는 법은 좀 압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저놈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칠족팔대가 떴거지로 몰려나와 저놈을 도우면, 내가 당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네가 만약 물속에 들어가 저놈과 싸우게 된다면, 절대로 승부를 보려고 오래 끌지는 마라. 이길 생각은 버리고 지는 척 하면서, 저놈을 밖으로 유인해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마.”

저팔계가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팔계는 입고 있던 청색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신발도 벗어 버렸다. 그리고는 양손에 갈퀴를 쥐고 휘두르며 물길을 갈랐다. 예전의 솜씨를 발휘하여 파도를 넘고 물결을 가르며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요괴가 싸움에서 패해 물속으로 물러나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물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괴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저팔계가 쇠갈퀴를 들고 물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요괴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면전에서 크게 외쳤다. “이 중놈아, 어디를 가느냐! 똑똑히 보고 맞서거라!” 저팔계가 쇠갈퀴로 요괴의 공격을 막아내며 말했다. “네놈은 대체 어떤 요괴길래 감히 이곳 길을 막아서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름 없는 요괴나 괴물 따위가 아니다.” 저팔계가 되물었다. “요괴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여기서 생명을 해치며 살고 있단 말이나? 네 이름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것 아니냐.” 그러자 요괴가 기세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통력이 넘쳐났고, 천지 만리를 마음껏 누볐노라. / 천하에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며, 호걸들의 본보기가 되었지. / 만국과 구주를 내 뜻대로 다니고, 오호사해를 거침없이 누볐다. / 도를 배우고자 세상 끝까지 떠돌며, 스승을 찾아 넓은 땅을 유람했노라. / 일 년 내내 가사와 발우를 몸에 지니고, 매일같이 정신을 바짝 차렸지. / 수십 번을 구름처럼 떠돌며 유람하고, 백 번 넘게 이곳저곳을 다녔다. / 그 덕분에 참된 도인을 만나, 크나큰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받았도다. / 먼저 음과 양의 조화를 다스리고, 뒤이어 만물의 근원을 갈무리했지. / 명당의 신수(腎水)를 화지로 들이고, 중루의 간화(肝火)를 심장으로 돌렸노라. / 삼천 가지 공력을 쌓아 하늘의 얼굴을 뵈었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밝은 빛을 향해 절했도다. / 그 공덕으로 옥황상제께서 나를 높여주시어, 친히 권력대장이라는 직을 내리셨다. / 남천문에서는 내가 으뜸이었고, 영소전 앞에서도 당당히 윗자리를 차지했지. / 허리에는 호랑이 머리 모양의 패를 차고, 손에는 요괴를 제압하는 지팡이를 들었노라. / 머리에는 금빛

투구를 써서 햇빛에 번쩍이고, 몸에는 갑옷을 입어 노을처럼 빛났지. / 천계의 행차를 앞장서서 호위하고, 조정의 출입을 곁에서 보좌했도다. / 그런데 왕모가 반도 잔치를 열어 요지에서 신선들을 초대했을 때, / 실수로 옥유리 잔을 깨뜨리는 바람에 천신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였지. / 옥황상제께서 크게 노하시어, 조정을 관장하는 좌보상에게 명하시기를, / ‘관을 벗기고 갑옷을 벗겨 관직을 박탈하고, 저놈을 처형장으로 끌어내라’ 하셨다. / 다행히 적각대천선(赤腳大天仙)이 나서서 반열을 넘어 아뢰어 나를 풀어준 덕분에, / 형벌을 면하고 죽음에서 살아나 유사하 동쪽 언덕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고도다. / 배부를 때는 이 산속에서 잠을 자고, 배고플 때는 물결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 나무꾼은 나를 만나면 목숨을 잃고, 어부는 나를 보면 목숨을 잃는다. / 오가는 이들을 수없이 잡아먹으며, 물결을 일으켜 생명을 해쳐왔노라. / 네놈이 감히 흥포하게 내 영역에 들어왔으니, 오늘 내 배때지를 채울 좋은 기회로구나. / 거칠어 먹을 수 없다고는 말하지 마라, 붙잡으면 천천히 잘게 다져 젓갈로 담가 주마!”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고얀 놈! 눈치도 없구나! 이 저팔계는 물속에서도 거품을 만들어낼 만큼 매끄러운데, 감히 나를 거칠다고 하며 젓갈을 담가 먹겠다고 해? 네놈이 나를 아주 늙은 소금 절임으로 보는 모양이구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네 조상님께 이 갈퀴 맛을 보여주마!”

요괴는 갈퀴가 날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봉점두(봉황이 머리를 까다이는 듯한 몸놀림)’를 펼쳐 가볍게 피했다. 두 괴물은 물 위로 솟구쳐

올라 각자 파도를 밟으며 맞붙었다. 이번 싸움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으니, 그 광경을 보라.

시로 이르되,

권렴장이었던 천봉원수와 저팔계가 각자의 신통력을 발휘하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라. 한 명은 요괴를 잡는 보배로운 지팡이를 휘두르고 한 명은 구치정갈퀴를 손길 따라 빠르게 놀리네. 파도를 가르며 산천을 뒤흔들고 물결을 밀어내며 세상을 어지럽히니, 태세신이 깃발을 휘두르는 듯 흥포하고 상문신이 보석 덮개를 걷어차는 듯 악랄하구나. 한 명은 뜨거운 마음으로 당승을 지키려 애쓰고 한 명은 지은 죄가 물결처럼 넘실대는 물귀신이라. 갈퀴가 달을 때마다 아홉 줄기 흔적이 남고 지팡이로 내리칠 때마다 혼백이 흩어지네. 필사적으로 맞서며 승부를 겨루니 오직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승을 위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싸움을 멈추지 않네. 그 바람에 물고기와 잉어들은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거북과 자라들은 등껍질이 상하는구나. 붉은 새우와 자줏빛 게들은 목숨을 잃고 수중 세계의 신령들조차 우러러보게 되니, 천둥이 치듯 파도가 요동치고 물결이 소용돌이쳐 해와 달조차 빛을 잃고 천지가 뒤흔들리는구나.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이나 격렬하게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 기세가 마치 구리 대야와 쇠빛자루가 맞부딪치고, 옥 경쇠와 금종이 서로 부딪치는 것처럼 맹렬하였다.

한편, 손오공은 당승을 보호하며 좌우에 든든히 서서, 저 둘(저팔계와 요괴)이 물 위에서 한창 다투는 모습을 애타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둘이 뒤엉켜 있어 손을 쓰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그때 저팔계가 쇠갈퀴를 허공에 휘두르며 일부러 지는 척하더니, 슬그머니 몸을 돌려 동쪽 강가로 걸어갔다. 요괴가 그 뒤를 쫓아 강가 근처까지 따라붙었다. 이 광경을 참다못한 손오공이 스승을 뒤로하고 여의봉을 뽑아 든 채 강가로 꺾충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요괴의 머리를 향해 매섭게 내리쳤다. 요괴는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획 소리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숨어버렸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이놈의 필마온(말을 돌보는 하급 관리)아, 너는 정말 성미가 급하구나! 좀 천천히 움직이지 그랬냐. 내가 놈을 속여서 높은 곳까지 유인하면, 네가 강가를 딱 막아서서 놈이 물로 못 돌아가게 하면 잡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저놈이 저렇게 도망가 버리면 언제 다시 나오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만 떠들고 어서 가서 스승님을 뵙자.”

한편, 저팔계는 손행자와 함께 강가 언덕으로 올라가 당승을 만났다. 당승이 몸을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제자들이 고생이 많구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고생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저 요괴를 항복시키고 스승님을 안전하게 강 너머로 모시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승이 물었다. “방금 요괴와 싸울 때는 어떠했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그놈 수법이 저와 꽤 막상막하였습시다. 한창 싸우던 중에 제

가 일부러 지는 척하며 도망쳤더니, 그놈이 기세등등하게 언덕까지 쫓아오더군요. 그런데 마침 사형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자마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승이 걱정스레 말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손행자가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십시오. 날도 저물었으니 우선 이 언덕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재를 좀 구해올 테니, 스승님께서는 식사하시고 좀 쉬고 계십시오.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웁시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빨리 다녀오너라.”

손행자는 급히 구름을 타고 뛰어올라, 바로 북쪽으로 달려가 어느 집에 들러 채소로 만든 소박한 공양물 한 그릇을 얻어 스승에게 바쳤다. 스승은 그가 이토록 빨리 돌아온 것을 보고 말했다.

"오공아, 우리가 공양을 올리러 간 집에 가서 강을 건널 방도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겠느냐? 이 괴물과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 집은 너무 멀어서 5~7천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또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5~7천 리 길을 어찌 그렇게 순식간에 다녀오신단 말입니까?"

손행자가 대답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이 몸의 근두운은 한 번 뛰어오르면 10만 8천 리를 간다. 이 정도 5~7천 리 길이야 고개만 두어 번 까딱이고 허리만 몇 번 굽히면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그렇게 쉽다면 스승님을 등에 업고 고개만 까딱, 허리만 굽히며 훌쩍 건너가 버리시지요. 왜 이 괴물 녀석과 힘들게 싸우며 고생하십니까?"

손행자가 되물었다.

"너는 구름을 탈 줄 모르느냐? 그럼 네가 스승님을 등에 업고 건너가 보든가!"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의 육신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구름을 타는 저 같은 놈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형님의 근두운이라야 가능할 겁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내 근두운도 결국 구름을 타는 것이긴 하지만,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너는 못 업어도 나는 업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하겠느냐? 하지만 예부터 이르기를 '태산을 겨자씨처럼 가볍게 옮길 수는 있어도, 범부의 몸을 데리고는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저 요괴 놈은 술법을 부리고 바람을 일으키며 땅 위를 휘젓고 다니니, 하늘로 끌고 올라갈 수가 없구나. 저런 수법은 나도 쓸 줄 안다. 몸을 숨기는 은신술이나 땅을 줄이는 축지법 같은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이 이국땅을 온전히 겪어내며 고난을 이겨내셔야 하기에, 고통의 바다를 건너뛰어 버릴 수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나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스승님을 곁에서 호위하며 목숨을 보전해 드리는 것뿐이다. 스승님의 이런 고뇌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전을 대신 가져올 수도 없지 않느냐. 설령 내가 먼저 가서 부처님을 뵈는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우리 대신 경전을 주지는 않으실 게다. 그야말로 '쉬운 길로 얻으려 하면 오히려 경솔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과 같구나."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고분고분 수긍했다. 일행은 채소가 들어가지 않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유사하 동쪽 절벽 아래에서 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당승이 물었다. "오공아,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느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팔계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형님은 속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매번 저보고만 물에 들어가라고 하시니 말이에요."

손행자가 달렸다. "아우야, 이번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오마. 네가 요괴를 물 밖으로 유인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강가에서 버티고

서서 요괴가 다시 물속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을 테니, 반드시 이번에는 놈을 붙잡고 말자."

장하다, 저팔계! 그는 얼굴을 쓱 닦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양손에 쇠갈퀴를 짊어졌다. 그는 강가를 따라 물길을 헤치며 다시 괴물의 소굴로 내려갔다. 마침 잠에서 깨어난 괴물은 물을 헤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다. 저팔계가 쇠갈퀴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본 괴물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멈춰라, 멈춰! 내 지팡이 맛 좀 봐라!" 저팔계가 쇠갈퀴로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며 맞받아쳤다. "네놈이 무슨 장례식용 지팡이나? 감히 누구 앞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게냐!" 그러자 괴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지팡이를 보아라! 이 보배로운 지팡이는 이름도 드높으니, / 본래 달 속 사라수(梭羅)의 가지에서 나온 것이라네. / 오강이 그 가지 하나를 베어 오니, / 노반의 솜씨로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지. / 안에는 황금빛 신령한 기운이 한 줄기 흐르고, / 겉에는 만 갈래 진주 실이 감겨 있구나. / 요괴를 굴복시키는 보배로운 지팡이라, / 영소전을 영원히 지키며 괴물을 제압하네. / 대장군 자리에 있을 때, / 옥황상제께서 몸에 지니라 내리신 것이라네. / 길고 짧음은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 굵고 가늘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지. / 천계의 잔치에서 반도를 지키기도 하고, / 천계의 조정에서 윗 자리에 머물기도 했다네. / 전각을 지킬 때 성현들이 참례하는 것을 보았고, / 권력장 시절에는 신선들이 절하는 것도 보았지. / 영험한 기운을 키운 신령한 병기이니, / 인간 세상의 흔한 도구와는 비교도 안 되네. / 천계에서 쫓겨나 이곳까지 내려온 뒤로, / 바다를 누비며 마음껏 휘둘러 왔노라. / 내 대담하게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 천하의 창

과 칼도 내 상대가 되지 못하네. / 네놈의 녹슨 쇠갈퀴 따위는, / 그저 밭이나 갈고 채소나 심는 데나 쓰거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덜 맞은 고얀 놈아! ‘밭이나 갈고 채소나 심으라’는 그딴 소리는 집어치워라. 내 이 갈퀴를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 네놈은 약 붙일 자리도 없이 아홉 구멍에서 한꺼번에 피를 쏟게 될 거다.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파상풍에 시달리게 될 테니!” 그러자 요괴는 싸우려던 자세를 풀더니, 물밑으로 잠겼다가 저팔계와 다시 맞붙기 위해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이번 싸움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보배 지팡이는 휘둘러지고 쇠갈퀴는 내리치니, / 말도 안 통하는 남
남끼리 뒤엉켜 싸우네. / 나무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이기려 하니, / 두
존재가 서로 부딪치며 싸움이 끊이지 않네. / 승부도 없고 끝도 없이, /
물결을 일으키며 거친 파도 속에 뒤섞이네. / 한쪽은 분노를 참지 못하
고, / 다른 한쪽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네. / 쇠갈퀴와 지팡이가 영웅
을 가리려 하고, / 거친 물살과 모래바람은 사납기 그지없네. / 기세는
드높고 몸은 고달프니, / 모두 삼장법사가 서천으로 향하기 때문이
라. / 쇠갈퀴는 흥포하기 이를 데 없고, / 보배 지팡이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구나. / 한쪽은 물으로 끌어올리려 붙잡고, / 다른 한쪽은 물을
끼었으며 덤벼드네. / 천둥소리 같은 격돌에 물고기와 용들이 놀라
고, / 구름은 어두워지고 하늘은 흐려져 귀신조차 숨죽이네.

이번 싸움은 서로 치고받으며 서른 합을 넘게 겨루었으나, 어느 쪽이 강하고 약한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저팔계는 슬쩍 지는 척하며 쇠갈퀴를 끌고 물러났다. 그러자 요괴가 그 뒤를 따라 파도를 일으키며 쫓아와 절벽 끝까지 몰아붙였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이 고약한 괴물 놈아!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땅을 딛고 제대로 싸워보자!"

그러자 요괴가 욕설을 내뱉으며 맞받아쳤다.

"이놈이 나를 속여서 위로 끌어올리려 하는구나! 네놈이 올라오면 분명 네 부하들을 불러낼 속셈이지? 차라리 네가 내려와라. 물속에서 맞붙자!"

알고 보니 요괴가 아주 영악해진 것이었다. 다시는 육지로 올라오려 하지 않고, 그저 강가에 머물며 저팔계와 말다툼하며 괴롭힐 뿐이었다.

한편, 손행자는 요괴가 상륙하기를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놈을 붙잡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손행자가 말했다. "스승님, 일단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저놈을 '끓주린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단숨에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획 소리를 내며 요괴를 잡으려고 아래로 급강하했다. 요괴는 마침 저팔계와 소란을 피우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자 급히 고개를 돌렸다. 손행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본 요괴는 얼른 지팡이를 거두고는 물속으로 머리를 처박으며 자취를 감추어 버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손행자는

강가에 서서 저팔계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요괴가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구먼. 저놈이 끝까지 땅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 하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팔계가 대답했다.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군요. 젓 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싸워봤지만, 손만 허무하게 저린 채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일단 스승님께 여쭙어보자꾸나."

두 사람이 다시 강가로 올라와 당승을 만나, 요괴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였다. 당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토록 험난하니, 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요괴가 물속 깊이 잠겨 있어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니 정말 까다롭군요. — 저팔계, 너는 여기서 스승님을 잘 보살펴라. 다시는 스승님과 다투지 말고 말이다. 나는 잠시 남해에 다녀오겠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남해에는 무엇 하러 가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불경을 가져가는 일도 원래 관음보살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분도 관음보살님이시다. 오늘 유사하의 물살에 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보살님이 없으면 이를 어찌 해결하겠느냐? 가서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여기서 저 요괴와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팔계가 말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형님, 가실 때 저에게 꼭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어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당승이 말했다. "오공아, 만약 보살님을 모셔 오려거든 주저하지 말고 어서 다녀오너라."

손행자는 곧 근두운을 타고 단숨에 남해로 향했다. 어라! 채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벌써 보타락가산의 경계가 눈앞에 보였다. 잠시 후 근두운을 타고 내려 자죽림 밖에 이르니, 이십사로 제천신들이 앞으로 나와 마중하며 물었다. "대성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스승님께 난관이 닥쳐, 특별히 보살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제천신들이 말했다.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중 그날 당번을 맡은 제천신이 조음동 입구로 달려가 보고했다. "손오공이 알현을 청합니다." 보살은 마침 봉주룡녀(捧珠龍女)와 함께 보련지연못가 난간에서 꽃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운암으로 몸을 돌려 문을 열고 손행자를 불러들였다. 대성은 엄숙한 태도로 귀의하며 절을 올렸다.

관음보살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당승을 보살피지 않고, 무슨 일로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손행자가 사정을 아뢰었다. "보살님, 저희 스승님께서 예전에 고노장에 계실 때 저팔계를 제자로 하나 더 거두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오능이라는 법명도 내려주셨지요. 이제 막 황풍령을 지나 팔백 리 길에 달하는 유사하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약수 삼천 리라 스승님께서 건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강 가운데 무예가 뛰어난 요괴가 나타나, 저팔계가 물 위에서 세 차례나 크게 싸웠으나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가로막히는 바람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께 특별히 고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스승님을 건너게 도와주십시오."

보살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또 잘난 체를 하는구나. 당승을 보살펴야 한다는 말은 차마 못 하는 것이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저희는 그저 요괴를 붙잡아서 스승님을 강 너머로 보내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팔계가 요괴의 소굴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나, 요괴가 아직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을 듣지 못한 모양입니다.”

보살이 말했다. “그 유사하의 요괴는 예전에 권렴대장이었다가 세상에 내려온 자로, 내가 권하여 불도를 닦게 한 선한 신도이다. 그에게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이들을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느니라. 네가 만약 그가 동토에서 온 경전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면, 그는 결코 너와 다투지 않고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손행자가 말했다. “그 요괴는 지금 싸우기를 꺼려하여 언덕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물속에 숨어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 스승님은 이 험한 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즉시 해안을 불러 곁에 두게 한 뒤, 소매 안에서 붉은 호로 하나를 꺼내며 명령했다. “이 호로를 가지고 손오공과 함께 유사하 물 위로 가거라. 가서 ‘오정’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가 나올 것이다. 먼저 그를 당승에게 귀의하도록 이끌어라. 그런 다음 그의 해골 아홉 개를 하나로 꿰어 구궁의 법식에 따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이 호로를 놓

으면 그것이 곧 법선이 되어 당승을 유사하 너머로 건너게 해 줄 것이다.”

혜안은 그 말을 듣고 스승의 명을 받들어, 손오공과 함께 호로를 받쳐 들고 조음동을 나왔다. 그리고 법도를 받들어 자족림에 작별을 고했다. 시로 이르되,

오행의 기운이 하늘의 참된 이치와 맞닿으니, 예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비로소 알겠구나. 이미 다스려 기초를 세우니 그 쓰임이 오묘하고, 사악함과 바름을 구별하여 그 근원을 밝히네. 금(金)은 본성으로 돌아가 같은 무리로 합쳐지고, 목(木)은 정을 쫓다 다시 세상 속으로 굴러가네. 두 흙(土)이 공을 다하여 고요함을 이루니, 물과 불을 조화롭게 다스려 티끌 하나 남지 않는구나.

두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일찍이 유사하 강가에 도착했다. 저팔계는 목타와 손행자인 것을 알아보고 스승을 이끌어 마중 나가게 했다. 목타는 당승에게 예를 갖춘 뒤 저팔계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지난번에 존자께서 일러주신 덕분에 보살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이 못난 저팔계도 법을 받들어 이제 사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길 위에서 바빠 움직이느라 미처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손행자가 말했다. "옛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서 그놈을 불러오자고."

당승이 물었다. "누구를 부른다는 말이나?"

손행자가 대답했다. "제가 보살님을 뵈고 지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말씀이, 이 유사하의 요괴는 예전에 천계의 권렴대장이었으나 죄를 지어 이곳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본성을 잊고 괴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이미 교화하여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우리가 아직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서 이토록 괴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번에 목타를 보내 이 호로를 주시며, 저놈과 함께 법선을 만들어 스승님을 건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승은 이 말을 듣고 끝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예를 올린 뒤, 목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부디 존자께서 서둘러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타는 호로를 받쳐 들고 구름과 안개를 헤치며 곧장 유사하 수면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사오정! 사오정! 경전을 구하는 분들이 여기 오신 지가 언제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귀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한편, 요괴는 손오공이 두려워 물밑 굴속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범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관음보살님이 분명하다고 직감한 순간, "경전을 구하러 가는 분이 저쪽에 계신다"라는 말까지 들려왔다. 그는 도끼나 칼날 따위는 무섭지도 않은지, 급히 물결을 헤치며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목타임을 알아보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가 예를 갖추어 물었다.

"존자님, 마중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목타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 우선 내가 먼저 와서 너에게 명하러 왔다. 어서 당승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네 목에 걸린 해골과 이 호로를 가지고 구궁결(아홉 칸의 신비로운 결계)을 짜서 법선(신령한 배)을 만들어, 그를 이 유사하 너머로 건너게 해 주어라."

사오정이 물었다.

"그 경전 구하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목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동쪽 기슭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냐?"

사오정이 그를 보고는 저팔계에게 말했다.

"저놈이 어디서 온 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틀 동안이나 나랑 한바탕 싸우면서 경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군!"

그러더니 손오공을 보고는 덧붙였다.

"저 주인은 저놈의 조력자 같은데, 아주 보통내기가 아니야. 난 안 갈래!"

그러자 목타가 말했다.

"저분은 저팔계고, 이분은 손오공이다. 둘 다 당승의 제자이며 모두 보살님께서 인도하여 귀의하게 하신 분들이니 무엇이 두려우냐? 어서 나와 함께 당승을 만나러 가자."

사오정이 보물 지팡이를 거두고 노란 비단 도포를 가지런히 정돈한 뒤, 물으로 뛰어 올라와 당승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제자가 눈이 멀어 스승님의 존귀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이 멍청한 놈아, 진작 귀의할 것이지 왜 나랑 싸우려고만 들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형제여, 이 사람을 탓하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일이나 서로의 이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당승이 물었다. "그대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 우리 가르침에 귀의하겠는가?"

사오정이 대답했다. "제자는 예전부터 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은 모래 사(沙)를 쓰고, 법명은 사오정이라 받았습니다. 이제 스승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되었구나." 당승이 손오공을 불렀다. "오공아, 계도(戒刀, 머리를 깎는 칼)를 가져오너라. 이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어야겠다."

손오공이 말한 대로 계도를 가져와 그의 머리를 말끔히 깎아주었다. 사오정은 다시 당승에게 절을 올리고, 이어 손오공과 저팔계에게도 절을 하며 위아래 차례를 나누었다. 당승이 보니 그의 예법이 참으로 스님다운 풍모를 갖추고 있어, 그를 ‘사화상’이라 부르기로 했다.

목타가 말했다. “이미 계율을 받으셨으니 번거로운 일은 그만두고, 어서 법선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오정은 지체 없이 목을 매달고 있던 해골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밧줄로 구궁(九宮, 아홉 칸의 격자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관음보살의 호로를 단단히 고정하더니, 스승님께 배에 오르라고 청했다. 당승이 법선에 올라타자, 배는 마치 가벼운 조각배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왼쪽에서는 저팔계가 부축하고 오른쪽에서는 사오정이 받쳐 들었으며, 손오공은 뒤에서 용마를 끌며 구름과 안개 사이를 따라갔고, 위에서는 목타가 호위하며 나아갔다.

그제야 당승은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이 평온한 유사하를 가로질러 유유히 건너갈 수 있었다. 그 속도가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서, 머지않아 강 건너편에 도착해 거센 물결을 벗어났다. 일행은 지체 없이 발을 내디뎠고, 다행히 옷이나 몸이 젖지 않아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로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목타는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가며 호로를 거두어들였다. 한편, 해골은 순식간에 아홉 줄기 음산한 바람으로 변하더니 고요히 사라져 버렸다. 당승은 목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보살에게 절을 올렸다.

시로 이르되,

목타는 그대로 동쪽 바다로 돌아가고 당승은 말을 타고 다시 서쪽으로 향하네.

결국 언제쯤에야 정과를 얻고 경전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3회 — 삼장이 근본을 잊지 않고, 네 성인이 선심을 시험하다

三藏不忘本 四聖試禪心

법을 받들어 서쪽에서 오니 길은 멀고 아득한데,
가을바람 서늘하게 불어와 서리꽃이 떨어지네.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는 쇠사슬 풀어주지 말고,
거친 말은 채찍질을 삼가며 잘 다독여야 하리.
나무의 어머니와 금의 아버지는 본래 하나요,
황색 어머니와 붉은 아들은 원래 다를 게 없네.
쇠로 된 탄환을 깨뜨리는 참된 소식을 알아채면,
지혜의 깨달음이 저 너머 그곳에 닿으리라.

이 이야기는 경전을 구하는 길이 결국 근본을 닦는 도리와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스승과 세 제자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마음을 옥죄던 속세의 굴레를 벗어던졌다. 그들은 본성의 바다와 유사하(流沙河)를 뛰어넘어 아무런 걸림 없이 곧장 서천으로 향하는 큰길로 들어섰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두루 지나며 들꽃과 풀밭의 풍경을 끝없이 마주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가을철에 접어들었으니, 그 풍경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단풍잎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노란 꽃은 늦가을 바람을 견뎌내네. 늙은 매미 소리는 점점 나른해지고 귀뚜라미 울음은 끝없는 시름을 부르네. 연꽃은 푸른 비단 부채처럼 시들어 찢기고 굴 향기는 금빛 탄환처럼 무더기로 매달렸네. 가련한 기러기 떼는 줄지어 날아가며 점점 이 먼 하늘을 수놓고 있네.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들아, 벌써 날이 어두워졌구나. 어디서 하룻밤 묵어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바람을 밥 삼고 물을 마시며, 달빛 아래 눕고 서리 속에 잠들면 그곳이 어디든 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쉴 곳을 찾으신다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형님, 형님은 몸이 가벼우니 남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유사하를 건넌 뒤로 줄곧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정말 죽을 맛이라고요. 이럴

때는 사람 사는 집을 찾아가서 차라도 얻어먹고 기운도 좀 차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손오공이 나무라듯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불평할 마음이 가득하구나. 예전 고노장 시절처럼 게으름만 피우며 복을 누리던 때처럼 살 수는 없을 게다. 이제 정식으로 수행하는 승려가 되었으니, 모름지기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견뎌내야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좀 보세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놈아, 너랑 사오정이 합류한 뒤로는 내가 직접 짐을 지지 않았으니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저팔계가 다시 말을 이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양이 이 정도라고요.

노란 등나무 덩굴 네 가닥에, 길고 짧은 밧줄 여덟 줄이라. 비바람 막으려 펠트 천을 서너 겹이나 둘렀고, 짐이 미끄러질까 봐 양 끝에 못까지 박았네. 구리 테 두른 철 지팡이에, 대나무 줄로 엮은 망토까지 둘렀으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소?”

“이 많은 짐을 나 혼자 매일같이 짊어지고 가려니 죽을 맛이라니까요. 형님은 스승님 모시는 제자 노릇이나 하고, 나를 머슴 취급하더라고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누구한테 투덜대는 거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 형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 이 몸은 오로지 스승님을 잘 모시는 데만 전념할 것이니, 너와 사오정은 짐과 말이나 잘 돌보거라. 만약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내 몽둥이가 네 다리부터 먼저 날아갈 줄 알아라.”

저팔계가 말했다. “아이고, 형님! 때리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때리는 건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형님 성격이 워낙 드높고 고고해서 절대 짐을 안 지려 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스승님이 타시는 저 말 좀 보세요. 저렇게 크고 살이 통통한 말이 스승님 한 분만 태우고 있는데, 짐 몇 가지 얹어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게 다 형제간의 정 아니겠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저놈을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평범한 말이 아니야. 원래 서해 용왕 오윤의 아들로, 이름은 용마 삼태자라고 해. 전각에 있던 명주를 불로 태워버리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불효했다는 죄목으로 천계의 법을 어겼는데, 다행히 관음보살님이 목숨을 구해주셨지. 그 후 응수두간에서 스승님을 오래 기다리다가 보살님이 직접 오셔서 비늘을 벗기고 뿔을 떼어내며 목 아래의 여의주까지 가져가신 뒤에야 지금의 말로 변하게 된 거야. 그렇게 스승님을 등에 태우고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각자가 쌓은 공덕이니, 너는 괜히 아는 체하며 달라붙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정말로 용이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용이 맞다."

그러자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형님, 제가 듣기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용은 구름과 안개를 뿜어내고 흙과 모래를 일으키며, 험한 산맥을 넘나들고 바다를 뒤엎는神通력이 있다고 하던데, 어째서 저놈은 오늘 저렇게 느릿느릿 걷는 겁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빨리 가라고 난리니, 내가 아주 제대로 빨리 달리게 해줄 테니 어디 한번 잘 보라."

멋진 손오공(대성)이 여의금고봉을 한 번 움켜쥐자 만 갈래의 채운이 피어올랐다. 그 말은 손오공이 몽둥이를 쥐는 것을 보고 자신을 때릴까 두려워, 깜짝 놀라 네 발굽을 번개처럼 놀리며 쾅하니 달아나 버렸다. 삼장은 손에 힘이 빠져 고삐를 잡아채지 못한 채, 말이 사나운 성질대로 산비탈 위로 내달려 올라간 뒤에야 비로소 큰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삼장이 거친 숨을 겨우 가라앉히고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소나무 그늘 아래 집 몇 채가 보였다. 그 모습이 참으로 웅장하고 기품이 있었는데, 대략 이러했다.

문가에는 푸른 측백나무가 늘어져 있고, 저택은 푸른 산과 맞닿아 있다. 소나무 몇 그루는 싱그럽게 자라 있고, 대나무들은 점점이 무늬를 이룬다. 울타리 옆 들국화는 서리를 머금어 더욱 곱고, 다리 걸 그윽한 난초는 물결에 붉게 비친다. 벽은 고운 흙을 발라 매끄럽고, 담장은

벽돌로 둥그렇게 쌓아 올렸다. 높은 대청은 장려하고 웅장하며, 큰 집은 아주 맑고 평온해 보인다. 소나 양, 닭이나 개조차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가을걷이를 마쳐 농사일이 한가한 모양이다.

당승이 고삐를 잡고 천천히 살피고 있는데, 손오공 형제들이 막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사오정이 물었다. "스승님,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으셨습니까?" 당승이 꾸짖으며 말했다. "손오공 이 못된 원숭이 녀석이 말을 놀라게 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지, 진작에 잘 타고 있었단다." 손오공이 옆에서 웃으며 달랐다. "스승님,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다 저 팔계가 말이 너무 느리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녀석을 좀 빨리 달리게 한 것뿐입니다." 멍청하게 서 있던 저팔계는 말을 급히 몰려 온갖 고생을 한 탓에,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고는 입속으로 투덜거렸다. "에휴, 못 살겠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구나. 짐은 또 어찌나 무거운지 들리지도 않는데, 나를 이리저리 뛰게 하며 말만 몰아대다니!"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저기 담장 너머에 장원이 하나 보이는구나. 저곳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급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과연 허공에는 경사스러운 구름이 감돌고 상서로운 안개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오공은 이것이 분명 부처나 신선이 이끄는 징조임을 알아차렸으나, 감히 하늘의 비밀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저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곳에 가서 묵도록 하세요."

삼장이 급히 말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연꽃이 늘어진 코끼리 코 모양의 문루가 보였는데, 들보에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사오정이 짐을 내려놓자, 저팔계가 말을 끌며 말했다.

“이 집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네요.”

손오공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삼장이 말했다.

“안 된다. 우리 같은 수행자들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피해야 하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의를 갖추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저팔계는 말을 매어두고 담벼락 아래에 비스듬히 기대앉았고, 삼장은 돌북 위에 앉았다. 손오공과 사오정은 대청 기단 옆에 자리를 잡았다. 한참이 지나도 사람이 나오지 않자, 성미 급한 손오공이 벌떡 일어나 문 안쪽을 살펴보았다. 안에는 남쪽을 향한 세 칸짜리 큰 대청이 있었고, 창문에는 발이 높게 드리워져 있었다. 병풍 문에는 ‘수산복해(壽山福海,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산과 바다)’를 그린 족자가 걸려 있었고, 양옆의 금칠을 한 기둥에는 붉은 종이에 쓴 춘련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버들가지 휘날리는 평교의 저녁 풍경, 매화 꽃잎 흩날리는 작은 마당의 봄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빛이 바랜 검은 칠을 한 향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향로가 놓여 있었다. 탁자 주변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 여섯 개가 놓여 있었으며, 의자 양옆으로는 사계절 풍경이 그려진 병풍이 세워져 있었다.

손오공이 몰래 훑쳐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뒷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반쯤 나이 든 여인이 걸어 나왔다. 여인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기에 감히 과부의 집 안까지 함부로 들어오느냐?” 깜짝 놀란 손오공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승은 동토 대당에서 온 승려입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

는 길입니다. 저희 일행 네 명이 보방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부디 보살님의 저택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스님, 다른 세 분은 어디 계십니까? 어서 모셔 오세요.” 손오공이 큰 소리로 불렀다. “스승님, 들어오십시오!” 그제야 삼장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말과 짐을 끌고 들어갔고, 여인은 거실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저팔계는 눈을 번뜩이며 여인의 차림새를 훑쳐보았는데, 그 모습이 이러했다.

비단으로 짠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연분홍색 조끼를 걸쳤으며, 채색 끈을 두른 거위 노란빛 비단 자수 치마를 입고 굽 높은 꽃신을 신었구나. 유행하는 트레머리에 검은 사(紗)를 덮어 두 가지 색의 용무늬 머리와 어우러지고, 궁중풍 상아 빛과 붉은 비취 장식이 번쩍이며 금비녀 두 가닥이 비스듬히 꽂혀 있네. 구름 같은 귀밑머리는 반쯤 희끗하나 봉황 날개처럼 틀어 올렸고, 귀에는 보석 귀걸이가 쌍으로 매달렸구나.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우니, 그 풍류가 마치 젊은이처럼 매력적이라다.

그 부인은 일행 세 사람을 보자 더욱 기뻐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청으로 모셨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때 병풍 뒤에서 머리를 땅아 내린 어린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더니, 황금 쟁반에 백옥 잔을 받쳐 들고 향기로운 차를 따르며 따뜻한 김을 올리고, 은은한 향이 나는 과일을 내왔다. 계집종은 소매가 곱고 손가락이 마치 봄순처럼 가늘고 길었는데, 옥잔을 높이 들어 정성껏 차를 대접하며 일행에게 일일이 절을 올렸다. 차를 다 마시자 부인은 다시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삼장이 손을 들어 물었다.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곳은 지명이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서우하주 땅입니다. 저는 친정이가 씨이고, 시댁은 모 씨입니다. 불행히도 어릴 때 시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편과 함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재산은 만 관에 달하고 비옥한 논밭도 수천 이며, 부부 사이에 자식 운이 없어 딸만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져 올해로 상기를 다 마쳤습니다. 남겨진 토지와 가업은 있으나 돌봐줄 친척도 없으니 오직 딸들이 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니 가업을 차마 놓을 수가 없더군요. 마침 스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스님과 제자들을 포함해 네 분이 오신 것 아닙니까? 저희 딸 넷도 마침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 분이 딱 맞을 듯합니다. 스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장은 이 말을 듣고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며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부인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논이 삼백여 경, 밭이 삼백여 경, 산에 있는 과수원이 삼백여 경이나 됩니다. 황수소는 천 마리가 넘고, 노새와 말은 떼를 지어 다니며, 돼지와 양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장원과 초원도 예순에서 일흔 곳이나 됩니다. 집에 쌓아둔 쌀과 곡식은 여덟아홉 해를 써도 다 못 쓸 정도이고, 비단과 옷감은 열 해를 써도 남을 만큼 가득하며, 평생 써도 다 못 쓸 금과 은이 넘쳐납니다. 그 부유함이 마치 봄날의 화려한 비단 휘장 같아서, 금비녀

를 양쪽으로 늘어놓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이지요. 만약 스승님과 제자들이 마음을 돌려 이 가난한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신다면, 서천까지 고생스럽게 길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삼장 역시 낮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저는 정해년 삼월 초사흘 유시(酉時)에 태어났기에, 남편은 저보다 세 살이 많았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마흔다섯입니다. 큰딸 이름은 진진이고 올해 스무 살이며, 둘째 딸은 애애로 올해 열여덟, 막내딸은 련련으로 올해 열여섯입니다. 세 딸 모두 아직 혼인하지 않았지요. 비록 이 몸은 못생기고 초라하나, 다행히 딸들은 제법 예쁘장한 구석이 있고 바느질이며 손재주가 좋아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아이들을 아들처럼 키워왔습니다. 어릴 때 유교 경전도 조금씩 가르쳤더니 시를 읊고 글을 쓰는 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답니다. 비록 산속 장원에 살고는 있으나 결코 천박하게 살지는 않으니, 여러 어른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열고 머리를 길러 저희 집안의 가장이 되어 주신다면, 비단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내실 수 있으니, 그 거친 승복이나 짚신, 삿갓을 쓰는 고단한 삶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삼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마치 벼락을 맞은 아이 같기도 하고 비를 맞은 두꺼비 같기도 했다. 그저 멍하니 정신을 못 차린 채 눈을 까 뒤집으며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저팔계는 이토록 큰 부귀와 아름다운 여인을 듣고 나니 마음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의자에 앉아 있자니 마치 엉덩이에 바늘이라도

찢린 듯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가만히 있지 못했다. 결국 저팔계는 앞으로 나서서 스승을 잡아끌며 말했다.

"스승님, 저 부인에게서 스승님께 말씀을 전한다는데 어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어서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지요."

그러자 삼장이 갑자기 고개를 획 치켜들더니, 불호령을 내리며 저팔계를 꾸짖었다.

"이 못된 놈아! 우리는 출가한 수행자다. 어찌 부귀영화에 마음이 흔들리고 미색에 눈을 돌린단 말이냐. 그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가련하기도 해라, 정말 가련하군요. 출가하여 수행하는 삶이 대체 무슨 낙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삼장이 물었다. "보살님, 세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에는 어떤 낙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스님, 우선 앉으세요. 제가 세속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지요. 어떠십니까? 여기 시 한 구절로 증명해 보지요. 시로 이르되,

"봄에는 고운 비단옷 새로 지어 입고, 여름에는 가벼운 사(紗) 옷 갈아입으며 푸른 연꽃 구경하네. 가을에는 햅쌀로 빚은 향긋한 술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취기 어린 얼굴로 즐기네. 사계절 내내 누릴 것이 넘쳐나고, 절기마다 진귀한 음식이 가득하니, 비단옷 입고

화려한 촛불 아래 즐기는 삶이, 고생스럽게 발품 팔며 미타불을 외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삼장이 말했다. "보살님, 세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며,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있고 자식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출가한 사람들에게도 그 나름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지 시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로 이르되,

출가하여 뜻을 세움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지난날의 정든 집과 사랑을 뒤로하고 떠나왔네. 세속의 물건에 휘둘려 구설에 오를 일 없고 몸과 마음은 스스로 조화로운 경지에 이르리라. 공덕을 다하고 수행이 차면 천상의 궁궐에 들 것이요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밝혀 고향으로 돌아가리니, 세속의 음식을 탐하며 늙어 가다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 훨씬 낫도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무례한 중놈 같으니! 당신이 동토에서 멀리서 왔다는 사정만 아니었어도 벌써 쫓아냈을 것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네를 우리 집안의 사위로 삼아 인연을 맺으려 한 것인데, 도리어 그런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다니! 설령 당신이 계를 받고 서원을 세워 영원히 속세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들, 당신 수하의 사람 중 하나라도 우리 집 사위로 삼으면 될 것 아니요? 어찌 이리도 법도만 따지며 고집을 부리는 거요?"

삼장이 여인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공손하게 몸을 낮추며 말했다. "손오공, 네가 여기서 머물거라."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이 아이가 어려서 그런 일을 할 줄 모르니, 저팔계를 여기 머물게 합시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다 같이 잘 생각해보지요.”

삼장이 다시 말했다. “너희 둘 다 안 된다면, 사오정을 여기 머물게 하겠다.”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자는 보살님의 권유로 계를 받고 수행하며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거두어 가르침을 주신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고, 아직 공덕을 조금도 쌓지 못했는데 어찌 감히 이런 부귀를 탐내겠습니까?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천으로 갈 것이며, 결코 마음을 속이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인은 일행이 정중히 거절하며 물러나자, 급히 몸을 돌려 병풍 뒤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스승과 제자들은 문밖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차나 밥은커녕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속이 타들어 가던 저팔계가 당승을 원망하며 투덜거렸다.

"스승님은 참 일 처리도 못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적당히 말하면서 넘겼어야죠. 대충 대답해서 공양이라도 얻어먹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어 가자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허락하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문을 닫고 안 나오면, 우리 같은 처지에 차디찬 아궁이 앞에서 이 밤을 어떻게 버팁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그냥 저 집 사위가 되시지요."

저팔계가 대꾸했다. "이보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지 말게나.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손오공이 말을 가로챘다. "신중하게 생각하긴 뭘 신중하게 해? 네가 좋다면 스승님을 저 여인과 사돈 맺게 해드리고, 너는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되잖아. 저 집은 재물과 보물이 저리도 많으니, 분명 혼수도 넉넉히 챙겨주고 성대한 잔치까지 열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도 덕 좀 볼 수 있고, 너는 여기서 속세로 돌아가니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말이야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수행을 하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가서, 아내를 버렸다가 다시 얻는 꼴이 되잖나."

사오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둘째 형님, 원래 아내분이 계셨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저놈은 원래 오사장(烏斯藏) 고로장(高老莊) 고태공의 사위였는데, 내가 항복을 받아낸 거란다. 저놈도 한때는 보살의 계율을 받은 승려였지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붙잡혀 스님이 된 거지. 그래서 전처를 버리고 스승님을 따라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온 거야. 아마 헤어진 지 오래되니 예전 생각이 난 모양인데, 이런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마음이 동한 모양이구나.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냥 저 집 사위가 돼버려라. 대신 나한테 절만 몇 번 더 하면 내가 입을 뽕긋하지 않으마."

저팔계가 소리쳤다. "헛소리, 헛소리! 다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왜 나만 망신을 주냐! 옛말에 '스님은 색에 굶주린 귀신'이라 하지 않았나. 누가 안 그럴겠어? 다들 이렇게 쭈뼛거리며 눈치만 보니까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덕분에 차 마실 사람도 없고 등불 켤 사람도 없지 않나. 비록 하룻밤을 버텼다지만, 저 말은 내일 또 사람을 태우고 길을 가야 하는데, 만약 밤새 굶기기라도 하면 아주 가족이 벗겨질 판이라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가서 말 좀 돌보고 오마."

그 어수룩한 녀석이 급히 고삐를 풀어 말을 끌고 나가버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오정, 너는 스승님 곁을 지키며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따라가서 저팔계가 말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지켜볼게."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가서 지켜보는 건 괜찮다만, 가서 괜히 놀리거나 비웃지는 말거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손오공이 대청마루 밖으로 나가 몸을 흔들며 붉은 잠자리로 변신하더니, 앞문으로 날아 나가 저팔계를 뒤쫓아갔다.

그 어수룩한 녀석은 말을 끌고 가면서도 풀이 있는 곳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며, 다닥다닥 소리를 내며 말을 몰아 뒷문 쪽으로 향했다. 가보니 한 부인이 세 딸을 데리고 뒷문 밖에서 한가로이 서서 국화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부인의 딸들은 저팔계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얼른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인이 문가에 서서 물었다.

"어디 가느냐?"

저팔계는 고삐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말 돌보러 왔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네 스승은 참으로 깐깐하구나. 우리 집에 사위를 들여놓고는, 차라리 수행하는 승려로 살게 두는 게 낫지, 왜 자꾸 서쪽 길로 떠돌게 하느냐?"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들은 당나라 왕의 명을 받든 것이라 감히 임금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앞뜰에서 저를 나무라시기에, 제가 아랫사람에게 대들 듯이 대답했다가 혹여 어머님께 서 제 입이 길고 귀가 커서 못쓰겠다고 싫어하실까 걱정됩니다."

부인이 말했다.

"나야 싫지 않다만, 집에 가장이 없으니 한 명 들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구나. 다만 막내딸이 외모를 좀 따질까 걱정이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어머님, 따님께 너무 따지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제 스승인 당승을 보십시오. 인물은 준수할지 몰라도 사실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비록 못생겼어도 말주변 하나는 끝내줍니다."

부인이 물었다.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비록 얼굴은 못생겼어도 부지런히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 천 평의 넓은 땅이라도 소를 부릴 필요 없습니다. 쇠갈퀴질 한 번이면 씨를 뿌려 제때 싹을 틔우고, 비가 안 오면 비를 부르고 바람이 없으면 바람을 부릅니다. 집이 낮다 싶으면 2, 3층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하수도를 뚫는 일까지, 집안의 온갖 잡다한 일은 제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집안일을 그토록 잘할 수 있다면, 가서 네 스승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거라.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를 받아주마."

저팔계가 말했다.

"상의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분이 제 친부모도 아닌데, 일을 하든 안 하든 제 마음이지요."

부인이 말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막내딸에게 말해 보마."

부인은 저팔계를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뒷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다.

저팔계는 말도 돌보지 않고 그저 말만 앞으로 끌고 왔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손오공은 날개를 펼쳐 날아오더니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먼저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오능이 말을 끌고 왔습니다."

당승이 대답했다.

"말을 제대로 붙잡아 두지 않으면, 아마 멋대로 달아나 버릴지도 모르겠구나."

손오공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까 그 부인과 저팔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지 말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잠시 후, 저팔계가 멍청한 표정으로 말을 끌고 와 묶었다. 삼장이 물었다. "말을 다 풀어 놓았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풀어 놓을 만한 좋은 풀이 없어서요, 말 놓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손오공이 거들었다. "말 놓을 곳이 없으면, 말 묶어 둘 곳이라도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저팔계는 자신의 속내가 들통난 것을 알고는, 고개를 떨구고 목을 뒤틀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등룡 두 쌍과 손에 드는 향로 한 벌이 나타났다. 향기로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옥장신구가 쟁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모 부인이 세 딸을 데리고 걸어 나와, 진진, 애애, 련련이라 이름하는 딸들이 서천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귀한 분들을 뵈기 위해 예를 갖추었다. 여인들이 대청에 나란히 서서 윗사람을 향해 절을 올리는데, 과연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시로 이르되,

눈썹은 푸른 산처럼 매끄럽고 얼굴은 봄기운을 머금었네. 나라를 기
울게 할 만큼 요염하고 마음을 흔들 만큼 아리답구나. 머리에 장식한
꽃 모양 장식은 아양을 떠는 듯하고, 휘날리는 수놓은 띠는 속세의 여
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네. 살며시 미소 지을 때면 앵두 같은 입술이 피
어나고, 천천히 걸을 때면 난초와 사향 같은 향기가 풍겨 나오네. 머리
에는 구슬과 비취가 가득하여 수많은 비녀가 흔들거리고, 온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며 꽃무늬 금실 옷은 물방울처럼 빛나네. 초나라 미녀
나 서시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라. 진실로 구천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
온 듯하고, 달 속의 항아가 광한궁에서 나온 듯하구나.

삼장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손오공은 시치미를 떼며 아는 체
도 하지 않았고, 사오정은 몸을 돌려 등을 돌렸다. 한편 저팔계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음란한 마음이 요동치고 색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몸을
배배 꼬며 나직이 속삭였다.

"선녀님,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언니들도 어서 가보세
요."

세 여인은 병풍 뒤로 들어가 버리고는 비단 등불 한 쌍만을 남겨두
었다. 그러자 부인이 물었다.

"네 분 어른께서는 우리 딸과 짝을 맺어줄 마음이 있으신지요?"

사오정이 대답했다.

"이미 상의를 마쳤습니다. 저 돼지 성을 가진 제자를 데려와 데릴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팔계가 다급히 말했다.

"형님,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세요!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지요."

손오공이 말을 받았다.

"상의는 무슨 상의를 해? 너는 벌써 뒷문에서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다 끝내놓은 것 같더만. 어머니도 부르셨는데 무슨 상의가 더 필요해? 스승님은 사돈 어른이 되시고, 이 부인께서는 사돈댁이 되시는 거지. 나는 혼인 보증을 서고, 사오정은 중매인이 되면 되겠네. 굳이 책력을 펴서 길일을 따질 것도 없어. 마침 오늘이 하늘이 내린 길일이니, 어서 스승님께 인사드리고 들어가서 사위가 되거나 해라."

저팔계가 칭얼거렸다.

"안 돼요, 안 돼.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손오공이 핀잔을 주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헛소리 말고! 입으로는 벌써 어머니라고 몇 번이나 불렀으면서 안 된다니 말이 되냐? 얼른 승낙하고 우리 데리고 가서 잔치 음식이나 좀 먹자, 그게 남는 거야."

손오공은 한 손으로는 저팔계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인을 붙잡으며 말했다.

"사돈 어른, 어서 사위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팔계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부인이 즉시 동자들을 불렀다.

"어서 탁자와 의자를 닦고 저녁 공양을 준비하여 세 분 사돈을 대접해라. 나는 이분들을 서방님 방으로 안내하마."

그러고는 또 요리사에게 일러 연회를 준비하게 하고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라고 분부했다. 동자들은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 세 제자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는 모두 객실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한편, 저팔계는 장모가 될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과 방 사이가 얼마나 많은지, 길은 구불구불했고 문턱이 여기저기 있어 몸이 자꾸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저팔계가 얼빠진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천천히 좀 가세요. 제가 여기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발이 걸리잖아요. 저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여인이 대답했다.

"여기는 다 곡물을 쌓아두는 창고나 보물 창고, 곡식을 찢는 방일 뿐이야. 아직 주방 근처에도 못 왔단다."

저팔계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집이군요!"

그렇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굽이진 길을 한참 더 걸어간 뒤에야 안채 방에 도착했다. 여인이 말했다.

"사위, 자네 사형이 오늘이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길일이라며 자네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하더군. 다만 경황이 없어 음양사도 부르지 못했고, 혼례 절차에 맞춰 돈을 뿌리는 의식도 치르지 못했네. 그러니 우선 여기서 먼저 여덟 번만 절을 올리게나."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앉아 계세요. 저도 절 몇 번 올리고 나면, 그걸 혼례 치르는 셈 치고 또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셈 치면 되니,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격이라 훨씬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장모가 될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 정말이지 일 처리가 아주 간편한 사위로구나. 그럼 내가 앉아 있을 테니, 자네가 절을 올리게나."

"어라!"

방 안 가득 은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어리숙한 저팔계가 상석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저팔계가 말했다.

"장모님, 저에게 저 언니를 아내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장모가 대답했다.

"그게 참 난감하구나. 큰딸을 네 아내로 주면 둘째 딸이 서운해할 것이고, 둘째 딸을 주면 셋째 딸이 원망할 게다. 그렇다고 셋째 딸을 주자니 큰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결정을 못 하겠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장모님, 어차피 서로 다투는 게 걱정되신다면 그냥 저에게 다 주세요. 그래야 싸움도 안 나고 집안 법도도 어지러워지지 않지요."

장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네가 혼자서 내 딸 셋을 다 차지하겠다는 게냐?"

저팔계가 능글맞게 대꾸했다.

"장모님, 말씀 좀 보세요. 세상에 세 명의 처와 네 명의 첩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 더 늘어난들 사위인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싸움 기술을 좀 배웠으니, 하나하나 기분 좋게 모셔다드릴 자신도 있다고요."

여인이 말했다.

"안 되겠다, 안 돼.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으니, 이걸 머리에 얹어 얼굴을 가리렴. 그리고 '충천혼(撞天婚, 눈을 가리고 신부를 찾는 혼례)'을 하자꾸나. 내 딸들이 네 앞을 지나갈 때, 네가 손을 뻗어 잡는 아이를 네 아내로 삼아주마."

어리석은 저팔계는 그 말대로 손수건을 받아 머리에 얹었다. 이에 시로 이르되,

"어리석어 근본 원인도 알지 못하니, 색욕의 칼날에 몸 상할까 두렵구나. 예부터 주공의 예법이 있다 하더니, 오늘 신랑이 머리에 덮개를 썼네."

그 어리석은 놈은 머리에 수건을 잘 두르고는 말했다. "어머니, 언니들을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장모가 대답했다. "진진아, 애애야, 런던야! 모두 나와서 충천혼을 치러라. 이 아이의 아내가 되어주어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패 부딪치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난초와 사향 같은 향기가 풍겨오니, 마치 선녀들이 오가는 듯했다. 저 어리석은 놈은 정말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양옆으로 허우적대며 마구 달려들었으나, 왼쪽을 짚어도 잡히지 않고 오른쪽을 짚어도 잡히지 않았다. 여인들이 이리저리 오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누구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동쪽으로 달려가 기둥을 껴안았다가, 서쪽으로 달려가 벽을 더듬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혼미해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 앞에서는 문짝을 걸어차고 뒤에서는 벽돌담에 막혔으니,

여기저기 부딪치고 깨지며 결국 입술이 붓고 머리가 멍든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 따님들이 어찌 이리도 미끄러운지 하나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 부인이 그의 머리에 씌워진 덮개를 걷어 올리며 말했다. "사위, 우리 딸들이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느라 자네를 데려가려 하지 않는 것이라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어머니, 딸들이 저를 안 데려가려 한다면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부인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사위 같으니라고! 어쩔 이리 위아래도 없이 장모까지 탐을 낸단 말인가? 내 세 딸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각자 진주를 박아 넣은 비단 저고리를 한 벌씩 만들었네. 자네가 그중 하나라도 입을 수 있다면, 그 딸이 자네를 데려가게 해주겠네." 저팔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세 벌 다 가져와서 입어보게 해주세요. 만약 세 벌 다 맞으면 세 딸 모두 저를 데려가게 해 주시지요!"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딱 한 벌만 꺼내어 저팔계에게 건네주었다. 저팔계는 입고 있던 푸른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는, 그 옷을 받아 몸에 걸쳤다. 그런데 아직 허리띠도 매지 못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옷에 여러 가닥의 줄이 팽팽하게 묶여 있었던 것이다. 저팔계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는 사이, 그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당승과 손오공, 사오정이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아까 보았던 그

화려한 대궐과 높은 집들은 간데없고, 모두가 소나무와 잣나무 숲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당승이 급히 손오공을 불렀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귀신을 만난 모양입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상황을 짐작하고는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당승이 말했다. "우리가 왜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소나무 숲 아래에서 자는 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다만 그 어리석은 녀석이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당승이 물었다. "누가 고생을 한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만난 그 집안 여인들이 어디 보살님들인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런 모습을 나타낸 모양입니다. 아마 한밤중에 사라진 듯한데, 저팔계만 고생을 좀 하겠지요."

당승은 그 말을 듣고 합장하며 예를 갖추어 절을 했다. 그때 뒤편 고목에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나풀거리며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사오정이 급히 달려가 그것을 가져와 스승님께 보여드리니, 거기에는 여덟 구절의 계송이 적혀 있었다.

시로 이르되,

"여산노모는 속세의 일을 생각지 않는데, 남해 보살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네. 보현과 문수 보살도 모두 손님이라, 숲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셨도다. 성스러운 승려에게는 덕은 있으나 속세의 욕심은 없는데, 팔계에게는 선심은 없고 속세의 욕심만 가득하구나. 이제부터 마음을 다스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다 가는 길은 험난하리라."

장로와 손오공, 그리고 사오정이 정성껏 계송을 외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왔다.

"스님! 나 죽네! 좀 살려주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소!"

삼장이 물었다. "손오공, 저렇게 부르짖는 것이 혹시 저팔계가 아니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스님."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 저놈 말은 무시하고 어서 가버립시다."

하지만 삼장이 말했다. "저 미련한 녀석이 비록 마음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워도, 성격이 워낙 무뎌하고 힘이 좋아 짐을 잘 들어주지 않느냐. 그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덕분에 무사히 구해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자꾸나. 아마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겠지."

사오정은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말아 짐을 챙겼고, 손오공은 말의 고삐를 풀어 말을 이끌며 삼장을 따라 숲속으로 저팔계를 찾아 들어갔다.

시로 이르되,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삼가고 또 삼가야 하니, 사랑과 욕심을 걷어
내야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네.”

결국 그 어리석은 놈이 어떤 흥운을 맞았을지, 혹은 무사할지는 어
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4회 — 만수산 대선이 옛 친구를 머물게 하고, 오장관 수행자가 인삼을 훔치다

萬壽山大仙留故友 五莊觀行者竊人參

한편, 세 사람이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저팔계가 나무에 매달린 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연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손오공이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멋진 사위님 아니신가! 이 시각이 되도록 일어나 처가에 인사도 안 드리고, 스승님께 기쁜 소식도 전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줄에 매달려 재주 부리며 놀고 있단 말이나? 쫓! 네 장모는 어디 계시고, 네 마누라는 어디 있느냐? 아주 묶이고 매달려 매질당하는 멋진 사위가 따로 없구나!"

저팔계는 손오공이 면박을 주자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느라 감히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사오정은 차마 볼 수 없어 짐을 내려놓고 다가가 밧줄을 풀어 저팔

계를 구해 주었다. 저팔계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릴 뿐, 실로 부끄러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를 「서강월(西江月)」 사(詞)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색(色)은 몸을 상하게 하는 칼날이니, 탐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리라. 열여섯 꽃다운 미인의 고운 단장도, 알고 보면 야차보다 더 흉악하고 사납구나. 오직 본전 하나뿐이니, 다시는 작은 이익도 주머니에 보태지지 않으리라. 가진 밑천을 잘 간수하여, 굳게 지키고 방탕에 빠지지 말지어다."

저팔계는 흠을 한 줌 집어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저기 계신 보살님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방금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데다 눈앞이 어질어질해서 도통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그 계송이 적힌 쪽지를 저팔계에게 건네주었다. 저팔계는 그것이 계송임을 확인하고는 더욱 부끄러워했다.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은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네 분의 보살님께서 감응하시어 형님과 혼인을 맺으러 오셨다니 말이에요." 저팔계가 말했다. "형제여, 제발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게나. 정말 사람 노릇 못 할 면목 없는 짓이었네. 이제부터는 다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네. 설령 뼈가 부러지도록 고생하더라도, 어깨로 짐을 메고서 스승님을 따라 서역까지 가겠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손오공은 스승을 모시고 큰길로 나섰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높은 산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삼장법사는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며 말했다.

"제자야, 저 앞의 산을 지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요괴가 나타나 우리를 해칠까 두렵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 셋뿐인데 요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제야 삼장법사는 안심하고 길을 재촉했다. 눈앞에 나타난 산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높은 산은 끝없이 솟아 있어 그 기세가 웅장하고 험준했다. 산줄기는 곤륜산의 맥과 이어져 있고, 산봉우리는 하늘 높이 맞닿아 있었다. 흰 학들은 수시로 내려와 측백나무와 잣나무에 깃들고, 영리한 원숭이들은 덩굴 사이를 종종거린다. 맑은 햇살이 비치는 숲에는 천 갈래의 붉은 안개가 겹겹이 감돌고, 서늘한 골짜기에는 만 갈래의 채운이 둥둥 떠다닌다. 푸른 대나무 숲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들꽃 사이에서는 금빛 닭들이 서로 자리를 다투며 노닌다.

천년봉, 오복봉, 부용봉 같은 봉우리들은 위엄 있게 빛을 내뿜고, 만세석, 호아석, 삼천석 같은 기암괴석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절벽 앞의 풀은 싱그럽고 고개 위의 매화 향기는 그윽했다. 가시덤불은 뻣뻣하게 우거졌으나 지란의 향기는 은은하게 퍼졌다. 깊은 숲에는 매와 봉황이 수많은 새와 어우러져 살고, 오래된 동굴에는 기린 이 만물의 짐승을 다스리는 듯했다. 산골짜기 물줄기는 정이 넘쳐 구불구불 휘돌아 흐르고, 산봉우리들은 끊임없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또한 푸른 회나무와 얼룩진 대나무, 푸른 소나무들이 천 년의 세월 동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며, 하얀 오얏꽃과 붉은 복숭아꽃, 푸른 버들가지가 삼춘(三春)의 화사한 빛깔을 겨루고 있었다. 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학은 춤을 추고 원숭이는 울부짖는다. 사슴과 노루는 꽃밭 사이로 뛰어나오고, 신비로운 새 청란은 해를 마주하며 노래한다. 이곳은 참으로 신선이 사는 복된 땅이자, 봉래산과 같은 낙원이 분명했다. 산봉우리에는 꽃이 피고 지는 풍경이 펼쳐져 있고, 고개 너머로는 구름이 가고 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삼장이 말 위에 앉아 기쁜 기색으로 말했다. "제자야, 내가 서천으로 향하며 수많은 산과 강을 지나왔지만, 대개 험하고 가파른 곳뿐이었다. 이곳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처음 보는구나. 정말이지 그윽한 정취가 남다르구나. 만약 이곳이 뇌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세존을 뵈러 가면 참 좋겠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도착하려면 아직 까마득합니다." 사오정이 물었다. "사형, 우리가 뇌음사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십만 팔천 리는 더 가야 해. 전체 여정의 열 부분 중 아직 한 부분도 채 못 왔단 말이지."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그럼 몇 년이나 더 걸려야 도착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길을 말이지, 너희 두 아우라면 열흘 정도면 도착할 거야. 나라면 하루에 십 번을 왕복해도 아직 해가 남아 있을 정도지. 하지만 스승님이 가신다면,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말라고." 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그러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가고, 다시 늙은 몸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수천 번 반복해도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님이 스

스로의 본성을 깨닫고 지극한 정성으로 생각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곳이, 바로 영산입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사형, 이곳이 비록 뇌음사는 아니지만, 이런 풍경을 보니 분명 훌륭한 분이 머무는 곳일 것입니다."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이 맞다. 이곳은 분명 요사한 것이 있을 곳이 아니야. 틀림없이 성스러운 승려나 신선이 사는 곳일 테니, 우리는 천천히 경치를 즐기며 가자꾸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한편, 이 산의 이름은 만수산이라 한다. 산속에는 오장관이라는 도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도호(道號)가 진원자(鎭元子)이며 별명(混名)이 '여세동군(與世同君, 세상과 나이를 같이한다는 뜻)'인 신선이 살고 있었다. 이 도관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돈이 처음 갈라지고 홍몽이 처음 나뉘던, 천지가 열리기도 전에 생겨난 영험한 뿌리였다. 천하의 사대부주를 통틀어 서우하주의 오장관에 서만 이 보물이 나는데, 그 이름은 초환단이라 하기도 하고 인삼과라고도 불렀다.

이 나무는 삼천 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다시 삼천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으며, 또 삼천 년을 더 기다려야 비로소 익는다. 짧게 잡아도 만 년은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 년을 기다려야 겨우 서른 개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모양은 마치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어린 아이와 같아서, 팔다리가 모두 달려 있고 이목구비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만약 인연이 닿는 사람이 이 열매를 얻어 냄새만 맡아도 삼백육십 년을 살 수 있고,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사만 칠천 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날 진원대선은 원시천존으로부터 서신을 받고, 상청천 미라궁으로 가서 '혼원도과'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진원대선의 문하에서 나온 산선(散仙)들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지금 거느린 마흔여덟 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를 깨우친 전진(全眞)이었다. 진원대선은 그중 마흔여섯 명의 제자를 이끌고 상계로 강의를 들으러 떠나면서, 집을 지키라고 아주 어린 제자 두 명을 남겨두었다. 한 명의 이름은 청풍이고, 다른 한 명은 명월이었다. 청풍은 겨우 천삼백이십 세였고, 명월은 이제 막 천이백 세가 되었다.

진원대선이 두 동자에게 당부했다. "대천존의 서신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미라궁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한다. 너희 둘은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머지않아 옛 지인이 이곳을 지나갈 터이니, 결코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 내 인삼과를 두 개 따서 그에게 먹게 함으로써 옛 정을 표하도록 해라." 두 동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 옛 지인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대선이 대답했다. "그분은 동토(東土) 대당(大唐) 황제 폐하의 어전에 속한 성스러운 승려로, 도호는 삼장이라 한다. 지금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스님이지." 두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태을현문의 신선인데, 어찌 그 스님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원대선이 말했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스님은 금선자가 환생한 몸으로, 서방 성노(聖老) 여래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란다. 오백 년 전, 내가 우란분회(蘭盆會)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직접 차를 따라 주었지. 부처님의 제자가 나를 공경해 주었으니, 그러니 당연히 옛 지인이 아니겠느냐."

두 동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의 명을 받들었다. 진원대선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내 과일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딱 두 개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절대로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청풍이 대답했다. “정원을 처음 열었을 때 사람들이 다 함께 두 개를 먹었으니, 아직 나무에는 스물여덟 개가 남아 있습니다. 감히 더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진원대선이 말했다. “당승이 비록 옛 인연이 있다지만, 그 수하들을 경계해야 하니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거라.” 두 동자가 명을 받들자, 진원대선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올라 천계로 향했다.

한편, 당승과 세 제자가 산속을 구경하며 거닐고 있을 때였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곳에 다층 누각이 서 있었다. 당승이 물었다. “손오공아, 저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야?” 손오공이 살펴보니 대답했다. “저곳은 도관이거나 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서 가까이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문 앞에 이르러 그 풍경을 살펴보았다.

소나무 언덕은 한적하고 대나무 길은 그윽하며, 흰 학은 구름 사이를 오가고 원숭이들은 열매를 따서 바치네. 문 앞 연못은 넓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는데, 돌 틈 사이로는 이끼꽃이 피어났구나. 궁전은 삼라만상처럼 울창하고 자색 빛이 높이 솟았으며, 누각은 아스라이 안개 속에 잠겨 붉은 노을과 어우러지네. 참으로 복되고 신령한 땅, 봉래산의 구름 동굴이로다. 맑고 깨끗한 곳이라 사람의 발길은 드물고, 고요한 정적 속에 도의 마음이 절로 생겨나네. 푸른 새는 왕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자줏빛 신선 새는 노군의 경전을 실어 나르네. 높고 높

은 도덕의 기운을 다 헤아릴 길 없으니, 과연 아득하고 신비로운 신선들의 거처로다.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려 걷다 보니, 산문 왼쪽에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만수산 복지, 오장관 동천'이라는 열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들아, 정말로 번듯한 도관이구나."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풍경이 이토록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니 관 안에는 분명 덕 높은 분이 살고 계실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지요. 가는 길에 들르는 것도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이 맞다!"

일행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서자, 두 개의 문 위에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의 집, 하늘과 수명을 함께하는 도사들의 거처'라고 적힌 춘련이 붙어 있었다. 이를 본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도사라는 사람이 허풍이 심하구나. 내가 오백 년 전 천계에서 대소동을 피울 때도 태상노군 댁에서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고. 어찌면 이 도사가 정말 덕이 높은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이층 문 안쪽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두 명의 어린 동자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차림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뼈대는 맑고 신령스러워 얼굴은 고우며, 머리에는 상투를 틀어 짧은 머리가 빠죽빠죽하다. 도복은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옷깃이 감돌고, 깃털 옷은 바람에 소매가 휘날린다. 허리띠는 용 머리 매듭으로 단단히 묶였으며, 신발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천을 가볍게 감았다. 풍채가 예사롭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니, 바로 청풍과 명월, 두 신선 동자였다.

동자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마중을 나왔다. "스승님, 늦게 맞이하여 죄송합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두 동자와 함께 정전으로 올라가 둘러보았다. 정전은 남쪽을 향해 다섯 칸 규모로 지어진 큰 건물이었는데, 위쪽은 밝고 아래쪽은 어두운 조각 창살이 달려 있었다. 선동이 창살을 밀어 열고 삼장법사를 전각 안으로 안내하자, 벽 중앙에는 오색 빛깔로 장식된 '천지(天地)'라는 두 글자가 크게 걸려 있었다. 전각 안에는 붉은 칠을 한 화려한 향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 향로와 병이 놓여 있었으며, 향로 옆에는 곧바로 쓸 수 있도록 마련된 향이 놓여 있었다.

삼장법사가 앞으로 나아가 왼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꽂고 세 번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삼장법사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동자야, 너희 오장관은 참으로 서방 선계와 다를 바가 없구나. 어찌하여 삼청(三清)과 사제(四帝), 그리고 라천(羅天)의 여러 신령님께는 공양을 올리지 않고, 오직 '천지(天地)'라는 두 글자에만 향을 피워 모시고 있는냐?" 동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글자 중 윗글자(天)는 예우를 갖추 모셔야 마땅하나, 아랫글자(地)는 저희의 향불조차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아부하여 그

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지요." 삼장법사가 물었다. "아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동자가 말했다. "삼청은 저희 스승님의 친구이시고, 사제는 스승님의 오랜 벗이십니다. 구요(九曜)는 스승님의 후배요, 원진(元辰)은 스승님의 말석에 앉는 보잘것없는 손님이지요."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나 손오공만 허풍 떨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도동 녀석이 바람을 묶어대듯 허풍을 떠는구나!" 삼장법사가 다시 물었다. "너희 스승님은 어디 계시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원시천존께서 내리신 서신을 받으시고, 상청천 미라궁에 가서 '혼원도과'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가셨습니다. 지금은 집에 안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건방진 도동 녀석!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면서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하며 속 빈 허세를 부리느냐? 그 미라궁에 태을천선(太乙天仙)이 대체 누구길래, 너 같은 소 발굽 같은 녀석을 불러다 무슨 강의를 듣게 한단 말이냐?"

삼장법사는 동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혹여나 저 동자가 소란을 피워 큰 화를 불러올까 겁이 났다. 그래서 얼른 말했다.

"손오공, 더는 다투지 말거라.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흔히 '백로가 백로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더냐. 주인도 자리에 없는데 괜히 소란을 피워 무엇하겠느냐? 너는 산문 앞으로 가서 말을 돌보거라. 사오정은 짐을 지키고, 저팔계는 보따리를 풀어 쌀과 양식을 좀 꺼내오너라. 술과 아궁이를 빌려 밥을 좀 지어 먹고, 떠날 때 땀감 값으로 돈 몇 푼 쥐여주면 될 것이

다. 각자 맡은 일을 하거라. 나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밥을 다 먹으면 곧 길을 떠나겠다."

그 말에 세 제자는 과연 각자 맡은 일을 하러 흩어졌다.

명월과 청풍은 속으로 내심 으스대며 말했다. "이봐, 저 스님은 정말 서방 정도의 성인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참된 기운이 아주 맑구나. 스승님께서 당승을 잘 대접하고 인삼과를 대접해 옛 인연을 표하라고 하셨지만, 또 그 수하들이 사고를 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 그런데 과연 저 세 놈을 보게나. 얼굴은 험악하고 성질은 거칠기 짝이 없지 않은가. 다행히 저들을 멀리 떼어놓았으니 망정이지, 만약 곁에 붙어 있었다면 인삼과를 어떻게 내놓았겠느냐?" 청풍이 말했다. "형님, 저 스님이 정말 스승님의 옛 지인인지 아직 모르지 않소? 혹시 모르니 한번 물어봅시다. 잘못 알면 안 되니까요." 두 동자는 다시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여쭙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혹시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당삼장 스님이십니까?" 삼장법사가 예를 갖추어 답했다. "그렇습니다. 선동(仙童)께서는 어찌하여 저의 천한 이름을 아십니까?" 동자가 대답했다. "저희 스승님께서 길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멀리까지 나가서 마중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스님, 우선 앉으십시오. 제자들이 차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명월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향긋한 차 한 잔을 가져와 삼장법사에게 올렸다. 차를 다 올리자 청풍이 말했다. "형님, 스승님의 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과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동자는 삼장법사와 헤어져 방으로 돌아가더니, 한 명은 금격자를 챙기고 다른 한 명은 단반을 챙겼다. 그리고 단반 바닥에 초록색 비단을 깔고는 곧장 인삼과 정원으로 향했다. 청풍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금격자로 열매를 두드렸고, 명월은 나무 아래에서 단반을 들고 기다리며 열매를 받았다. 잠시 후, 열매 두 개가 두드려져 내려와 단반에 담기자, 두 동자는 곧장 앞뜰로 가서 삼장법사에게 바치며 말했다.

"당 스님, 저희 오장관은 땅이 척박하고 산세가 외져서 대접해 드릴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저 이 과일 두 알을 드리고자 하니, 잠시 갈증이나 축이십시오."

삼장법사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세 자큼이나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올해는 풍년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 관에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굶기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것은 태어난 지 채 사흘도 안 된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데, 어찌 이것을 과일이라 하며 제 갈증을 축이라 하십니까?"

청풍은 속으로 '이 스님은 말재주만 부리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찌들어 눈과 마음이 흐려졌구나. 우리 선가(仙家)의 신비로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다니'라며 비웃었다.

명월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스님, 이것은 인삼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쯤 드셔도 괜찮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허튼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저 아이의 부모가 태중에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누가 알겠소? 이제 막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어찌 과일처럼 내놓는단 말ियो?"

청풍이 말했다.

"이것은 정말로 나무에서 열린 것입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말했다.

"엉터리 같은 소리! 나무에서 어찌 사람이 열린단 말ियो? 어서 가져가시오. 사람을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 무도한 짓을 할 수는 없소."

두 동자는 삼장법사가 온갖 핑계를 대며 완강히 거절하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쟁반을 든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인삼과는 성질이 참으로 묘해서, 오래 두면 안 되고 금방 먹어야 했다. 만약 너무 오래 방치하면 금세 말라 비틀어져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두 동자는 침상 가에 앉아 인삼과를 하나씩 나누어 들고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도사들의 방과 주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딱 붙어 있어서, 이쪽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쪽까지 고스란히 들릴 정도였다.

저팔계는 주방에서 밥을 짓다가, 아까부터 금격자를 가져오니 단반을 가져오니 하는 소리를 듣고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게다가 삼장

법사가 인삼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 먹어버릴 거라는 말까지 듣자, 입안에는 벌써 침이 가득 고였다. 저팔계는 속으로 "어떻게 저놈 혼자만 맛있는 걸 먹으려나!" 하며 입맛을 다시면서도, 제 몸이 워낙 엉망이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저 손오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머리를 굴렸다. 그는 솔 앞에서 불을 지필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자꾸만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오공이 말을 끌고 나타나 회나무에 매어두고 뒤로 걸어오자, 저팔계는 바보 같은 얼굴로 손을 마구 흔들며 외쳤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손오공이 몸을 돌려 주방 문 앞에 이르자 말했다. "이 멍청아, 왜 이렇게 떠들어대? 밥이 모자라기라도 하나? 일단 스님부터 배불리 드시게 하고, 우리 앞의 귀한 집에서는 다음에 가서 구걸하자고."

저팔계가 말했다. "들어와 봐, 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관에 아주 귀한 보물이 하나 있는데, 너 알고 있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무슨 보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말해줘도 못 볼 것이고, 보여줘도 못 알아볼걸!"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구나. 나 손오공이 오백년 전 신선을 찾아다닐 때 세상 끝까지 구름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걸 못 봤을 것 같으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그럼 인삼과는 본 적 있어?"

손오공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건 정말 본 적 없다. 다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삼과는 먹으면 수명이 아주 길어진다는 초환단(草還丹)이라고만 들었지.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단 말이냐?"

저팔계가 말했다. "여기 있다니까! 저 동자들이 인삼과 두 개를 스님께 가져다드렸는데, 스님이 인삼과를 보고는 아직 태어난 지 사흘도 안된 아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먹지 못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저 동자들이 아주 게으른 놈들이라, 스님이 안 드신다니까 우리에게 나눠 주기는커녕 우리 몰래 옆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하나씩 입에 넣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나니 입에 침이 고여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저놈들만 맛있는 걸 먹나 싶어서 말이지. 내 생각엔 네가 좀 슬쩍 가서 저 정원에 있는 걸 몇 개 훔쳐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손오공이 말했다.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내가 가서 금방 가져오마!"

손오공이 서둘러 가려 하자, 저팔계가 얼른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아까 저 방에서 금격자 같은 걸 가져다가 두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아주 조심해서 일을 처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았다, 알았어!"

손오공이 은신술을 써서 도관의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살펴보니 두 동자는 이미 열매를 먹고 대전으로 올라가 삼장법사와 이야기를 나

누느라 방 안에는 없었다. 손오공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금격자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 그러다 창살에 손가락 굽기 정도에 길이가 두 자쯤 되는 붉은 금빛 물체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래쪽은 마늘 머리 처럼 뭉툭하고 위쪽에는 구멍이 있어 초록색 비단 끈이 매달려 있었다. 손오공은 "분명 이게 그 금격자겠군."이라고 중얼거리며 그것을 떼어 들고 방을 나왔다. 그는 곧장 뒤편으로 가서 문 두 짝을 밀고 열고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 그곳에는 눈부신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붉은 난간과 보석 같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굽이굽이 이어진 돌계단은 마치 산봉우리 같았다. 기이한 꽃들은 찬란한 햇살과 다투듯 피어났고, 푸른 대나무는 청명한 하늘과 색을 겨루고 있었다. 술잔을 띄우는 정자 밖으로는 버드나무 가지가 연기처럼 늘어져 흐르고, 달을 감상하는 대 위에는 짙푸른 먹물을 뿌려놓은 듯한 소나무 무리가 서 있었다. 붉은 석류는 비단 둥지처럼 탐스럽게 피었고, 초록빛 풀들은 수를 놓은 듯 보드랍게 깔려 있었다. 푸른 난초는 모래 위에서 싱그럽게 자라났고, 시냇가에는 물결이 넘실거렸다. 붉은 계수나무는 금빛 우물과 오동나무에 비치고, 화려한 회화나무는 붉은 난간과 옥계단 옆에 늘어서 있었다. 붉거나 하얀 천 겹의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 향기롭거나 노란 가을 국화가 가을빛을 뿜냈다. 치자나무 시령은 모란 정자를 비추고, 무궁화 대는 작약 밭과 이어져 있었다. 서리를 업신여기는 군자 같은 대나무와 눈을 깔보는 대부 같은 소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학이 노니는 집과 사슴이 머무는 곳 곁에는 네모난 못과 둥근 연못이 자리 잡았는데, 샘물은 부서지는 옥처럼 흐르고 땅에는 꽃받침이 금빛처럼 쌓여 있었다. 찬 바람이 불면 매화가 하얗게 피어나고, 봄이 오면

해당화가 붉게 물든다.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경이자, 서방에서 가장 빼어난 꽃의 정원이라 할 만했다.

그 수행자가 다 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다시 문 하나를 보았는데,

문을 밀고 들어가니 뜻밖에도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

사계절 채소를 심었으니 미나리, 쑥갓, 생강, 덩굴식물이라.

죽순, 고구마, 오이, 호박, 그리고 수생 채소와 파, 마늘, 고수, 부추라.

연꽃, 쑥, 쓴쑥, 그리고 호박과 가지도 심어야 하리.

순무와 무는 땅에 묻고, 붉은 비름과 푸른 배추, 보랏빛 겨자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저분도 자기가 직접 심어서 직접 먹는 도사일 뿐이구려."

채소밭을 지나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 정중앙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정말이지 푸른 가지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무성한 잎사귀가 울창하여 그늘이 깊었는데, 잎의 모양은 마치 파초 같았으며 높이는 천 자가 넘을 듯 솟아 있었고 뿌리 밑동은 일곱여덟 장이나 될 정도로 둥글고 넓었다.

손오공이 나무에 기대어 위를 올려다보니, 남쪽을 향한 가지에 인삼과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똑같이 생겼다. 자세히 보니 꼬리 부분에는 줄기가 달려 있었는데, 가지 끝에 매달린 채 손발을 휘젓고 머리를 까닥거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 때면 소리까지 내는 것 같았다.

손오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나! 과연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참으로 보기 드문 보물이야!"

손오공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썸 하고 소리를 내며 단숨에 위로 뛰어 올라갔다. 본래 원숭이란 나무를 타고 열매를 훔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법이다. 손오공이 금격자로 인삼과를 툭 치자, 인삼과가 툭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손오공도 얼른 뛰어내려 그것을 찾으려 했으나, 인삼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사방의 풀숲을 살살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상하네, 이상해. 발이 달린 것이라면 걸어 나갔을 텐데, 걸어 나갔다 해도 담장을 넘지는 못했을 거야. 아하, 알겠다! 이 화원의 토지신이 내가 열매를 훔치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훔치자마자 얼른 거둬 가 버린 게로구나."

손오공은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옴(唵)' 자 주문을 한 번 읊었다. 그러자 화원을 지키는 토지신이 나타나 손오공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께서 소신을 부르시니, 무슨 분부라도 있으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내가 천하에 이름난 도둑 두목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예전에 반도(蟠桃)를 훔치고, 어주(御酒)를 훔치고, 영단(靈丹)을 훔쳤을 때도 감히 내 몫을 나눠 가지려 드는 자가 없었는데, 어찌 오늘 그의 열매 하나 훔쳤다고 네가 내 몫을 가로채 간단 말이나? 이 열매는 나무에서 열린 것이니, 하늘을 지나는 새들도 한 몫 차지할 만한데, 나 손오공이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 해가 되겠느냐? 그런

데 어째서 내가 막 두드려 떨어뜨리자마자 네가 쥔싸게 낚아채 간 것이냐?"

토지신이 대답했다. "대성께서 소신을 오해하셨습니다. 이 보물은 지선(地仙)의 물건이고, 소신은 일개 귀선(鬼仙)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향기를 맡을 복조차 없는 것ですよ."

손오공이 물었다. "네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어떻게 두드려 떨어뜨렸는데 사라질 수 있단 말이나?"

토지가 대답했다. "대성께서는 이 보물이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만 아실 뿐,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인데 그러느냐?"

토지가 설명했다. "이 보물은 삼천 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다시 삼천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으며, 또 삼천 년이 더 지나야 비로소 익습니다. 그렇게 만 년을 꼬박 채워야 겨우 서른 개가 열리는 법이지요. 인연이 닿는 사람이 그 향기만 맡아도 삼백육십 년을 살고, 하나를 먹으면 사만 칠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오행(五行)의 기운에는 아주 약합니다."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오행에 약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토지가 이어 말했다. "이 열매는 금(金)을 만나면 떨어지고, 나무(木)를 만나면 시들며, 물(水)을 만나면 녹아 없어지고, 불(火)을 만나면 타버리며, 흙(土)을 만나면 땅속으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

매를 두드려 딸 때는 반드시 금속 도구를 써야만 합니다. 열매를 두드려 떨어뜨릴 때도 쟁반에 비단 손수건을 깔아 받쳐야 하지요. 만약 나무 도구에 닿기라도 하면 금세 시들어버려, 먹는다 해도 수명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도자기 그릇을 써서 맑은 물에 녹여 먹어야 합니다. 불에 닿으면 바로 타버려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흙에 닿으면 땅속으로 파고드는데, 대성께서 방금 땅에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흙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이 흙은 사만 칠천 년의 세월을 품고 있어서, 강철로 뚫으려 해도 뚫리지 않을 만큼 생철보다 서너 배는 더 단단합니다. 사람이 이 흙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성께서 믿기지 않으신다면 저 땅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손오공이 즉시 여의봉을 뽑아 땅을 한 번 내리쳤다. '챙!'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여의봉이 튕겨져 나왔고, 땅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과연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 여의봉은 바위도 가루로 만들고 생철도 부딪히면 자국이 남는데, 어찌 이번에는 조금의 상처도 나지 않는단 말이나?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를 잘못 의심했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 보아라."

그러자 토지는 다시 본래의 사당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피를 내었다.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한 손으로는 금격자를 휘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옷깃을 걷어 올려 주머니처럼 만든 뒤 기다렸다. 손오공은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를 누비며 인삼과 세 개를

두드려 떨어뜨린 뒤, 옷깃 주머니 속에 쏙 담았다. 나무에서 뛰어내린 손오공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저팔계가 웃으며 물었다. "형님, 뭐 좀 가져왔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 손오공이 손만 뻗으면 다 내 것이야. 이 과일, 사오정을 빼놓으면 안 되니 그를 좀 불러와라."

저팔계가 손짓하며 소리쳤다. "오정아, 이리 좀 와봐라!"

그러자 사오정이 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달려 들어오며 물었다. "형님, 왜 부르셨습니까?"

손오공이 옷깃 주머니를 풀며 말했다. "동생아, 이것 좀 봐라. 이게 대체 무엇이나?"

사오정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인삼과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오, 잘 아는구나! 어디서 먹어본 적이라도 있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권렴대장이 었을 때 난가(신선의 수레)를 모시고 반도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의 여러 신선이 이 과일을 왕모에게 바쳐 장수를 기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긴 했어도 직접 먹어본 적은 없지요. 형님, 저도 조금만 맛볼 수 있을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말해 뭐하냐! 우리 형제들 모두 하나씩 나누어 먹자꾸나."

세 사람은 인삼과를 하나씩 나누어 먹었다. 그중 저팔계는 위장도 크고 입도 커서, 아까 동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는 이미 식충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인삼과를 보자마자 얼른 가져다 입을 크게 벌리고는 꿀꺽 소리가 나도록 통째로 삼켜 버렸다. 그러고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손오공과 사오정에게 뻔뻔하게 물었다. "너희 둘은 뭘 먹은 거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인삼과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맛이 어떠냐?" 손오공이 말했다. "사오정, 저놈 말 상대해 줄 것 없다. 너는 먼저 다 먹어놓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묻는 거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먹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형님들처럼 천천히 꼭꼭 씹으며 맛을 음미할 틈이 없었던 말이야.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삼켜버렸네. 아, 형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끝까지 베풀어야 하는 법이지. 이미 내 식충을 깨워놓았으니, 가서 하나 더 가져와 봐. 이 저팔계가 아주 천천히 맛을 보며 먹어볼 테니까."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놈아, 만족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건 우리가 평소 먹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게 아니야. 마주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만 년에 겨우 서른 개밖에 열리지 않는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 먹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 닿은 것이니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됐다, 됐어, 그만하면 충분하다!" 손오공은 몸을 일으키더니 금격자를 창문 틈으로 슬쩍 그 도동들의 방 안에 던져 넣고는, 더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 멍청한 녀석은 그저 중얼중얼 쉬지 않고 투덜거렸다. 그런데 마침 두 동자가 찻잔을 치워 올리려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저팔계가 "인삼과를 시원하게 먹지를 못했으니, 하나 더 얻어 먹어야 좋겠는데!"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청풍이 의심스러운 마음에 말했다. "명월아, 저 주둥이 긴 스님이 하는 말 좀 들어봐. '인삼과를 하나 더 먹어야겠다'라고 하잖아. 스승님께서 떠나시며 저들 수하가 사고를 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는데, 혹시 저들이 우리 보물을 훔쳐 간 건 아닐까?"

명월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형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금격자가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어서 정원으로 가서 확인해 봐요!"

두 동자는 급히 달려갔으나, 어느새 정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청풍이 말했다. "이 문은 내가 분명히 잠갔는데, 어째서 열려 있는 거지?" 그는 다시 서둘러 채소밭으로 향했으나 그곳의 문 역시 열려 있었다. 급히 인삼과 정원으로 뛰어 들어간 청풍은 나무 아래에 기대어 서서 위를 올려다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헤매며 세어본 끝에 그는 겨우 스물두 개라는 숫자를 얻어냈다.

명월이 물었다. "너 계산할 줄은 아니?"

청풍이 대답했다. "할 줄 알지. 너는 말이나 해 봐."

명월이 말했다. "원래 열매가 서른 개였잖아. 스승님께서 정원을 여셨을 때 두 개를 드셨으니 스물여덟 개가 남았고, 방금 당승에게 두 개

를 가져다주었으니 스물여섯 개가 남아야 해. 그런데 지금 겨우 스물두 개뿐이라니, 네 개나 줄어들었잖아!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다고! 분명히 저 나쁜 놈들이 훔쳐 간 게 틀림없어. 우리는 가서 당승을 꾸짖어야 해."

두 동자는 정원 문을 나서서 곧장 전각으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삼장법사를 가리키며 '대머리아' 어찌고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도둑놈이니 쥐새끼니 하며 상스럽고 험한 말로 쉴 새 없이 마구 몰아붙였다.

삼장법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말했다. "선동(仙童)들이여,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가? 제발 진정하고, 할 말이 있다면 차근차근 말해 보게. 함부로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되네." 청풍이 쏘아붙였다. "귀가 먹었나? 내가 알아듣지 못할 오랑캐 말이라도 한단 말인가? 인삼과를 훔쳐 먹어 놓고 어찌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삼장법사가 물었다. "인삼과가 어떻게 생겼단 말인가?" 명월이 대답했다. "방금 가져다주며 먹으라고 했을 때, 아이처럼 생겼다고 하지 않았느냐!" 삼장법사가 말했다. "아미타불! 그 물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겁이 났는데, 어찌 감히 훔쳐 먹겠는가? 설령 탐식하는 병이 들었다 해도 이런 도둑질은 할 수 없는 법이네. 사람을 잘못 의심하지 말게나." 청풍이 말했다. "자네가 먹지 않았더라도, 자네 수하 놈들 중에 훔쳐 먹은 놈이 있을 것이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일단 소란을 멈추게.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 테니. 만약 정말로 훔친 것이라면 배상하게 할 것이네." 명월이 비아냥거렸다. "배상이라니!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산단 말인가?" 삼장법사가 말했다. "설령 돈

이 있어도 살 곳이 없을지언정, 예부터 '인의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놈더러 자네들에게 예를 갖추 사과하게 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네. 게다가 아직 그놈이 한 짓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는가." 명월이 말했다. "어찌 그놈들이 아니겠는가? 저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해 저기서 아직도 다투며 떠돌고 있지 않은가!" 삼장법사가 크게 소리쳤다. "제자들아, 모두 이리로 오너라!" 사오정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다. "큰일 났구나, 일이 틀어졌어. 스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린 도동들이 마구 욕을 퍼붓고 있으니, 이건 아까 우리가 한 말이 새어 나간 게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부끄러워 죽겠구나. 이건 그저 먹을 것 문제인데,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몰래 훔쳐 먹은 꼴이 되니, 절대 인정하지 말자꾸나." 저팔계가 맛장구를 쳤다. "맛습니다, 맞아요. 그냥 시치미 떼고 잡아땡시다." 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주방에서 나와 전각 위로 올라갔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시치미를 떼며 잡아땡지는, 다음 회에서 밝혀진다.

제25회 — 진원선이 경전을 구하러 온 승려를 쫓고, 손행자가 오장관에서 크게 난동을 부리다

鎮元仙趕捉取經僧 孫行者大鬧五莊觀

한편, 삼장 일행이 전각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 "밥이 다 익어 가는데,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얘들아, 밥 때문이 아니다. 이 관에 아이처럼 생긴 인삼과라는 것이 있다는데, 너희 중 누가 그것을 몰래 먹었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러자 청풍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바로 저놈입니다, 바로 저놈이라니까요!"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손오공은 원래 이렇게 웃는 상이다! 무슨 열매를 좀 먹었다고 내 웃음까지 못 웃게 하느냐?" 삼장이 타일렀다. "제자야, 화를 가라앉히거라. 우리는 출가한 몸이니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마음 편치 않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정말로 먹었다면 정중히 사과하면 될 것을, 어찌 이리도 잡아떼느냐?" 손오공은 스승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팔계가 옆에서 도동들이

인삼과를 먹는 소리를 듣더니, 자기도 맛보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세 개를 따오라고 시켰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씩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이미 먹어버렸으니 이제 어찌면 좋겠습니까?" 명월이 말했다. "우리 인삼과 네 개를 훔쳐 먹어 놓고도, 저 스님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는군요!" 저팔계가 맞받아쳤다. "아미타불! 네 개를 훔쳤다면 왜 세 개만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겠느냐? 미리 하나를 빼돌려 챙겨둔 것이 아니냐!" 그 멍청한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횡설수설했다.

두 동자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더욱 기세등등하게 욕설을 퍼부으며 몰아세웠다. 이에 손오공은 이를 갈며 눈을 부릅떴다. 여의봉을 손에 쥐고 짹 움켜쥔 채 꺾 참으며 말했다. "이 동자들이 면전에서 사람을 때리는 정도라면 그래도 좀 참아주려만, 이렇게까지 욕을 먹다니. 아예 씨를 말려버려서, 다들 인삼과를 구경도 못 하게 만들어 주마." 손오공은 머리 뒤의 털을 한 가닥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 당승을 따라가며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동자들의 욕설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사이 손오공의 본체는 신통력을 발휘해 구름을 타고 훌쩍 날아올라 곧장 인삼과 밭으로 향했다. 그는 여의봉을 휘둘러 나무를 광광 내리치더니, 산을 밀고 고개를 뚫기는 듯한 엄청난 힘으로 나무를 뿌리째 밀어버렸다. 가련하게도 잎과 가지가 떨어지고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니, 도인이 공들여 키운 단약과 같은 나무가 끊어지고 만 것이다. 손오공은 쓰러진 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다. 본래 이 보물 같은 열매는 금속을 만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여의봉의 양 끝이 금으로 싸여 있는 데다 철 또한 오금(五金)의

하나라 두드리는 대로 우수수 떨어졌고, 떨어진 열매들은 흙을 만나 다시 흙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다. 그래서 나무 위에는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다, 좋다, 좋다! 이제 다들 끝장이로구나(아무도 인삼과를 못 먹게 됐다)." 그는 여의봉을 거두고 곧장 앞으로 와서, 털을 한 번 털어 다시 몸으로 거두어들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육안범태(평범한 눈)라 그神通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한편, 욕설을 퍼붓던 동자들이 어느 정도 기운이 빠지자 청풍이 말했다. "명월아, 이 스님들도 참을성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닭을 쫓듯 한참을 욕했는데도 아무 대꾸가 없는 걸 보니, 아마 몰래 먹은 건 아닌 모양이다. 혹시 나무가 너무 높고 잎이 무성해서 열매 개수를 제대로 못 센 건 아닐까? 괜히 멀쩡한 사람 잡아서 욕하지 말고, 내가 너랑 같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명월이 대답했다. "그 말이 맞다." 두 동자는 다시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을 보니 나무는 뿌리째 뽑혀 가지가 엉망으로 뺨어 있고, 열매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청풍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명월은 허리가 끊어질 듯하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이를 시로 이르되,

삼장법사 만수산에 이르니, 손오공이 인삼과를 망쳐놓았네. 가지 꺾이고 잎 떨어진 신령한 나무 앞에, 명월과 청풍은 간담이 서늘해졌구나.

두 동자는 흙먼지 속에 나뭇굴며 횡설수설하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어쩌면 좋아! 우리 오장관의 귀한 단약을 망가뜨리

고 우리 신선의 대를 끊어놓다니! 스승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둘이 대체 뭐라고 말씀드린단 말인가?"

그러자 명월이 말했다. "사형, 너무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선 옷매 무새부터 가다듬고 저 스님들을 너무 놀라게 하지 맙시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 그 털이 덩수룩하고 천둥의 입을 가진 녀석이 도술을 부려 우리 보물을 망가뜨린 게 분명해요. 저놈과 따져봤자 분명히 발뺌할 테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네 명을 상대하겠어요? 차라리 저들을 적당히 속이는 게 낫겠어요. 과일이 아주 적은데 우리가 잘못 센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척하는 거죠. 마침 밥도 다 되었으니, 밥을 먹을 때쯤 맛있는 반찬을 좀 더 얹어주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그릇을 들고 있을 때, 형님은 문 왼쪽에 서고 저는 문 오른쪽에 서서 문을 콧 닫고 자물쇠로 딱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 문들을 몽땅 잠가서 저들을 못 나가게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스승님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처분하실지 맡기자고요. 저들이 스승님의 옛 지인이라 용서해 주신다면 스승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이고,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 해도 도둑을 잡은 셈이니 우리 죄는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청풍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두 동자는 억지로 기운을 내어 웃음을 지어 보이며 후원에서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당승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스님, 방금 저희가 말이 거칠어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당승이 물었다. "어찌 된 일인가?" 청풍이 대답했다.

"열매가 적지 않은데, 나무 잎이 너무 무성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원래 개수가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팔계가 틈을 타서 판지를 걸었다. "이놈아, 어린놈이 철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근거 없이 저주를 해대며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느냐? 참으로 사람의 자식이라 할 수 없는 못된 녀석이로구나!" 손오공은 속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입을 떼지 않은 채 속으로 생각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열매는 이미 결판이 나버렸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분명 죽은 나무를 다시 살려낼 방법이 있는 게로구나.' 당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됐으니, 어서 밥을 차려 오너라. 이제 식사를 하겠다."

저팔계는 밥을 푸러 가고, 사오정은 의자를 놓아 정리했다. 두 동자는 서둘러 밑반찬을 가져왔는데, 장에 절인 오이와 가지, 술지게미에 절인 무, 식초에 절인 콩깍지, 절인 연근, 데친 갓 등 일고여덟 접시를 차려 스승과 제자들의 식탁에 올렸다. 또한 좋은 차 한 주전자와 가져와 찻잔 두 개에 나누어 곁에서 정성껏 시중을 들었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이 막 밥그릇을 들려는데, 동자 둘이 각각 하나씩 달려들어 문을 쾅 닫더니 양쪽 고리가 달린 구리 자물쇠로 빗장을 꽉 걸어 잠갔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동자들이 참 별나구나. 여기 풍속이 왜 이리 안 좋으냐? 어찌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게 한단 말이냐?" 명월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좋은 싫든 밥이라도 다 먹고 나서 문을 열어 드리지요." 그러자 청풍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식탐 많고 남의 음식이나 훔쳐 먹는 대머리 도둑놈아! 네놈이 우리 신선한 과일을 몰래 따 먹었으니 이미 남의 밭 과일을 함부로 훔쳐 먹은 죄로 다스려야 마땅할 텐데, 거기다 우리 신령한 나무까지 뿌리째 뽑아 오장관의 신령한

뿌리를 망가뜨려 놓고도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네놈이 만약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뵈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오직 죽어서 등 돌려 요람에서 다시 환생한 뒤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삼장은 이 말을 듣고 밥그릇을 내려놓은 채,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심정이 되었다. 동자들은 앞 산문과 두 번째 산문을 모두 자물쇠로 채워 버렸다. 그러고는 다시 정전 문 앞으로 찾아와 도둑놈이라며 앞뒤로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동자들은 밥을 먹으러 갔고, 식사를 마친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당승이 손오공을 원망하며 말했다. "이놈의 원숭이 녀석, 매번 사고만 치는구나! 그쪽 과일을 몰래 먹었으면 그냥 좀 꾸중을 듣고 말 것이지, 어찌 나무까지 뿌리째 뽑아버린단 말이냐? 만약 이 일로 고소라도 당한다면, 네 아버지가 관리가 되었다 해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게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너무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 동자 녀석들이 다 잠들기만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밤을 틈타 바로 떠나면 됩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문을 여러 겹이나 채워놓고 꼭 잠가 두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라, 걱정 마.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너한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너는 변신술을 써서 벌레 같은 걸로 변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쏙 빠져나가겠지만,

변신할 줄 모르는 우리만 여기서 대신 매를 맞으며 고생하게 생겼잖나."

당승이 말했다. "네가 만약 이 일을 저질러서 나간다면, 나와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혼자 도망가는 것 아니냐? 내가 예전에 읽던 경전이라도 외우기 시작하면, 너는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느냐?"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교 경전 중에 《능엄경》, 《법화경》, 《공작경》, 《관음경》, 《금강경》 같은 건 들어봤어도, '옛날이야기 경전'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 몰라서 하는 소리군. 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머리테는 관음보살님이 스승님께 내려주신 것이라네. 스승님이 나를 속여서 쓰게 하셨는데, 이게 한 번 쓰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절대 벗겨지지 않거든. 이걸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라고도 하고 '긴고주 경전'이라고도 부르지. 스승님이 말씀하신 '옛날이야기 경전'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만약 저 주문을 외우면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니, 저놈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 거라네. 스승님, 제발 외우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스승님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 같이 무사히 나갈 테니까요."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더니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손오공이 말했다. "지금은 만물이 잠든 고요한 때에 달빛도 밝으니, 딱 떠나기 좋은 때로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다. "형님, 판짓하지 마세요. 문이 죄다 잠겨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내 솜씨를 한번 보아라." 손오공은 여의봉을 손에 쥐고는 '해쇄법(자물쇠를 푸는 도술)'을 부려 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러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과 빗장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며 문이 활짝 열렸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솜씨 하나는 끝내주네요. 대장간 노인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까짓 문이 뭐가 대수냐? 남천문이라 해도 손가락 하나면 열린다." 그러고는 스승님을 모시고 문 밖으로 나가 말에 올라탔다. 저팔계는 짐을 짊어지고, 사오정은 말을 몰며 곧장 서쪽 길로 향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조금 천천히 가거라. 내가 가서 그 동자 녀석들을 한 달 동안 잠들게 해두고 가마."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야, 절대로 아이들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재물을 탐하다 사람을 해친 죄를 또 짓게 될까 걱정되는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동자들이 잠든 방 앞까지 갔다. 그의 허리춤에는 잠을 재우는 벌레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일전에 동천문에서 증장천왕과 내기 놀이를 하다 따낸 것이었다. 손오공은 벌레 두 마리를 꺼내 창문 틈으로 튕겨 넣었다. 그러자 동자들은 곧바로 얼굴을 파묻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날 생각을 못 하게 되었다. 그제야 손오공은 구름을 밟는 보법을 펼쳐 삼장법사를 따라잡고는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힘차게 달려갔다.

그날 밤은 말도 쉬지 않고 달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삼장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네가 입을 놀리는 바람에 내가 밤새 잠 한 숨 못 잤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원망만 하

지 마세요. 날이 밝았으니 우선 길가 숲속에서 대충 쉬면서 기운을 좀 차린 다음에 다시 가시지요." 삼장은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잠자리를 대신해 앉았다. 사오정은 짐을 내려놓고 꾸벅 꾸벅 졸기 시작했고, 저팔계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손오공은 마음이 너그럽게도 그들을 쉬게 내버려 둔 채, 나무 위로 뛰어올라 나뭇가지를 꺾으며 장난을 치며 놀았다. 네 사람이 쉬는 일은 차치하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편, 진원대선은 원시궁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여러 신선들을 거느린 채 도솔천을 떠나 요천으로 내려왔다.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내려오니 어느덧 만수산 오장관 문 앞에 다다랐다. 살펴보니 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다. 진원대선이 말했다. "청풍과 명월이 제법 쓸 만하구나. 평소에는 해가 세 길이나 높이 솟도록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늦잠을 자더니, 오늘은 우리가 자리를 비웠다고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까지 쓸어 놓았구나." 함께 온 신선들은 모두 기뻐하며 전각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향을 피운 흔적조차 없고 사람 기척도 전혀 없었으며, 청풍과 명월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신선들이 말했다. "저 두 녀석이 우리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모양입니다." 그러자 진원대선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선이 되려는 사람이 어찌 그런 못된 짓을 하겠느냐? 아마 어젯밤에 문 닫는 걸 깜빡하고 잠들었나 보구나. 아침인데 아직도 깨지 못한 모양이야." 신선들이 그들의 방 문 앞까지 가서 살펴보니, 정말로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신선들이 문짝을 뜯어내고 침상까지 끌어내 보았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진원대선이 웃으며 말했다. "착한 선동들이로구나. 신선이 될 사람은 정기가 가득 차면 다시는 잠을 생각하지 않거늘, 어찌 이리도 곤하게 잠든 것이냐? 혹시 누가 수작을 부린 것은 아니냐?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한 동자가 급히 물 반 잔을 떠와 진원대선에게 바쳤다. 진원대선이 주문을 외우더니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얼굴에 뽀자, 그제야 잠귀신이 물러가고 두 동자가 깨어났다.

두 사람이 막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얼굴을 훑치며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스승이신 여세동군(與世同君)과 사형 등 여러 신선들이었다. 청풍은 당황하여 머리를 조아렸고, 명월도 넙죽 엎드려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옛 친구라 하시던 자들은 알고 보니 동쪽에서 온 승려 일당으로, 아주 흉악한 강도 놈들이었습니다!" 진원대선이 웃으며 말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 보아라." 청풍이 말을 이었다. "스승님, 지난번에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동토에서 온 당승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승려 네 명에 말까지 다섯이 함께 있었지요. 제자들은 감히 스승님의 명을 어길 수 없어 그들이 온 까닭을 묻고는 인삼과를 두 개 따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승은 속세의 눈에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 우리 신선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삼과를 보고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갓난아기 같다며 한사코 먹기를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밑에 제자가 셋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성은 손씨요 이름은 오공, 별호가 행자인 놈이 먼저 인삼과 네 개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따지며 사실대로 몇 마디 했습니다만, 그놈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몰래 원신을 빼내는 출신(出神)의 술법을 부렸습니다. 아, 정말 괴롭습니다……!" 두 동자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뺨을 타고 흐르

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신선들이 물었다. "그 승려가 너희를 때렸느냐?" 명월이 대답했다. "때리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저희 인삼과 나무를 쓰러뜨려 놓았습시다." 진원대선은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며 말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그 손씨 성을 가진 놈이 태을산선(太乙散仙)이라, 예전에 천궁(天宮)에서 큰 난동을 부렸을 만큼 신통력이 대단한 놈이라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보물 나무를 쓰러뜨렸다니, 그 승려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느냐?" 청풍이 대답했다. "모두 알아봅시다." 진원대선이 명령했다. "알아본다면 모두 나를 따르라. 제자들아, 모두 형구를 챙겨 두고 내가 돌아와서 그놈을 매질하기를 기다려라." 신선들이 명을 받들었다.

진원대선과 명월, 청풍이 상서로운 빛을 일으켜 솟구쳐 오르니, 순식간에 천 리 밖까지 날아갔다. 진원대선이 구름 위에서 서쪽을 바라보았으나 당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구백여 리를 더 지나쳐 버린 것이었다. 알고 보니 당승은 밤새 말을 쉬지 않고 달렸어도 고작 백이십 리 남짓을 갔을 뿐인데, 신선인 진원대선의 구름은 단번에 구백여 리를 훌러 가버린 탓이었다.

이때 청풍이 말했다. “스승님, 길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분이 바로 당승입니다.”

진원대선이 대답했다. “이미 보았다. 너희 둘은 먼저 돌아가서 밧줄을 준비해 두거라. 내가 직접 저 자를 잡아 오겠다.”

청풍과 명월은 우선 명령을 받들어 돌아갔다.

진원대선은 구름에서 내려와 몸을 흔들더니, 길을 떠도는 도사(행각 전진)로 변신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말해 보겠다. 온갖 조각 천을 기워 만든 백납포를 입고, 허리에는 여공(呂公)의 띠를 맸다. 손에는 주미(麈尾, 고라니 꼬리로 만든 먼지떨이)를 흔들며 어고(漁鼓, 나무통 타악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발에는 세 귀 모양의 짚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양건(九陽巾)을 둘렀다. 소매 가득 바람이 휘날리는데, 입으로는 「달이 높이 떴네」라는 노래를 부르네. 그는 곧장 나무 아래로 다가와 당승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장로님, 소도가 인사 올립니다." 당승이 서둘러 답례하며 말했다. "미처 몰라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진원대선이 물었다. "장로께서는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길 한복판에 좌정하고 계시는지요?" 삼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 잠시 쉬어가는 중입니다." 진원대선이 짐짓 놀란 체하며 물었다. "장로께서 동쪽에서 오셨다면, 혹시 저희 황량한 산을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삼장이 물었다. "신선께서는 어느 보배로운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원대선이 말했다. "만수산 오장관이 바로 소도가 머무는 곳입니다."

손행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찢리는 구석이 있어 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길을 지나던 중이었습시다."

그러자 진원대선이 손가락질하며 웃으며 말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네놈이 우리 관에 들어와 인삼과 나무를 쓰러뜨려 놓고는, 밤사이에 몰래 도망치려 하다니! 어찌 끝까지 자백

하지 않고 숨기려 드는 것이냐? 도망갈 생각 마라. 어서 가서 내 나무를 돌려놓아라!”

그 말을 들은 손행자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따질 것도 없다는 듯 철봉을 핵 뽑아 들고는, 대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진원대선은 몸을 옆으로 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상서로운 빛을 밟고 공중으로 훌쩍 날아올랐다. 손행자 역시 구름을 타고 급히 뒤를 쫓아 올라갔다.

공중에서 진원대선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자금관을 머리에 쓰고, 근심 없는 학의 깃털로 만든 도포를 입었네. 신발을 신고 발을 내디디며, 비단 띠로 허리를 묶었구나. 몸은 동자 같은 모습이요, 얼굴은 미인처럼 곱디고운데, 턱 아래에는 세 가닥 수염이 늘어져 있고, 귀 옆에는 까마귀 깃털 장식이 겹쳐 있네. 손행자를 맞이하며 무기는 들지 않은 채, 손에 든 옥 먼지털이만 만지작거리네.

손오공이 키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요술 봉을 휘두르며 마구 공격했다. 진원대선은 옥빛 먼지떨이인 옥주를 휘둘러 앞뒤로 막아내며 손오공을 두세 차례나 밀어붙였다. 그러더니 '수리건곤(소매 속에 세상을 담는 도술)'이라는 수단을 부려, 구름 위에서 도포 소매를 바람에 맞추어 가볍게 펼쳤다. 그러자 소매가 휙 하고 날아와 네 승려와 말까지 통째로 소매 안으로 휩쓸어 담아버렸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큰일 났네! 우리가 커다란 자루 속에 갇혀버렸어!"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아, 자루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옷소매 속에 감힌 거야."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쇠갈퀴로 확 들이받아서 구멍을 뚫고 나가면 그만이지. 저 사람이 부주의해서 제대로 못 가둔 거라고 말하면 될 거야."

이 멍청한 저팔계가 갈퀴를 휘두르며 마구 들이받았지만, 도무지 뚫을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만졌을 때는 분명 부드러운 천 같았는데, 막상 들이받으니 철보다 더 단단했다.

진원대선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곧장 오장관으로 내려가 자리에 앉더니, 제자들에게 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여러 신선이 일제히 달려들어 시중을 들었다. 그가 소매를 휘두르니 마치 꼭두각시를 다루듯 당승을 꺼내어 정전 처마 기둥에 묶어버렸다. 이어 나머지 세 제자도 하나씩 꺼내어 기둥마다 하나씩 묶어버렸다. 말도 꺼내어 마당에 매어두고 풀을 좀 던져주었으며, 짐짝들은 복도에 내팽개쳤다.

진원대선이 다시 말했다. "제자들아, 저 스님은 출가한 몸이니 칼이나 창을 쓰거나 도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대신 가죽 채찍을 가져오너라. 저놈들을 한바탕 매질하여 내 인삼과에 대한 화풀이를 좀 해야겠다."

신선들이 즉시 채찍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소나 양, 노루,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용의 가죽으로 만든 칠성편(七星鞭)이었다. 채찍을 물에 적셔둔 뒤, 힘이 센 어린 신선 하나에게 채찍을 쥐여주며 물었다. "스승님, 누구부터 칠까요?"

진원대선이 말했다. "당삼장이 예의도 없이 큰 죄를 지었으니, 저놈부터 쳐라."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스승님은 매를 맞으면 버티지 못하실 텐데, 만약 매질을 심하게 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게 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겠는가?' 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말했다. "선생님,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과일을 훔친 것도 저요, 먹은 것도 저요, 나무를 쓰러뜨린 것도 저입니다. 어찌 저를 먼저 때리지 않으시고 스승님을 때리려 하십니까?"

진원대선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말썽씨가 아주 매섭구나. 그렇다면 이놈부터 먼저 때려라."

동자가 물었다. "얼마나 때릴까요?"

진원대선이 말했다. "과일 개수대로 채찍 서른 대를 때려라."

그러자 동자가 채찍을 휘둘러 때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신선의 법력이 대단할까 봐 눈을 크게 뜨고 어디를 맞는지 유심히 살폈다. 채찍이 다리를 향해 날아오자, 손오공은 허리를 휙 틀며 외쳤다. "변신!" 그러자 그의 두 다리가 단단한 무쇠 다리로 변했다. 채찍이 어떻게 버티나 보자는 심산이었다. 동자가 채찍을 휘둘러 서른 대를 다 때리고 나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진원대선이 다시 명령했다. "또한 삼장이 제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제자가 이토록 행패를 부리게 방치한 죄도 물어야 한다."

동자가 다시 채찍을 휘둘러 때리려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선생님, 또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과일을 훔칠 때 스승님은 모르셨습니다. 스승님은 전각에서 두 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이건 저희 형제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설령 가르침이 엄하지 못했다는 죄가 있다 해도, 제자인 제가 대신 맞아야 하니 저를 다시 때리십시오."

진원대선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교활하고 못된 구석이 있으면서도 제자를 생각하는 효심은 있구나. 정 그렇다면 이놈을 계속 때려라."

동자가 다시 서른 대를 때렸다. 손오공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다리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매질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통증도 가려움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진원대선이 말했다. "채찍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고문하거라."

동자는 채찍을 거두어 물에 담가 두러 가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다.

진원대선은 눈물을 흘리며 제자들을 원망하듯 말했다. "너희가 사고를 쳐놓고는 어찌하여 나까지 이곳에서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원망은 그만두시고, 차라리 저를 먼저 때리십시오. 매를 맞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그리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당승이 거들었다.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몸이 뽕뽕 묶여 있어서 아주 아프구나."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여기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다들 조용히 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또 허풍을 떠시는군요. 여기 밧줄에 물까지 뿌려져서 아주 짝 묶여 있습니다. 이걸 전각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심해요. 형님의 해쇄법(자물쇠를 푸는 도술)으로 문을 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허풍을 떠는 게 아니다. 저 밧줄에 물을 뿌렸든, 사발 굽기만 한 굽은 밧줄이든, 내 앞에서는 그저 가을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갈 뿐이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사방은 이미 고요해져 만물의 소리가 끊겼으니, 마치 깊은 밤 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손행자는 몸을 작게 줄인 뒤, 묶여 있던 밧줄을 풀어내며 말했다. "스승님, 가지지요."

사오정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저희도 좀 구해주십시오."

손행자가 말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손행자는 삼장을 풀어준 뒤 저팔계와 사오정의 결박도 풀었다. 그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말의 등자까지 단단히 채운 뒤, 행랑에 놓인 짐을 챙겨 일제히 관문을 나섰다. 그러고는 저팔계에게 명령했다. "너는 가서 저 절벽가에 있는 버드나무 네 그루를 베어 오너라."

저팔계가 물었다. "그건 어디에 쓰려고요?"

손행자가 말했다. "쓸 데가 있으니 어서 빨리 가져와!"

저팔계는 조금 둔하긴 해도 힘은 좋아서, 곤장 달려가 입에 하나씩 물고는 네 그루를 통째로 안아 왔다. 손행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형제들에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 원래 있던 대로 기둥에 밧줄을 묶어 놓으라고 시켰다.

그다음 손행자가 주문을 외우며 혀끝을 깨물어 그 피를 나무에 뿜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나무 한 그루는 노승으로 변하고, 한 그루는 손행자 자신으로 변했으며, 나머지 두 그루는 사오정과 저팔계로 변했다. 모두 생김새와 용모가 똑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 응답까지 하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제야 두 제자는 발걸음을 재촉해 스승을 따라나섰다. 그날 밤, 일행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오장관을 벗어났다.

날이 밝아올 무렵, 삼장법사는 말 위에서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정말 못 말리겠군요. 출가하신 분이 어찌 이리도 고생을 하십니까? 저 손오공은 밤을 꼬박 새워도 전혀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말에서 내려오십시오.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비웃으면 안 되니, 저 산기슭에 바람을 피하고 기운을 모을 만한 곳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십시오."

한편, 삼장 일행이 길 위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진원 대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전각 앞에 나와 명령했다. "채찍을 가져오너라. 오늘은 마땅히 당삼장을 매질해야겠다." 그러자 힘센 어린 신선이 채찍을 휘두르며 당삼장(으로 변한 버드나무)을 향해 말했다. "너를 때리겠다!" 그러자 버드나무도 맞장구를 치듯 대답했다. "때려라!" 채찍이 휘둘러질 때마다 뽕뽕 소리가 나며 서른 대를 때렸다. 어린 신선이 채찍을 돌려 저팔계에게 향하며 말했다. "이번엔 네 차례다!" 버드나무가 또 대답했다. "때려라!" 사오정을 때릴 때도 버드나무는 때리라며 맞장구를 쳤다. 마침내 손행자 차례가 되었는데, 길 위에 있던 손행자가 갑자기 오싹하며 몸을 떨고는 외쳤다. "큰일 났다!" 당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나?" 손행자가 대답했다. "제가 버드나무 네 그루를 우리 스승님과 제자들 모습으로 변하게 해두었잖습니까. 저는 어제 저를 두 번이나 매질했으니 오늘은 안 때리려니 했는데, 또 제 분신을 때리려 하니 제 본체가 오싹 떨린 것입니다. 얼른 법술을 거두어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손행자는 서둘러 주문을 외워 변신술을 거두어들였다.

보라, 그 도동들은 겁에 질려 채찍을 내팽개치고는 이렇게 보고했다. "스승님, 맨 처음 때린 것은 당나라 스님이었는데, 지금 때리는 것은 모두 버드나무 뿌리입니다!" 진원대선은 그 말을 듣고 허허거리며 냉소하더니, 칭찬을 그치지 못하고 말했다. "손행자, 정말 대단한 원숭이 왕이로구나. 일찍이 천궁에서 큰 난동을 부려, 하늘과 땅에 천라지망을 쳐도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더니, 과연 그럴 만하구나. 그냥 도망만 갔으면 몰라도, 어찌 버드나무 몇 그루를 묶어 두고 제 이름을 사칭해 대신 세워놓는단 말이나? 절대 그냥 두지 마라. 당장 쫓아가자!"

진원대선이 재촉하며 구름을 타고 솟구쳐 서쪽을 바라보니, 당승 일행이 붓짐을 메고 말을 몰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대선이 구름을 낮춰 내려오며 소리쳤다. "손행자, 어디로 가느냐! 내 인삼나무를 당장 돌려놓아라!" 그 소리를 들은 저팔계가 말했다. "에휴, 끝났네. 또 그 원수가 나타났어."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이제 자비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저희가 좀 거칠게 몰아붙여 아예 이놈을 끝장내고 여기서 빠져나갑시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오정은 보장(寶杖)을 움켜쥐고, 저팔계는 쇠갈퀴를 치켜들었으며,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 공중에서 진원대선을 에워싸고 사정없이 두들기고 찍어댔다. 이 격렬한 싸움을 시로 이르되, 오공은 진원대선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 그 신묘함이 더욱 현묘하구나. 세 가지 신령한 병기로 맹렬히 몰아쳐도, 한 자루 주미는 절로 유유히 떠다니네. 좌우로 막고 가리며 오가는 대로 따르고, 앞뒤로 맞받아치며 도는 대로 돌아서니, 밤이 가고 아침이 와도 몸을 빼내기 어려우니, 이렇게 지체하다 언제 서천에 닿으랴!

그들의 형제 삼승(三僧)이 각자 신통한 병기를 들고 일제히 공격해 나갔지만, 진원대선은 그저 파리채 같은 작은 빗자루를 휘둘러 뿐이었다. 반 시진쫘 지났을까, 대선이 도포 소매를 짹 펼치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승려와 말, 그리고 짐까지 소매 하나에 몽땅 쓸어 담아 버렸다. 대선이 구름을 타고 관으로 돌아오자 다른 신선들이 마중을 나왔다. 대선은 전각 위에 앉아 소매 안에서 그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당승은 계단 아래 낮은 회나무에 묶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양옆의 나무에 각각 묶었으며, 손행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꿇꿇 묶어버렸다.

손행자가 말했다. "아무래도 심문을 하려는 모양이군."

머지않아 결박이 끝나자, 긴 천 열 필을 가져오라는 명이 떨어졌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팔계, 이 선생께서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 천을 가져다 우리를 소매처럼 감싸 주시다니 말이야. 좀 아껴서 그냥 입 구멍 하나만 내주지 그러냐?"

그러자 어린 도동들이 집안의 천을 날라 왔다. 대선이 명령했다. "당 삼장, 저팔계, 사화상을 모두 천으로 감싸라."

신선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가 그들을 감쌌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꼼꼼 싸매면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

순식간에 천으로 감싸는 일이 끝났다. 이어 옷칠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신선들은 서둘러 직접 만들어 말리고 준비해둔 생옷과 익은 옷을 가져와 세 사람의 온몸을 천으로 감싼 뒤 그 위에 옷칠을 했다. 온몸을 옷칠로 덮어버리되 얼굴만은 밖으로 나오게 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선생님, 머리 위쪽은 상관없는데, 아래쪽에는 구멍을 좀 남겨주쇼. 그래야 우리가 볼일을 볼 것 아니오."

대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가마솥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팔계, 운수도 좋지. 솥을 가져오는 걸 보니 우리 먹일 밥을 지으려나 보다."

저팔계가 맞장구쳤다. "그럼 그렇지, 차라리 밥이라도 좀 먹게 해 주든가. 배불리 먹고 죽는 귀신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신선들은 정말로 커다란 술 하나를 계단 아래에 받쳐 놓았다. 대신이 마른 장작을 쌓고 불을 지피게 하며 명령했다. "기름을 한 술 가득 붓고 팔팔 끓여라. 기름이 끓으면 손행자를 그 술에 넣어 튀겨버려라. 내 인삼나무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손행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침 잘됐구나! 나도 요새 씻지도 못해서 피부가 가렵고 따끔거렸는데, 이렇게 뜨끈하게 지질 수 있다면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름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행자는 상대의 도술이 워낙 깊어 기름술 안에서 함부로 손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무대 아래 동쪽에는 일규대가 있고, 서쪽에는 석사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손행자는 몸을 휙 날려 서쪽으로 굴러가더니, 혀끝을 깨물어 피를 내어 석사자에게 한 입 훑 내뿜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석사자가 손행자의 본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치 손행자가 묶여 있는 것처럼 몸을 한 덩어리로 뽕뽕 묶었다. 그사이 손행자는 자신의 원신(참된 정신)을 뽑아내어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가, 아래에 있는 도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어린 동자가 달려와 보고했다. "스승님, 기름술이 아주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그러자 진원대선이 명령했다. "손행자를 메고 가서 저술에 넣어라." 네 명의 동자가 들러 해도 움직이지 않았고, 여덟 명이 와도 들리지 않았으며, 네 명을 더 보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경하던 다른 동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원승이는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아주 단단하구나. 덩치는 작아도 정말 실하네." 결국 스무 명의 동자가 달라붙어 겨우 손행자를 어깨에 메고 솔 안으로 뚫다 던져 넣었다. 그러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그 바람에 어린 동자들의 얼굴에는 뜨거운 기름에 데인 물집이 여기저기 잡혔다. 그때 불을 지피던 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솔에 구멍이 났어요! 솔이 깨졌어요!" 순식간에 기름이 다 새어 나가 솔 바닥이 깨지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석사자가 들어 있었다.

진원대선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 놈이 정말 무례하구나! 내 눈앞에서 수작을 부리다니. 그냥 도망갔으면 몰라도, 어찌 감히 내 부엌까지 헤집어 놓는단 말이나? 저 고약한 원숭이 놈은 붙잡으려 해도 도무지 잡히질 않으니, 설령 잡는다 한들 모래를 뭉치거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한 짓이 될 게다. 됐다, 됐어. 그냥 가게 내 버려 두자꾸나. 대신 저 당승을 붙들어 매고 새 솔을 가져와서, 저놈을 꿰뚫어 인삼나무의 원수를 갚아주도록 하자!"

그러자 두 동자가 곧장 움직여서, 옷칠을 벗겨내고 묶을 준비를 시작했다.

손행자는 공중에서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이 큰일 났다. 저 기름 솔에 들어가서 한 번 끓으면 죽을 것이고, 두 번 끓으면 타버릴 테니, 서너 번 더 끓다가는 스승님이 형체도 없이 몽개져 버리겠구나. 내가 가서 구해야겠다.'

위대한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아 깎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스승님을 묶은 옷칠이 벗겨지면 안 되니, 스승님을 매질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기름 솥에 넣어 주십시오."

진원대선이 깜짝 놀라 욕을 퍼부었다. "이 원숭이 녀석이! 감히 무슨 수작을 부려 내 부엌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를 만났으니 부엌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당신의 기름 솥에서 기름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다만, 급히 불일이 급한데 솥 안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당신의 깨끗한 기름이 더러워져서 요리를 망칠까 봐 걱정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불일도 다 보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솥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스승님은 건드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진원대선은 그 말을 듣고 허허거리며 냉소를 지으며 전각 밖으로 걸어 나와 손오공을 덥석 붙잡았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6회 — 손오공이 세 섬을 돌며 비방 을 구하고, 관세음보살의 감로수가 마른 나무를 살리다

孫悟空三島求方 觀世音甘泉活樹

시로 이르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속에 '참을 인(忍)' 자를 품을 것을 잊지 말고, 몸을 닦을 때는 늘 '견딜 내(耐)' 자를 마음에 새겨 두라. 흔히 이르기를 '인(忍)' 자야말로 살아가는 길이라 하니, 세 번 거듭 생각하여 분노와 속임수를 경계하라. 높은 선비는 다투지 않아 그 이름 만고에 전하고, 성인은 덕을 품어 그 시대에 도를 이어가나니, 강한 자 위에 또 더 강한 자가 있는 법, 끝내 그 모든 다툼은 헛됨과 그릇됨으로 돌아가리라.

한편, 진원대선이 손오공을 손으로 붙잡으며 말했다. "자네의 재주가 대단하고 이름이 높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가 도리를 어기고 마음을 속였으니, 아무리 신통력을 부린다 해도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야. 설령 자네가 서천까지 도망쳐서 부처님을 만난다 해도, 인삼과 나무를 돌려줘야 할 것은 변함이 없네. 그러니 괜한 신통력은 부리지 말게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이구, 선인님도 참 속이 좁으시네요. 나무를 다시 살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진작 이렇게 말씀 하셨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진원대선이 대답했다. "싸우지 않겠다면, 내 기꺼이 자네를 너그럽게 봐주겠네!"

손오공이 제안했다. "그럼 우리 스승님을 풀어주시면, 제가 살아있는 나무로 다시 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원대선이 말했다. "만약 자네에게 그런 신통력이 있어서 나무를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자네와 여덟 번 절을 올리며 정식으로 형제의 의를 맺겠네."

손오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일단 저분들을 풀어주십시오. 이 손오공이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진원대선은 손오공이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 믿고,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형님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무슨 짓이라니, 이건 ‘면전에서 체면을 차리는 귀신’ 같은 수법이야. 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나 있겠어? 겉으로 는 나무를 고쳐주겠다고 생색만 내면서, 사실은 우리를 풀어줘서 도망 칠 궁리만 하는 거라고. 우리 걱정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야.”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가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선 어디로 가서 약을 구할 수 있을지 물어보자.” 그러고는 손오공을 불렀다. “오공아, 네가 어떻게 신선님을 달래서 우리를 풀어주게 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무슨 달랜다는 말씀이십니까?”

삼장법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너는 어디로 가서 방도를 찾아오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옛말에 ‘방도는 바다 건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양대해로 나가 세 섬과 열 개의 대륙을 두루 다니며, 신선 어른들을 찾아뵙고 죽은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비법을 구해 오겠습니다. 반드시 그 나무를 살려내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답했다. “딱 사흘이면 됩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네 말대로 하마. 딱 사흘의 기한을 주겠다. 사흘 안에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 주문을 외울 것이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오공은 급히 호랑이 가죽 치마를 챙겨 입고는, 대선을 향해 문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선생님, 안심하고 기다리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제 스승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합니다. 매일 세 번의 차와 여섯 번의 식사를 거르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이 손오공이 돌아와서 당신과 반드시 따질 것이니, 그땐 당신의 솔바닥부터 엎어버릴 줄 아십시오!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빨아 드리고, 열굴빛이 조금이라도 누렇게 뜨는 꼴은 못 봅니다. 혹여나 스승님이 수척해지기라도 한다면, 저는 아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진원대선이 말했다.

"어서 가보게, 어서 가보게나. 스승님이 배고프신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네."

장하구나, 미후왕이로다! 손오공은 서둘러 근두운을 타고 오장관을 떠나 곧장 동양대해로 향했다. 공중을 가르는 기세가 번개처럼 빠르고 유성처럼 거침없으니, 순식간에 봉래선경에 도착했다. 구름을 멈추고 아래를 자세히 내려다보니, 참으로 신선들이 사는 명소다운 풍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신선들이 줄지어 사는 대지의 낙원이요, 봉래산은 파도 속에 신비롭게 솟아 있네. 옥대 위 그림자는 하늘 중심에 차갑게 잠겼고, 거대한 굴뚝의 빛은 바다 위로 높이 떠 있구나. 다섯 빛깔 노을은 신령한 피리 소리를 머금었고, 아홉 하늘의 별과 달은 황금 거북을 비추네. 서쪽 못의 왕모가 자주 이곳을 찾아와, 세 신선에게 복숭아를 바치며 축복을 내리도다.

손오공은 신선들의 풍경을 다 구경하지도 못한 채 곧장 봉래로 들어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백운동 밖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인 세 명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구경하는 이는 수성이었고, 바둑을 두는 이는 복성과 녹성이었다. 손오공이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형님들, 인사 올립니다!"

세 신선은 손오공을 보고 바둑판을 밀어 치우며 답례했다.

"대성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손오공이 말했다.

"그저 형님들과 좀 놀려고 왔지요."

그러자 수성이 말했다.

"듣기로 대성께서는 도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여, 목숨을 걸고 당승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신다던데, 매일같이 산길을

달리며 분주히 움직이신다면서요? 대체 언제 한가해져서 놀러 오신단 말이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쪽으로 가던 길에 중간에 좀 막히는 일이 생겨서,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성이 물었다.

"어느 곳이길래 그러하오? 무엇 때문에 막힌 것인지 자세히 말해주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소."

손오공이 말했다.

"만수산 오장관을 지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노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장관은 진원대선의 신선 궁궐이 아니오! 설마 그 인삼과를 몰래 따 먹기라도 한 것이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걸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노인이 꾸짖듯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 열매는 냄새만 맡아도 삼백육십 년을 살고, 하나를 다 먹으면 사만 칠천 년을 산다네. 이른바 '만수초환단'이라 불리는 것이지. 우리의 도력은 그 열매만 못하단 말 일세. 그는 그 열매를 아주 쉽게 얻어 하늘과 맛먹는 수명을 누리지만, 우리는 정기를 기르고 기를 다스리며 정신을 보존하고, 몸 안의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지 아는가? 그런데 네가 감히 그 열매가 대수냐고 말하다니! 천하에 그런 영험한 뿌리는 그것뿐 이라네."

손오공이 말했다.

"영험한 뿌리라니요, 제가 이미 그 뿌리를 아주 통째로 뽑아버렸는 걸요."

세 노인이 경악하며 물었다.

"어찌 뿌리를 뽑았단 말ियो?"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가 엿그제 그곳에 갔을 때, 대선은 집에 없고 동자 둘뿐이라 우리 스승님을 맞이하며 인삼과 두 알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갓난아기 같다고 하시며 몇 번이나 먹기를 거절하셨지요. 그러자 동자가 그것을 가져가 먹어버렸고, 저희에게는 한 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세 알을 훔쳐와 우리 형제 셋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동자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앞뒤로 쫓아오며 욕설을 퍼부어대더군요. 참다못한 제가 나무를 몽둥이로 한 대 쳤더니, 나무가 땅에 쓰러지면서 열매는 다 떨어지고 가지와 잎은 꺾여 뿌리까지 상해버려 말라 죽고 말

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자가 저희를 가두기까지 하기에, 제가 빗장을 풀고 도망쳐 나왔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대선이 집에 돌아와 상황을 묻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자 결국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매를 획 펼치더니 저희를 통째로 휘감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밧줄로 묶고 채찍질하며 하루 종일 저희를 고문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도망쳤지만 그분이 다시 쫓아와 또다시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그저 주미(塵尾, 사슴 꼬리로 만든 총채)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의 무기 세 자루로도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다시 손을 써서 스승님과 두 사제는 천으로 싸서 묶어버리고, 저만 기름 솥에 넣으려 했습니다. 제가 탈출하는 재주를 부려 도망치면서 솥까지 깨뜨려 버렸지요. 저를 잡지 못하자 그분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좋게 말하기를, 스승님과 사제들을 풀어주면 제가 나무를 치료해서 살려놓겠으니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약방문은 바다에서 온다'는 말을 떠올려, 신선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며 세 분의 형제님을 찾아뵙는 중입니다. 혹시 나무를 살릴 방도를 아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서둘러 당승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삼성(복성, 녹성, 수성)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답답해하며 생각했다. '이 원승이 녀석, 사람을 전혀 몰라보는구나. 저 진원대선은 지선(地仙, 땅의 신선)의 조상이고, 우리도 신선의 종가인데, 네가 비록 천선(天仙)이 되었다 한들 아직 태을(太乙)의 흠어진 기운에 머무를 뿐 진짜 신선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으니, 네가 어떻게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겠느냐? 만약 대성께서 짐승이나 새, 벌레 같은 것들을 죽였다면 우리가 가진 서미(黍米, 기장쌀)만 한 영단으로 살려낼 수 있겠지만, 저

인삼과는 신령한 나무의 뿌리인데 어찌 치료한단 말이나?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손오공은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았다. 그러자 복성이 말했다. "대성, 이곳에 방법이 없다면 다른 곳에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리 번뇌에 빠지십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법이 없다면 다른 곳을 찾아가면 그만이지요. 세상 끝까지 돌아다니고 서른여섯 하늘을 다 뒤져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만 우리 당승 스승님이 법도가 엄하고 도량이 좁으셔서, 내게 딱 사흘의 기한만 주셨거든요.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무서운 긴고주(緊箍咒, 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울 것이 뻔합니다."

삼성은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 만약 그 주문이 그대를 구속하지만 않았어도, 그대는 벌써 하늘을 뚫고 올라갔을 테니까요." 수성이 덧붙였다. "대성, 안심하십시오. 너무 번뇌하지 마시고요. 저 진원대선이 비록 우리보다 윗세대라고는 하나, 우리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인사가 늦은 탓도 있고, 또 대성의 체면도 있으니,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를 한번 뵙고 대성의 사정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승 스님이 긴고주를 외우지 못하게 할 테니, 사흘이든 닷새든 걱정할 것 없이 대성이 방법을 구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 형님, 부디 길을 나서 주십시오. 저도 가보겠습니다." 대성은 삼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는데, 삼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둔다.

한편, 삼성은 상서로운 빛을 타고 즉시 오장관으로 향했다. 오장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 알고 보니 세 신선이 강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상서로운 빛이 하늘 가득 아늑하게 모여들고, 은하수 사이로 향기로운 내음이 분분히 퍼져 나간다. 천 갈래 채색 안개가 선녀의 옷자락을 감싸고, 한 조각 가벼운 구름이 신선의 발을 받들고 있구나. 청란과 단봉이 날아오르니 소매 끝에서 풍기는 향기가 땅 위로 가득하다. 용이 새겨진 지팡이를 짚고 기쁘게 웃는 모습에, 하얀 수염은 옥처럼 빛나며 가슴께를 스치네. 아이 같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여 근심이 없고, 늙름한 체구와 위엄은 복스러움이 넘친다. 산가지로 운명을 점치고 해와 바다를 채울 복을 더하며, 허리에는 호로와 보록을 차고 있구나. 만세월 긴 복락을 누리며 영생할 것이니, 십주삼도(十洲三島)의 신선들과 인연 닿는 대로 머물리라. 늘 세상에 내려와 온갖 상서로움을 전하고, 인간 세상에 백 가지 복을 더해주는구나. 천지를 다스려 영광과 복록을 누리니, 끝없는 복과 장수를 오늘 기쁘게 얻었도다. 세 신선이 상서로운 빛을 타고 대선을 뵈러 오니, 복된 전각에 화목한 기운이 끝이 없구나.

신선 아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급히 보고했다. "스승님, 바다 위에서 삼성(三星)이 오셨습니다!"

진원대선은 마침 당승과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보고를 듣자마자 계단을 내려와 정중히 맞이했다. 이를 본 저팔계는 수성을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붙잡으며 웃으며 말했다. "이 살덩이 노인네야,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히 풍채가 좋으시구려. 그런데 모자는 왜

안 쓰고 오셨소?" 그러더니 제 머리에 쓰고 있던 승려 모자를 획 벗어 수성의 머리에 씌워주고는 손뼉을 치며 허허 웃어댔다. "좋다, 좋아, 좋아! 그야말로 '관을 쓰고 복을 누린다'는 말이 딱 맞구려!"

수성은 그 모자를 내동댕이치며 욕을 했다. "이 무지몽매한 녀석 같으니,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저팔계가 대꾸했다. "내가 무지몽매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종놈들이구려."

그러자 복성이 말했다. "네놈이야말로 무지몽매한 놈이면서, 감히 남을 종놈이라 욕하느냐?"

저팔계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남의 종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수명을 늘려주는 분', '복을 더해주는 분', '녹봉을 높여주는 분'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삼장법사가 저팔계를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세 신선에게 절을 올렸다.

세 신선은 후배로서 예우를 갖추어 대선을 뵈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녹성이 말했다.

"그동안 대선을 뵈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점 너그ერი 용서하십시오. 이번에 손오공이 신선들이 사는 산을 어지럽혔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선이 물었다.

"손오공이 봉래까지 왔단 말인가?"

수성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대선의 단수(丹樹, 신령한 나무)를 상하게 하는 바람에, 그 나무를 고칠 방도를 찾으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어 그는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만, 성스러운 스님과의 약속한 사흘의 기한을 넘길까 봐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께 예를 갖추어 뵙는 동시에,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 청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결코 주문을 외우지 않겠습니다. 절대 외우지 않겠습니다."

한편, 저팔계가 또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복성을 붙잡고는 먹을 과일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저팔계는 복성의 소매 안을 마구 뒤지고 허리춤을 살살이 파헤치며, 끊임없이 그의 옷자락을 들춰보며 뒤졌다. 이를 본 삼장법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팔계야, 대체 예의가 무엇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곳곳마다 복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요.”

삼장법사가 다시 나가라고 꾸짖었다. 저팔계는 문밖으로 나서면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복성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복성이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토록 나를 미워하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돌아서서도 복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요.”

그 어리석은 녀석이 문밖으로 나오니, 마침 한 동자가 찻잔을 확인하려 네 개의 찻순가락을 들고 종을 찾으러 가던 참이었다. 저팔계는 동자의 손에서 순가락을 낚아채더니 전각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작은 경을 집어 들고는 손으로 마구 두드리고 치며 장난을 쳐댔다. 진원대선이 말했다.

“저 스님이 갈수록 예의가 없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사계절 내내 경사스럽다’는 뜻입니다요.”

한편, 저팔계가 억지스러운 말로 때를 쓰며 늘어지는 이야기는 차치하고, 손오공이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봉래를 떠나 다시 방장산의 신선 이 사는 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산은 참으로 경치 좋은 곳이었는데, 시로 그 풍경을 증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방장산 웅장하니 이곳은 별천지로다, 태원궁 깊은 곳에 신선들이 모여 사네. 자색 대 위로 빛은 삼청의 길을 비추고, 꽃과 나무 향기는 오색 안개 되어 떠도네. 금빛 봉황은 꽃이 만발한 궁궐에 절로 모여들고, 옥 같은 이슬은 누가 다투어 지초밭에 적셔주나. 푸른 복숭아와 자줏빛 오얏이 새로이 익어가니, 신선들의 삶은 다시 만 년의 세월을 이어가리라.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주변 풍경을 구경할 생각도 없이 부지런히 길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바람이 풍겨오고 신령스러운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어느 벽 너머에 신선 한 명이 있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이려하였다.

하늘 가득 만 갈래 무지갯빛 노을이 피어나고, 채색 안개가 너울거리며 빛이 끊이지 않는다. 붉은 봉황은 꽃을 물어와 더욱 선명하고, 푸른 난새는 춤을 추며 고운 소리를 내는구나. 붉은 동해처럼 넘치고 수명은 산처럼 길며, 모습은 어린아이 같으나 몸은 건장하도다. 호리병 속에는 무릉도원의 불로장생 금단이 숨겨져 있고, 허리에는 해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주문이 걸려 있네. 인간 세상에 여러 차례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주었고, 세상의 재앙을 없애달라는 염원을 여러 번 들어주었도다. 무제(武帝)가 일찍이 수명을 늘려달라 청하기도 했고, 요지 연회에 참석하여 반도(복숭아)를 먹기도 했네. 중생들을 가르쳐 속세의 인연에서 벗어나게 하고, 번갯불처럼 밝은 큰 도의 길을 열어주었도다. 바다를 건너 천년의 안녕을 빌어주기도 했고, 영산에 들러 부처님을 뵈

기도 하였네. 성스러운 이름은 동화대제(東華大帝)시니, 구름과 안개 사이에서 으뜸가는 신선이로다.

손오공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마중 나가 외쳤다. "제군, 어서 들어오 시지요."

그러자 제군이 황급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 제가 미처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초라한 곳에서 차라도 한잔 드시지요." 그러고는 손오공과 손을 맞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그곳은 신선들이 사는 궁궐로, 요지나 경각처럼 아름다운 누각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차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푸른 병풍 뒤에서 동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아이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도포는 노을처럼 빛나며 휘날리고 허리에는 비단 띠를 둘러 빛이 찬란하구나. 머리에는 별을 수놓은 관을 쓰고 발에는 신선이 산을 넘을 때 신는 짚신을 신었네. 참된 정신을 닦아 본래의 꺾데기를 벗어던지니 공력을 다 쌓은 뒤라 마음껏 즐기는구나. 만물의 근원인 정기와 신을 꿰뚫어 보니 주인이 알아보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네.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무병장수를 누리니 육십갑자가 돌아가도 그 끝을 알 길 없구나. 회랑을 돌고 보물 누각에 오르니 천상의 반도(복숭아)를 세 번이나 만져보았네. 푸른 병풍 사이로 아련한 향구름이 피어나니 이 어린 신선은 바로 동방삭이라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도둑놈이 여기 있구나! 제군께서는 복숭아가 없으니 네가 몰래 먹어 치우려 하는구나!" 그러

자 동방삭이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맞받아쳤다. "이 늙은 도둑놈아, 네가 여기는 어떤 일이나? 우리 스승님께는 금단(불로장생의 단약)이 없으니 네가 몰래 먹어 치우려 하는구나."

제군이 말했다. "만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차가 왔으니 어서 받아라."

만천은 본래 동방삭의 도호였다.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찻잔 두 개를 가지고 나왔다. 차를 다 마시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인데,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군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기꺼이 들어줍세."

손오공이 대답했다. "최근에 삼장법사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는 길에 만수산 오장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어린 동자가 버릇이 없기에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인삼과 나무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길이 막혀 스승님께서 몸을 피하지 못하고 계시니, 부디 이곳에 와서 나무를 살릴 방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너 그러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군이 꾸짖듯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사고만 치는구나! 오장관의 진원대선은 성함이 세상의 군주와 나란히 할 만큼 높으신 분이며, 지선(地仙, 땅의 신선)들의 조상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그분을 건드렸단 말이나? 그분의 인삼과 나무는 '초환단(草還丹, 풀이 다시 살아나는 단약)'과 같은 것인데, 네가 그것을 훔쳐 먹은 것만으로도 죄가 될 터인데, 나무까지 쓰러뜨렸으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겨우 도망치긴 했지만, 만약 그분께 붙잡혔다면 저희를 수건 취급하며 소매 하나로 싹 쓸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피해온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무를 살릴 방도를 구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군이 말했다. "나에게 '구전태을환단(九轉太乙還丹)'이라는 알약이 하나 있다. 이것은 세상의 생령을 고칠 수는 있으나, 나무를 치료할 수는 없다. 나무는 흙과 나무의 영물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만약 세상의 평범한 과일 나무라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이곳 만수산은 태초부터 복이 깃든 복지이고 오장관은 신선이 머무는 동천이다. 게다가 인삼과는 하늘과 땅이 열릴 때부터 생긴 영험한 뿌리이니, 이를 어찌 고친단 말이나.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손오공이 말했다. "방법이 없다니,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동화제군은 여전히 손오공에게 옥액(玉液, 신선들이 마시는 귀한 음료)을 한 잔 대접하며 머물기를 권했으나, 손오공이 말했다.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영주의 섬으로 향했다. 그곳은 참으로 신비로운 곳이었다. 시로 그 풍경을 증명하노라.

시로 이르되,

보석 같은 나무는 영롱하게 자줏빛 안개를 비추고 영주의 궁궐은 하늘에 맞닿아 있네. 푸른 산과 맑은 물에는 기이한 꽃들이 화사하게 피었고 옥액은 그릇에 가득 담겨 철석처럼 단단히 굳었구나. 오색 빛깔

푸른 맑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향해 울고 천 년 묵은 붉은 봉황은 붉은 안개를 띄켜네. 세상 사람들은 항아리 속의 신비로운 풍경을 알지 못하니 그 형상 너머의 봄빛은 영겁의 세월 동안 이어지리라.

손오공이 영주에 이르니, 단애와 구슬 같은 나무가 늘어선 아래에서 머리는 하얗고 수염은 긴 노인들과, 얼굴은 아이처럼 뽀얗고 귀밑머리는 학의 귀처럼 고운 신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상서로운 구름은 빛을 가득 머금고, 길한 안개는 향기를 풍기네. 채색 난새는 동굴 입구에서 울고, 검은 학은 산등성이에서 춤추네. 푸른 연꽃과 복숭아는 술안주가 되고, 배와 대추는 천 년의 장수를 비네. 이름 없는 신선들이 도를 닦으며, 신선의 부적은 명부에 기록되어 있네. 물결 따라 유유자적 노닐며, 맑고 그윽한 정취에 몸을 맡기네. 천 년의 세월도 이들을 묶지 못하고, 천지의 운행도 오직 자유롭기만 하네. 신비로운 원숭이는 과일을 바치며 짝을 지어 사랑을 나누고, 흰 사슴은 꽃을 물고 짝을 지어 다정하게 엮드려 있네.

신선들이 한창 즐겁게 노닐고 있을 때였다. 손오공이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다. "나도 좀 끼워줘! 나랑 좀 놀아보자고!" 그 소리에 신선들은 깜짝 놀라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며 손오공을 맞이하러 나왔다.

시로 이르되, 인삼과 나무의 영험한 뿌리 꺾였으니 대성(손오공)은 신선을 찾아 묘책을 구하네. 보배로운 숲에 단하의 노을이 감도는데 영주의 아홉 신선이 마중을 나오네.

손오공은 그들이 영주의 아홉 신선임을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형님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그러자 구로들이 대답했다. "대성께서 예전에 마음을 바르게 먹고 천계를 어지럽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떠났다는 소문까지 들리던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소?" 손오공은 나무를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하는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구로들도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이지 사고를 쳐도 너무 크게 쳤구려! 우리로서도 정말 방법이 없소."

손오공이 말했다. "방법이 없다니,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로들은 손오공에게 옥액(신선들이 마시는 술)과 푸른 연꽃 뿌리를 더 권하며 머물기를 청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도저히 앉아 있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저 서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연꽃 한 조각을 먹은 뒤 서둘러 영주를 떠나 곧장 동양대해로 향했다. 멀리서 낙가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가 보타암에 이르렀다. 그곳 자죽림에서는 관음보살이 여러 천신과 목타, 용녀에게 불법을 설하고 있었다.

시로 이르되,

바다 위 성곽 높고 상서로운 기운 짙으니 기이한 일들이 끝없이 펼쳐지는구나. 천 갈래 만 갈래 숨겨진 이치도 알고 보면 희미한 한 줄기 진리 속에 다 들어있네. 네 성인이 법을 전해 깨달음을 얻고 여섯 범인이 그 말을 듣고 속세의 굴레를 벗네. 소림의 법문은 참된 맛이 깊고 꽃과 과일 향기는 붉은 나무에 가득하구나.

관음보살은 이미 손오공이 오는 것을 보고, 산을 지키는 신선에게 마중 나가라고 명했다. 신선이 숲에서 나오며 소리쳤다. "손오공, 어디로 가는 길이야?"

손오공이 고개를 들고 호통을 쳤다. "이 곰탱이 같은 놈아, 감히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예전에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흑풍산의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보살님을 모시고 선한 과보를 얻어 이 신선들이 사는 산에서 살며 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나를 '상전님'이라 부르지는 못할망정 어찌 그따위로 부르느냐?"

그 흑곰은 정말로 정당한 과보를 얻어 보타락가산에서 보살을 지키는 신선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손오공 덕분이었다. 흑곰은 어쩔 수 없이 웃으며 달렸다. "대성님, 옛말에 '군자는 지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만두시고, 보살님께서 마중 나오라고 하셨으니 어서 가지지요."

그제야 손오공은 태도를 바로잡고 정중하게 행동하며, 신선을 따라 죽죽림으로 들어가 보살에게 절을 올렸다.

관음보살이 물었다. "손오공아, 당승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서우하주 만수산까지 왔습니다."

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 만수산에 오장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가 진원대선을 만난 적이 있느냐?"

손오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오장관에서 제가 진원대선을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의 인삼과 나무를 망가뜨리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스승님을 붙잡아 두시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사정을 짐의하고 꾸짖듯 말했다. "이 철없는 원숭이 녀석아, 네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인삼과 나무는 천지가 개벽할 때부터 존재해 온 영험한 뿌리란 말이다. 진원대선은 지선(地仙, 땅의 신선)의 조상이라 나조차 그를 존중하여 예우를 갖추는데, 네가 어찌 감히 그 나무를 상하게 했느냐?"

손오공이 다시 절하며 말했다. "제자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날 진원대선은 집에 계시지 않고 신선 아이 둘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팔계가 그곳에 과일이 있다는 걸 알고 맛을 좀 보자며 떼를 쓰는 바람에, 제가 몰래 인삼과 세 개를 훔쳐서 형제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를 알아채고 저희를 마구 욕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그 나무를 밀어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진원대선이 저희를 붙잡아 소매로 몽땅 가두더니, 줄로 묶고 채찍질하며 하루 종일 고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 겨우 도망쳤지만 다시 붙잡혔고, 몇 번을 반복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시 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다로 나가 방법을 찾아 세 섬을 살살이 돌아다녔지만 어떤 신선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보살님께 절하며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방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스승님이 하루빨리 서쪽으로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어찌하여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고, 엉뚱한 섬들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맸느냐?"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생각했다. ‘아싸, 살았다! 살았어! 보살님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다시 앞으로 나서서 간절히 부탁했다. 보살이 말했다. “내 정병에 든 이 감로수는 신령한 나무와 영험한 싹을 다스리는 데 아주 뛰어나단다.” 손오공이 물었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이미 경험한 적이 있지.”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경험입니까?” 보살이 말했다. “옛날에 태상노군이 나와 내기를 한 적이 있었단다. 그가 내 버드나무 가지를 뽑아다가 연단로에 넣어 바싹 태워버린 뒤 내게 가져왔지.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정병에 꽂아 하루 낮 밤을 지내게 했더니, 다시 예전처럼 푸른 잎과 가지가 돋아나더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바싹 타버린 것도 살려내셨는데, 하물며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살리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보살이 제자들에게 분부했다. “너희는 숲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내가 잠시 다녀오마.” 보살은 정병을 손에 받쳐 들고 나아갔다. 흰 앵무새가 앞장서서 재잘재잘 노래하며 날아가자, 손오공도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시로 그 모습을 읊자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금빛 형상과 옥 같은 자태는 세상에서 논하기 어려우니
자비로 고통을 구제하는 존귀한 분이시로다. 지난 겁에서는 깨끗한
부처를 만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덕을 쌓은 몸을 이루셨네. 몇 생
동안 욕망의 바다를 맑게 씻어내어 마음의 밭에는 티끌 하나 남지 않았

도다. 오랜 세월 오묘한 법을 닦은 감로수이니 보배로운 나무가 영원히
봄을 누리게 하리라.

한편, 오장관의 대선과 세 신선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
자기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외쳤다. “보살님이 오셨다! 어서
마중 나가자, 어서!” 그 소리에 당황한 삼성과 진원대선, 그리고 삼장
법사 일행은 모두 보물 전각을 향해 급히 달려 나갔다. 관음보살은 상
서로운 구름 위에 멈춰 서서 먼저 진원대선과 인사를 나누고, 이어 삼
성에게도 예를 갖추는 뒤 자리에 앉았다. 계단 앞에서는 손오공이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을 이끌고 절을 올렸고, 관에 머물던 다른 신선들도 모
두 나와 보살을 뵈고 예를 표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대선께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서 향기로운
상을 차려 보살님을 모시고, 그 과일나무를 살릴 방도를 여쭙어야 합니
다.”

진원대선이 몸을 굽혀 보살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저의 하찮은 일
때문에 어찌 보살님을 이토록 번거롭게 모셨겠습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당승은 나의 제자이니, 손오공이 선생의 보물을
망가뜨렸다면 마땅히 그 보물을 되살려 놓아야 할 것이오.”

세 신선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 사양할 것 없습니다. 보살님, 어서
정원으로 가셔서 나무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원대선은 즉시 향안을 차리고 후원을 깨끗이 청소하게 한 뒤, 보
살을 먼저 모시고 세 명의 신선을 그 뒤로 따르게 했다. 삼장법사 일행

도 진원대선을 따라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는 이미 땅에 쓰러져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잎은 떨어지고 가지는 말라 있었다.

보살이 말했다. "손오공, 손을 내밀어라."

손오공이 왼손을 펼치자, 보살은 버드나무 가지를 정병 속의 감로수에 적셔 손오공의 손바닥에 죽은 것도 살려낸다는 부적의 글자를 그려 주었다. 그러고는 그 글자를 나무뿌리 아래에 두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적당히 조절하라고 일렀다. 손오공이 주먹을 쥐고 나무뿌리 밑으로 손을 밀어 넣자, 잠시 후 맑은 샘물이 한 움큼 솟아올랐다.

보살이 말했다. "그 물을 담을 때 오행(다섯 가지 성질)을 가진 그릇을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옥국자로 물을 떠서 나무를 바로 세운 뒤, 머리부터 물을 부어주어라. 그러면 자연히 뿌리와 껍질이 맞물리고, 잎이 자라며 가지가 푸르러지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손오공이 외쳤다. "얘들아, 어서 옥국자를 가져오너라!"

진원대선이 말했다. "이 빈도(도사)의 황량한 산에는 옥국자는 없고 옥 찻잔과 옥 술잔뿐인데, 그것을 써도 되겠습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옥으로 만든 것이라면 괜찮다. 다만 물을 떠낼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가져와서 보게 하라."

진원대선이 즉시 어린 동자들에게 명하여 찻잔 스무서른 개와 술잔 마흔댓 개를 가져오게 한 뒤, 뿌리 밑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떠내 게 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나무를 짊어지고 들어 올려 똑바

로 세운 뒤 흙을 돋우었다. 그리고 나서 옥그릇에 담긴 감로수를 한 그릇 한 그릇 보살에게 받들어 올렸다. 보살은 버드나무 가지로 물을 세심히 뿌리며 입으로는 경전과 주문을 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뿌리에 뿌린 물이 다 마르자, 나무는 과연 예전처럼 푸른 잎이 무성해졌고 그 위에는 스물세 개의 인삼과가 맺혀 있었다. 청풍과 명월, 두 동자가 말했다. "며칠 전 열매가 사라졌을 때는 거꾸로 세어봐도 스물두 개뿐이었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니 어찌 열매가 하나 더 늘었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지내봐야 아는 법이지요. 며칠 전 이 손오공이 열매를 세 개 훔쳤을 때, 하나가 땅에 떨어지자 토지신이 말하기를 '이 보물은 땅에 닿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팔계는 제가 잘못 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지금까지 일이 꼬였는데, 이제야 명확해졌군요."

보살이 말했다. "내가 방금 오행의 그릇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물건이 오행의 성질을 가진 물건들을 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원대선은 매우 기뻐하며 급히 금으로 만든 망치를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 인삼과 열 개를 툭툭 두드려 따낸 뒤, 관음보살과 세 신선을 보전으로 다시 모셔 갔다. 한편으로는 수고해주신 보살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삼과회를 열기 위함이었다.

여러 소선이 서둘러 탁자와 의자를 옮기고 정갈한 상을 차렸다. 관음보살을 상석에 모시고, 세 신선은 왼쪽 자리에, 당승은 오른쪽 자리

에 앉혔으며, 진원대선은 앞자리에서 정성껏 모시며 다 함께 인삼과를 하나씩 나누어 먹었다. 이를 두고 시로 이르되,

만수산 깊은 곳에 신선이 사는 동천북지가 있으니, 인삼과 한 번 익는 데 구천 년이 걸린다네. 영험한 뿌리 드러나 가지와 잎 상했으나, 감로수 적셔주니 과실과 잎이 다시 온전하구나. 세 신선은 옛 인연으로 기쁘게 만났고, 네 승려 또한 전생의 인연으로 다행히 만났으니, 이제부터 인삼과를 나누어 먹는 이들은, 모두가 장생불사할 신선이 되리라.

이때 관음보살과 세 신선이 각각 인삼과를 하나씩 먹었다. 삼장법사도 그것이 신선의 보물임을 알고 하나를 먹었고, 손오공 일행 세 사람도 각각 하나씩 먹었으며, 진원대선도 곁에서 하나를 먹고 오장관의 신선들도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

손오공은 관음보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보타암으로 돌아갔고, 삼성(복성, 녹성, 수성)을 배웅하며 봉래도로 향했다. 진원대선은 다시 채소와 술을 정성껏 차려 손오공과 의형제를 맺었다. 싸우고 나서야 서로를 알게 되어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된 셈이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날이 저물자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그때 시로 이르되,

"인연이 있어 영약인 인삼과를 먹었으나, 긴 수명 동안 요괴의 괴롭힘을 견뎌야 하네."

결국 내일 어떻게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7회 — 시마가 당삼장을 세 번 골탕 먹이고, 성승은 미후왕을 쫓아냄을 한스 러워하다

屍魔三戲唐三藏 聖僧恨逐美猴王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 일행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겨 길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진원자는 손오공과 형제의 의를 맺은 뒤 두 사람의 우애가 매우 깊어진 나머지, 도무지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원자는 정성껏 대접하며 머물기를 권했고, 결국 일행은 그곳에서 닷새나 엿새 동안 머물게 되었다. 그사이 삼장은 초환단(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신선들의 약)을 복용한 덕분에 마치 뼈를 깎고 몸을 새로 바꾼 듯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아주 맑아졌다. 하지만 삼장은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곳에 더 머물 수 없었고, 결국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길을 나섰다.

스승과 제자가 작별하고 길을 떠나자, 곧 높이 솟은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들아, 앞에 산세가 험준하니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이구나. 모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용맹한 손오공은 말 앞에서 여의봉을 어깨에 메고 산길을 헤치며 가파른 절벽 위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끝이 없었다.

시로 이르되,

봉우리와 바위는 겹겹이 쌓여 있고, 계곡과 골짜기는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네. 호랑이와 이리가 무리 지어 달리고, 노루와 사슴은 떼를 지어 지나가네. 수많은 노루와 고라니는 숲속을 파고들고, 온 산의 여우와 토끼는 웅기종기 모여 있구나. 천 척의 큰 이무기와 만 장의 긴 뱀이 있어, 큰 이무기는 시름겨운 안개를 내뿜고, 긴 뱀은 괴이한 바람을 토하네. 길가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엉켜 있고, 고개 위 소나무와 녹나무는 수려하구나. 덩굴 식물은 눈에 가득하고, 향긋한 풀밭은 하늘까지 이어져 있네. 그림자는 푸른 바다 북쪽에 드리워지고, 구름은 북두칠성 남쪽에서 걷히는구나. 만고에 늘 원기를 머금어 오래되었고, 수많은 봉우리는 우뚝 늘어서 햇빛 아래 차갑게 솟아 있네.

그 장로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오공은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철봉을 휘두르고는, 호랑이처럼 크게 포효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늑대와 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호랑이와 표범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 산에 들어서서 험준한 고갯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오늘 하루 종일 배가 고프구나. 네가 가

서 공양물 좀 얻어와라." 손오공이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도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 산중턱에 앞에는 마을도 없고 뒤에는 주막도 없는데,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사겠습니까? 대체 어디로 가서 공양물을 구하라는 말씀이세요?" 삼장은 마음이 상해 입을 놀리며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 네가 양계산에서 여래께 놀려 바위 아래 갇혀 있을 때를 생각해보아라. 말은 할 수 있어도 발은 움직이지 못하던 너를 내가 구해주고, 네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계를 주어 내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리 노력하지 않고 늘 게으름만 피우려 드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자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게으름을 피운다 하십니까?" 삼장이 다시 말했다. "네가 정성을 다한다면 어찌 나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지 않느냐? 내가 배가 고파서 어찌 길을 가겠느냐? 게다가 이곳은 산안개가 자욱하고 독한 기운이 가득한데, 이래서야 어떻게 뇌음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노여움을 풀고 말씀 좀 줄이십시오. 스승님의 성격이 워낙 높으셔서 제가 무례를 범하면 금방 그 주문을 외우시려는 걸 잘 압니다. 우선 말에서 내려 편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 공양물을 구해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몸을 훌쩍 날려 구름 위로 뛰어오르더니, 한 손을 이마에 차양처럼 갖다 대고 눈을 크게 뜨고 살폈다. 가련하게도 서천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적막하여 마을이나 민가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울창한 나무들만 가득할 뿐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한참을 살피던 중, 정남쪽 방향에 높은 산 하나가 보였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산등성이 쪽에 선명한 붉은 빛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손오공이 구름을 낮추어 내려오며 말했다.

"스승님,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삼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근처에는 밥을 얻어먹을 만한 마을이 없습니다. 저 남쪽에 붉은 것이 보이는데, 틀림없이 잘 익은 복숭아일 것입니다. 제가 가서 몇 개 따다 드릴 테니 허기를 달래십시오."

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출가한 몸이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락이 어디 있겠느냐."

손오공은 발우를 챙겨 들고는 상서로운 빛을 내뿜으며 솟구쳐 올랐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순식간에 남쪽 산으로 달려가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예부터 "산이 높으면 반드시 괴물이 있고, 고개가 험하면 반드시 정령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이 산에는 요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지나가다 그 요괴를 놀라게 하고 말았다. 요괴는 구름 위에서 음산한 바람을 타고 내려다보다가, 삼장이 땅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고, 운수도 좋지!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동토의 당승이 대승불교의 진리를 구하러 간다고 떠들썩하더니, 그가 바로 금선자의 화신이자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본체라지? 그를 잡아먹는 자는 장수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더니, 정말 오늘 그날이 왔구나!"

요괴가 삼장을 잡아먹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려 했으나, 삼장의 좌우에는 두 명의 장수가 호위하고 있어 감히 선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이 두 장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팔계와 사오정이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비록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저팔계는 천계의 천봉원수였고 사오정은 권렴대장이었으니 그 위엄이 아직 남아 있어 요괴가 함부로 덤비지 못한 것이다. 요괴가 말했다.

"일단 저자를 좀 골탕 먹여 보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요괴는 음산한 바람을 멈추고 산골짜기에서 몸을 흔들더니, 눈썹이 맑고 눈이 수려하며 치아는 하얗고 입술은 붉은, 꽃 같은 미모를 지닌 처녀로 변신했다. 처녀는 왼손에는 푸른 모래로 만든 향아리를, 오른손에는 초록빛 자기 병을 든 채,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곧장 삼장을 향해 달려갔다.

시로 이르되,

성스러운 승려가 바위 틈에서 말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치마를 입고 비녀를 꽂은 여인이 다가오네. 비취색 소매는 옥 같은 손목을 가볍게 흔들고, 비단 치마는 금련화 같은 발을 드러내며 사랑거리네. 땀방울 맺힌 뽀얀 얼굴은 이슬 머금은 꽃 같고, 먼지 묻은 눈썹은 안개 속에 가려진 버들가지 같구나. 자세히 눈을 뜨고 살펴보려 하니, 어느덧 여인이 곁에 다다랐네.

삼장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팔계야, 사오정아! 오공이 분명 이곳은 인가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기 좀 보아라, 사람이 한 명 걸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스님, 스님과 사오정은 여기 앉아 계세요. 이 저팔계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멍청한 놈은 갈퀴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더니, 비틀비틀 걸어 나오며 마치 점잖은 선비라도 된 양 낮간지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 영 아니었다. 그 여인의 생김새는 이러했다.

얼음처럼 하얀 피부에는 옥 같은 뼈대가 감춰져 있고, 옷깃 사이로는 풍만한 가슴이 살짝 드러났다. 버들잎 같은 눈썹은 짙은 초록빛을 머금었으며, 살구 같은 눈망울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달처럼 고운 자태는 참으로 예쁘고, 타고난 성품은 맑고 깨끗해 보였다. 몸매는 버드나무에 숨은 제비처럼 가냘프고, 목소리는 숲속에서 지저귀는 꿩소리 같았다. 새벽빛을 머금고 반쯤 피어난 해당화 같기도 하고, 봄날의 햇살 아래 막 꽃망울을 터뜨린 작약 같기도 했다.

저팔계는 그 여인이 워낙 곱상한 것을 보고는 멍청하게 마음이 홀랑 넘어가 버렸다. 그러고는 요괴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을 내뱉었다. "보살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에 들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분명 요괴였으나 저팔계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여인은 연신 대답했다. "스님, 이 푸른 단지에는 향긋한 쌀밥이 들었고, 초록 병에는 붉은 밀가루 음식이 들어있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왔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팔계는 기뻐

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돼지처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달려가 삼장에게 보고했다. "스님,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사형더러 공양을 구해 오라 하셨건만, 그 원숭이 녀석은 어디서 복숭아나 따 먹으며 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플 텐데 말이죠. 저기 좀 보세요, 공양을 올리러 온 분이 오지 않았습니까?" 삼장은 믿지 않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선한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했는데, 공양을 올리러 온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단 말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님, 바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삼장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물었다. "보살님, 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집안 인가요? 어찌하여 이곳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 하십니까?" 분명 요괴였으나, 삼장은 알아보지 못했다. 요괴는 삼장이 정체를 묻자 즉시 거짓된 마음을 품고 달콤한 말로 속이기 시작했다. "스님, 이 산은 뱀과 짐승조차 두려워하는 백호령이라고 합니다. 정서쪽 아래에 저희 집이 있지요. 부모님께서서는 집에 계시며, 경전을 읽고 선행을 쌓는 것을 좋아하셔서 근처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곤 하십니다. 다만 자식이 없어 신령님께 복을 빌었더니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문을 일으켜 다른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 했으나,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 결국 사위를 하나 들여 노후를 모시며 봉양하기로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장이 말했다. "보살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성현의 경전에 이르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멀리 떠나지 않으며, 떠나더라도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고

사위까지 두어 보살님의 정성이 깊다면, 사위에게 보답을 받으면 그만이지 어찌 혼자 산속을 다니겠습니까? 게다가 시중드는 아이 하나 없으니, 이는 여인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생글생글 웃으며 아양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스님, 제 남편은 산 북쪽 골짜기에서 일꾼 몇 명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한 점심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려던 것이예요. 마침 한여름이라 일손도 부족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제가 직접 가져오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 멀리서 오신 세 분 스님을 뵈게 되니, 부모님의 선한 마음을 담아 이 음식을 공양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십시오." 삼장이 말했다. "착하십니다, 착해요! 제 제자가 과일을 따러 갔으니 곧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음식을 먹었다가 남편이 알게 되어 보살님을 꾸짖는다면, 그 죄가 어찌 이 빈 스님에게까지 미치겠습니까?" 여인은 삼장이 먹기를 거절하자,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다. "스님, 저희 부모님이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 남편은 더욱 선한 사람입니다. 평생 다리를 놓고 길을 닦으며 노인과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 음식을 스님께 대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 부부의 정이 평소보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삼장은 끝내 먹지 않았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던 저팔계는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저팔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다. "천하에 스님들이 어디 한둘인가? 나처럼 이렇게 기운 없이 앉아 있는 노스님은 없을 거다. 눈앞에 차려진 밥을 두고는 세 숟가락도 안 뜨고, 꼭 저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숟가락을 채워 먹으려 드니 원." 저팔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코로 항아리를 툭 쳐서 넘어뜨리고는 곧장 먹어 치우려 했다.

그때, 손오공이 남산 꼭대기에서 복숭아 몇 개를 따서 발우에 담아 쟁쟁게 돌아왔다. 손오공은 눈을 부릅뜨고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으로 요괴를 꿰뚫어 보는神通력)으로 살펴보더니, 저 여인이 요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오공은 즉시 발우를 내려놓고 여의봉을 뿔아 들어 여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자 삼장이 손을 뻗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오공아, 대체 누구를 때리려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눈앞에 있는 저 여자를 절대 좋은 사람이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요괴예요. 스승님을 속이려고 온 거라고요!" 삼장이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아, 전에는 눈썰미가 좀 있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함부로 구느냐? 저 보살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공양을 대접하려 하시는데, 어찌 저 여자를 요괴라고 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수렴동에서 요괴 노릇을 할 때도 사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다 저런 식이었답니다. 금은보화로 변하거나, 화려한 잔칫상을 차리거나, 술에 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런 미인으로 변신했지요. 만약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에게 반하면, 그대로 동굴로 유인해서 제 마음대로 찢고 삶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못 먹으면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말려두기도 했지요. 스승님,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스승님은 분명 저 여자의 함정에 빠져 해를 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삼장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 속을 다 압니다. 저

여인의 미모를 보고 분명 마음이 흔들리셨지요? 만약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팔계에게 나무를 좀 베어 오라 하고 사오정에게 풀을 좀 구해 오라고 시키겠습니다. 제가 목수 노릇을 해서 여기다 잠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스승님은 저 여자와 합방하여 잘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흠어져도 아주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러 이 고생을 하며 멀리까지 가서 경전을 구하러 가시겠어요?"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삼장은 손오공의 이 짓궂은 농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삼장은 부끄러움에 대머리 귀끝까지 새빨갳게 달아올랐다.

삼장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손오공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 철봉을 휘두르며 요괴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그 괴물도 보통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요괴가 '해시법(시체를 가짜로 만드는 술법)'을 부려, 손오공의 몽둥이가 날아오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 몸을 피해 버린 것이다. 대신 땅바닥에 가짜 시체 하나를 때려 눕혀 놓았다.

이 광경을 본 삼장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염불을 외듯 말했다. "이 원숭이가 정말 무례하구나! 몇 번이나 말려도 듣지 않더니, 결국 아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다니!"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사오정이 삼장을 부축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곳에 향긋한 쌀밥이 들어있기는커녕 꼬리가 긴 구더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국수라

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보니 개구리와 두꺼비 몇 마리가 땅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제야 삼장은 겨우 삼 분 정도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저팔계가 옆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그는 화가 난 척하며 은근슬쩍 옆에서 팔 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간질을 시작했다. "스승님, 저 여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근처 농부의 딸입니다. 밭에 밥을 가져다주러 오다가 저희를 만난 것뿐인데, 어째서 요괴라고 하시는 겁니까? 형님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힘을 좀 써보겠다고 한 대 쳤을 뿐인데, 뜻밖에 사람을 때려죽여 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스승님이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실까 봐 겁이 나서, 눈속임을 하려고 일부러 이런 흉측한 것들로 변신시켜 스승님의 눈을 속인 모양입니다."

삼장이 이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불운이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삼장은 저 어리석은 저팔계의 부추김에 넘어가 손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주문 좀 그만 외워요, 제발!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로 해요!" 삼장이 꾸짖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단 말이냐? 출가한 몸이라면 늘 자비를 베풀고, 매 순간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거늘, 마당을 쓸 때도 개미나 벌레가 다칠까 조심하고 등불을 켤 때도 나방이 죽을까 걱정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매 걸음마다 살생을 저지르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려죽인단 말이냐? 이래서 경전을 구해서 무엇에 쓰겠느냐?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저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너를 더 이상 제자로 삼지 않겠다!" 삼장의 말에 손오공이 대꾸했다. "저를 제자로 삼지 않으신다면, 스승

님은 서천으로 가는 길을 끝내 마치지 못하실 겁니다." 삼장이 고집을
 피웠다. "내 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법이다. 요괴에게 잡혀 삶아 먹히
 게 된다 해도 그것 또한 내 운명이겠지. 네가 어찌 내 수명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제가 돌아가
 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스승님의 은혜를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마
 음에 걸릴 뿐입니다." 삼장이 되물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
 었다는 말이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
 아리며 말했다. "제가 천계를 어지럽힌 죄로 몸을 다치고 양계산에 갇
 혀 있었을 때, 다행히 관음보살님의 보살핌으로 계울을 지키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만약 스승님과 함께 서천으로 가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고 갚지 않는
 비겁한 자가 되어 만고에 욕을 먹을 것입니다." 사실 삼장은 본래 자비
 로운 성승이었다. 손오공이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약해
 진 삼장이 말을 바꾸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
 마.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마라. 만약 또다시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때
 는 이 주문을 거꾸로 스무 번이나 외울 것이다." 손오공이 너스레를 떨
 었다. "서른 번이라도 좋습니다! 대신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
 다." 손오공은 곧바로 삼장을 말에 태워 모시고, 아까 따온 복숭아를
 정성껏 올려 바쳤다. 삼장도 말 위에서 복숭아를 몇 개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한편, 요괴가 목숨을 부지해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알고 보니 손오
 공의 몽둥이가 요괴를 때려죽이지 못하고 그저 정신을 쏙 빼놓은 것이
 었다. 요괴는 구름 위에서 이를 갈며 속으로 손오공을 원망했다.

"그의 수단이 대단하다는 말만 몇 년 동안 들어왔는데, 오늘 직접 겪어보니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저 당승은 이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밥을 먹으려 하고 있어. 만약 내가 고개를 숙여 냄새라도 맡았더라면, 단번에 낚아채서 내 먹잇감으로 만들었을 텐데! 뜻밖에 저놈이 나타나 내 계획을 망쳐놓고, 하마터면 몽둥이찜질까지 당할 뻔했잖아. 저 스님을 그냥 살려두면 정말 헛수고가 되겠지만, 다시 내려가서 한바탕 골려주어야겠다."

요괴는 검은 구름을 드리우더니, 앞산 비탈 아래에서 몸을 획 바꾸어 여든 살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로 변신했다. 할머니는 굵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가 깜짝 놀라 외쳤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저 할머니가 사람을 찾으러 왔나 봅니다."

삼장이 물었다. "누구를 찾는다는 말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우리 형님이 때려죽인 게 분명 저 할머니의 딸일 겁니다. 저 노파가 딸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사람아, 허튼소리 좀 하지 마라. 저 여자는 열여덟 살이고 이 할머니는 여든 살인데, 어떻게 예순 살 차이가 나는 딸을 낳을 수 있겠느냐? 분명 가짜임이 틀림없으니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행자가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괴물은 노파로 변신했 있었다. 머리칼 양옆은 눈처럼 하얗게 섰고, 걸음걸이는 느릿

느릿 힘이 없어 보였다. 몸은 가냘프고 왜소한 데다 얼굴은 시든 채소
잎처럼 푸석푸석했다. 광대뼈는 위로 툭 튀어나왔고 입술은 아래로 처
져 있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얼굴 전체에 연꽃잎 같은 주름이 가득
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손오공은 상대가 요괴임을 알아보고는 더 따질 것도 없다는 듯, 여
몽없이 몽둥이를 휘둘러 머리를 내리쳤다. 요괴는 몽둥이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원신(참된 정신)을 밖으로 빼내어 본래
의 모습으로 도망쳐 버렸고, 손오공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가짜 시체만
을 다시 한번 때려눕혔다.

삼장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려 길가에 주저앉았
다. 그는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
를 거꾸로 하여 무려 스무 번이나 연달아 외웠다. 가련하게도 손오공은
머리가 잘록한 호리병처럼 조여져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바닥을
뒹굴며 애원했다.

"스승님, 제발 그만 외우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차라리 말씀으로 하
십시오."

삼장이 말했다.

"할 말이 없다니? 출가 수행자는 선한 말을 들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타이르는데, 어찌하여 그저 흉악한 짓
만 저지른단 말이나? 평범한 사람을 한 명 죽이더니, 또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일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은 요괴였습니다."

삼장이 대답했다.

"이 원숭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에 요괴가 어디 그리 흔하단 말이나? 너는 선한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직 악을 행할 생각만 가득하니, 이제 그만 가거라."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또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만, 이건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도리에 맞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저팔계가 끼어들며 말했다.

"스승님, 저놈이 스승님과 짐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스승님을 따라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승님께서 가지고 계신 낡은 저고리나 해진 모자 같은 것들을 두어 개 떼어 주십시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펄쩍 뛰며 외쳤다.

"이 입만 산 녀석 같으니라고! 이 손오공은 줄곧 사문의 법도를 따르며 수행해 왔지, 시기하거나 탐욕을 부린 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대체 짐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네가 시기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면, 어찌 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손오공이 오백 년 전 화과산 수렴동에서 영웅 노릇을 하던 시절에는, 일흔두 개의 동굴을 차지한 요괴들을 거느리고 수하에 사만 칠천 명의 괴물을 부리던 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자금관을 쓰고, 황갈색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남전 띠를 두르고 발에는 구름을 밟는 듯한 보운리 신을 신었지요. 손에는 여의금고봉을 쥐고 있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도를 닦으며 머리를 깎고 사문의 법도를 따르며 스승님의 제자가 된 이후, 이 머리테를 쓰게 되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옛 동료들을 무슨 낮으로 보겠습니까? 만약 스승님께서 정말로 저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 머리테를 풀어주는 주문을 외워 이 테를 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스승님께서 가져가 다른 사람 머리에 씌워 주신다면, 저는 홀가분하게 떠나 스승님과 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그럴 마음조차 없으신 건 아니겠지요?"

삼장이 깜짝 놀라 말했다.

"오공아, 나는 보살님께 머리테를 조이는 긴고주를 전수받았을 뿐이지, 풀어주는 주문 같은 건 받은 적이 없단다."

손오공이 말했다.

"풀어주는 주문이 없다면, 그냥 저를 데리고 길을 가시지요."

삼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말했다.

"일단 일어나거라.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할 테니,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거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승님을 말에 태워 모시며 길을 나섰다.

한편, 그 요괴는 사실 손오공의 두 번째 공격을 받고도 죽지 않았다. 요괴는 공중에 떠서 연신 감탄하며 말했다.

"과연 대단한 원숭이로구나! 눈썰미가 아주 예리해. 내가 저렇게 변신했는데도 단번에 알아채다니 말이야. 저 스님들은 발이 아주 빨라서 이 산만 넘어가면 서쪽으로 사십 리 지점부터는 내 관할 구역이 아니게 된다. 만약 다른 곳의 요괴에게 가로채이기라도 한다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도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 다시 내려가서 저놈을 한번 골려줘야겠다."

요괴가 음산한 바람을 일으키며 산비탈 아래에서 몸을 한 번 흔들더니, 둔갑하여 한 노인이 되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이러하였다.

백발은 장수 팽조처럼 하얗고, 긴 수염은 수성(壽星)처럼 길었으며, 귀에서는 옥경(玉磬) 소리가 울리는 듯하고, 눈에는 금성(金星)이 번뜩였다. 손에는 용머리 지팡이를 쥐고, 몸에는 학의 깃털로 만든 가벼운 도포를 입었으며, 손에는 염주를 굴리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본 삼장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서방은 참으로 복된 땅이로구나. 저런 험한 길에서도 법력을 다해 경을 읽는 이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스님,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저건 재앙의 씨앗이라니까요.”

삼장이 물었다. “어찌 재앙의 씨앗이란 말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손오공 형님이 저 사람의 딸을 때려죽이고, 또 그 노파까지 때려죽였잖아요. 이러다 저 영감이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어쩌려고요? 만약 우리가 저 영감과 정면으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스님께서는 목숨을 잃는 사형을 당하실 테고, 이 못난 돼지는 군대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사오정은 또 어디로 쫓겨나 고생을 하겠어요? 정작 손오공 형님은 도술을 써서 쪽 빠져나가 버릴 텐데, 그럼 남겨진 우리 세 사람만 독박을 쓰고 고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손오공이 듣고는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스승님이 속으시지 않겠어? 내가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몸에 숨긴 채 앞으로 걸어가 요괴를 향해 소리쳤다. "영감님,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왜 길을 가면서 경까지 외우고 계신 거예요?"

요괴는 손오공을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로만 착각하고는 대답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입니다. 평소 선행을 베풀고 승려들을 대접하며 경을 읽고 불공을 드리는 것을 즐겨 살았지요. 자식 복이 없어 딸 하나를 얻어 사위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밥을 싸서 밭으로 보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모양입니다. 노처가 먼저 찾으러 나섰는데 돌아오지 않기에 저도 찾아 나선 참입니다. 아무래도 목숨을 잃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유골이라도 거두어 묘지에 묻어주려 합니다."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호랑이 잡는 조상님인데, 영감님 소매 속에 귀신을 숨겨놓고 나를 속이려 드는구려?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당신이 요괴라는 걸 내가 딱 알아보았던 말이요!"

요괴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혀버렸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쑥 뽑아 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을 때려눕히지 않으면 저놈이 또 수작을 부릴 테고, 그렇다고 때리자니 스승님이 또 그 주문을 외우실까 걱정되네. 하지만 때려죽이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저놈이 틈을 타서 스승님을 홀려 데려가 버리면, 나중에 스승님을 구하느라 얼마나 애를 써야 할'

까? 차라리 지금 때려죽이는 게 낫겠다. 스승님이 주문을 외우셔도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내 말씀씨로 잘 달래서 넘기면 될 거야.'

손오공은 곧바로 주문을 외워 이 땅의 토지신과 이곳 산신에게 말했다. "이 요괴가 세 번이나 내 스승님을 희롱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죽이려 듭니다. 당신들이 공중에서 지켜보며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신령들이 명을 받들었으니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는가. 신들은 모두 구름 위에서 지켜보며 응답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자 요괴는 단번에 쓰러졌고, 그제야 요괴의 영험한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다.

한편, 삼장은 말 위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입조차 떼지 못했다. 옆에 있던 저팔계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행자! 또 발광이 도졌구먼. 반나절 길을 오는 동안 사람을 세 명이나 때려죽이다니!"

삼장이 막 주문을 외우려 하자, 손오공이 급히 말 앞으로 달려가 외쳤다. "스승님,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시고요! 우선 이 녀석의 꼴 좀 보세요."

그곳에는 허영계 바랜 해골 더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공아,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어찌 한순간에 해골 더미로 변했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놈은 영험한 기운을 숨기고 괴상한 짓을 꾸미는 강시입니다. 사람들을 홀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길래 제가 때려죽였더니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저 해골의 등에는 '백골부인'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삼장은 그제야 믿는 듯했다. 하지만 곁에서 저팔계가 간족거리며 부추기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었으랴. "스승님, 저놈의 손에 든 몽둥이가 워낙 흉악해서 사람을 때려죽인 거예요. 아마 스승님이 주문을 외우실까 봐 겁이 나서, 일부러 이런 모습으로 변해 스승님의 눈을 속이려는 걸 겁니다."

삼장은 역시 마음이 약해 저팔계의 말을 믿어버리고는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참지 못하고 길가에 무릎을 꿇은 채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제발 외우지 마세요! 제발요! 할 말이 있으면 어서 말씀하세요!"

삼장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할 말이 더 있단 말이나? 출가하여 선을 쌓는 것은 봄날의 정원 속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늘어나는 법이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숫돌과 같아서, 닳는 게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줄어들기 마련이지. 너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사람 세 명을 연달아 때려죽이면서도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상대할 사람도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사람들이 북적이는 성안에 들어갔다가 네가 그 몽둥이를 휘둘러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마구 때려 큰 화를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손오공이 억울해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이놈은 분명히 요괴이며, 스승님을 해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때려죽여서 스승님을 위험에서 구해주었는데, 스승님께서는 알아보시기는커녕 저 멍청한 녀석의 이간질과 비아냥거리는 말만 믿고 자꾸 저를 쫓아내려 하십니다. 예부터 '세 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하고 파렴치한 놈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고말고요. 하지만 가고 나면 스승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삼장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망할 원숭이가 점점 무례해지는구나! 네 눈에는 너만 사람이고, 저 오능과 오정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나?"

손오공은 두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슬픔을 참지 못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삼장에게 말했다.

"아아, 괴롭구나! 스승님께서 장안을 떠나실 때 유백흠이 배웅해 주었고, 양계산에 이르러 저를 구해내어 제 스승으로 모셔 주셨지요. 저는 그동안 험한 동굴을 지나고 깊은 숲을 헤매며 요괴를 잡고 마물을 물리쳤습니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거두어 함께 온갖 고생을 다 마다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눈을 뜨고도 모른 척하며 저더러 돌아가라고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다'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에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군요. 다만 그놈의 머리테 조이는 주문이 문제일 뿐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이제 다시는 그 주문을 외우지 않으마."

그러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스승님께서 독한 요괴를 만나 고난에 빠졌을 때, 저팔계나 사오정이 스승님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때 저를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다시 주문을 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십만 리 길을 더 가야 한다면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테니, 차라리 다시 스승님을 뵙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삼장이 손오공이 설 새 없이 변명하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삼장은 말에서 내려 굴러떨어지듯 내리더니, 사오정에 게 붓집 속에서 종지와 붓을 꺼내 오라고 시켰다. 그러고는 시냇가에서 물을 떠와 바위에 먹을 갈더니, 손오공을 파문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이 글을 증거로 삼아라. 이제 다시는 네 제자로 받지 않겠다. 만약 다시 너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손오공은 급히 파문장을 받아 들며 대답했다.

"스승님, 굳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손오공이 물러가겠습니다."

손오공은 종이를 접어 소매 속에 넣고는,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삼장에게 애원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을 모시고 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보살님의 가르침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일을 중간에 그만두어 공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합니까. 우선 앉으십시오. 제가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장은 몸을 책 돌려버리고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입술을 달싹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정직한 승려다. 너 같은 악당의 절 따위는 받지 않겠다."

손오공은 삼장이 계속해서 외면하자, 이번에는 신통력을 부려 뒷머리의 털을 세 가닥 뽑아 입으로 선기(仙氣)를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손오공 세 명과 본체까지 합쳐 총 네 명의 손오공이 나타나 삼장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절을 올렸다. 삼장은 좌우로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네 명의 손오공에게 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손오공이 꺾충 뛰어올라 몸을 한번 흔들더니 털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그리고는 사오정에게 당부했다.

"아우님, 자네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네. 하지만 저팔계가 옆에서 이간질하며 험담하는 것만은 꼭 조심하게나. 길을 가는 동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 만약 요괴가 나타나 스승님을 붙잡는 일이 생기면, 내가 스승님의 큰제자라고 말하게. 서쪽의 털 많은 괴물이 내 수단을 들고는 감히 우리 스승님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나는 덕을 쌓는 스님이지, 자네 같은 나쁜 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네. 이제 그만 돌아가게나."

손오공은 스승이 세 번이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자,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보라.

눈물 흘리며 스승에게 절하고 작별을 고하고,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사오정에게 신신당부하네. 머리로는 언덕 앞 풀밭을 훑으며 울고, 두 발로는 땅 위의 덩굴을 걷어차며 가네. 하늘과 땅을 돌듯 쉽 없이 움직이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 재주는 천하제일이라네. 순식간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더니, 눈 깜짝할 새 옛 거처로 돌아갔다네.

손오공은 억울함을 참고 스승과 작별한 뒤, 곤장 근두운을 타고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겨진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쓸쓸하여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 문득 귀를 울리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은 바로 동쪽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니 다시금 삼장법사가 떠올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손오공은 구름 위에 멈춰 선 채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머물러 있다가, 그제야 다시 길을 떠났다.

결국 이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8회 — 화과산에 요괴들이 모여 의를 나누고, 흑송림에서 삼장이 마귀를 만나다

花果山群妖聚義 黑松林三藏逢魔

한편, 손오공은 비록 당승에게 쫓겨나 떠나왔으나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멀리 동양대해를 바라보며 손오공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이 길로 다니지 않은 지도 벌써 오백 년이 흘렀구나!”

바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안개 낀 물결은 끝없이 넘실거리며 하늘의 은하수와 맞닿아 있고, 거대한 파도는 섬 없이 몰아치며 땅의 맥을 잇는 듯하였다. 밀려오는 조수는 세차게 용솟음치며 만을 가득 채우는데, 그 기세가 마치 한봄에 벼락이 치는 듯했고, 물이 만을 메우는 모습은 마치 한여름에 광풍이 몰아치는 듯하였다. 용을 타고 다니는 복 많은 노인도 이곳을 지나려면

눈살을 찌푸려야 할 것이요, 학을 타고 다니는 신선 아이들도 번거로움에 근심하며 지나갈 터였다. 해안가에는 마을도 없고 물가에는 고기잡이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파도는 천 년의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고, 바람은 유월의 가을처럼 서늘하게 일었다. 들새들은 물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며, 모래톱의 새들은 물 위에 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하였다. 눈앞에는 낚시꾼 하나 보이지 않고 갯가에는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려오니, 바닷속 물고기들은 즐겁게 헤엄치지만 하늘을 지나는 기러기는 외로이 떠갈 뿐이었다.

손오공이 몸을 한 번 휙 날리더니 동양대해를 단숨에 건너 화과산에 도착했다. 구름 위에서 내려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산에는 꽃과 풀이 하나도 없고 안개와 노을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봉우리와 바위는 무너져 내렸고, 숲과 나무는 검게 타버려 말라 죽어 있었다.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면, 손오공이 천계를 어지럽힌 일로 인해 이랑신이 매산칠형제를 이끌고 와 불을 질러 산을 몽땅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마주한 손오공의 마음은 더욱 처참했다. 무너진 산의 황량한 풍경을 읊은 고풍(古風)이 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신선이 살던 산을 돌아보니 눈물만 흐르고 무너진 산을 마주하니 슬픔은 더욱 깊어지네 그때는 산이 상할 줄 미처 몰랐으나 오늘에야 땅이 훼손되었음을 알았구나 가증스러운 이랑신은 나를 멸하려 들고 원망스럽도다, 소성(小聖, 이랑신)이 사람을 업신여겼구나 흉악하게 네 선조의 묘를 파헤치니 까닭 없이 네 조상의 묘지까지 망가뜨렸구나 하늘을 덮던 노을과 안개는 모두 흩어지고 땅을 휘감던 풍운도 자취 없이

사라졌네 동쪽 고개에선 호랑이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서쪽 산에선 흰
원숭이 울음소리 어디서도 보이지 않네 북쪽 계곡엔 여우와 토끼 자취
가 없고 남쪽 골짜기엔 노루와 사슴 그림자조차 없구나 푸른 바위는 타
서 흙덩이가 되었고 푸른 모래는 진흙더미로 변했네 동굴 밖 솟은 소나
무는 모두 쓰러졌고 벼랑 앞 푸른 측백나무는 드물게 남았구나 참죽·삼
나무·왜나무·노송·밤나무·박달나무는 검게 타고 복숭아·살구·자두·매
화·배·대추나무도 모두 사라졌네 산뿔이 끊기고 뿔나무 없으니 누에를
어찌 키우며 버들 드물고 대나무 적으니 새들이 어찌 깃들까 봉우리 위
기묘한 바위는 먼지가 되었고 시냇물 바닥은 말라 풀만 무성하네 벼랑
앞 흙은 검게 변해 난초도 자라지 못하고 길가 진흙은 붉게 변해 덩굴
만 엉켜 있구나 예전의 날짐승들은 어디로 날아갔는가 그때의 들짐승
들은 어느 산으로 달아났는가 표범과 구렁이는 무너진 터를 싫어하고
학은 뱀을 피해 황폐한 곳을 멀리하네 아마도 예전에 지은 악한 마음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리라

손오공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침 향긋한 풀이 자란 언덕의 움푹
한 곳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일곱여덟 마리의 어린 원숭이들
이 튀어나와 한꺼번에 달려들어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대성 할아버지, 오늘 집에 오신 건가요?"

미후왕이 물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놀지도 않고 장난도 치지 않은 채, 하나같이 숨어
만 지내고 있느냐? 내가 온 지 꽤 되었는데 너희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나?"

원숭이들은 그 말을 듣고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대성께서 하늘나라로 잡혀 가신 뒤로, 저희는 사냥꾼들에게 시달리며 참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이 쏘아대는 강한 활과 날카로운 화살, 사나운 매와 개, 그리고 덫과 창을 어찌 막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목숨을 아끼느라 감히 밖으로 나와 놀지 못하고, 그저 동굴 깊숙이 숨어 동지를 멀리 떠나 지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덕으로 나가 풀을 뜯어 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내려가 맑은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방금 대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마중 나왔으니, 부디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비통해졌다. 그는 다시 물었다.

"이 산에 남은 원숭이가 얼마나 되느냐?"

원숭이들이 대답했다.

"늙은 것과 어린 것을 다 합쳐서 겨우 천 마리 남짓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떠날 때는 요괴가 사만 칠천 마리나 되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원숭이들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뒤에 이랑신이 산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태반이 불타 죽었습니다. 저희는 우물 속에 웅크리고 시냇가에 파고들며 철 판

교 아래에 숨어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걷혔을 때는 먹고 살 만한 과일도 없어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절반 정도는 다른 곳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남은 절반이 이 산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사냥꾼들에게 또 절반이나 빼앗겼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사냥꾼들이 너희를 빼앗아 무엇을 한단 말이나?"

원숭이들이 대답했다.

"그 사냥꾼 놈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린 놈,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놈들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냅니다. 그리고는 간장에 졸이거나 식초에 찌고,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에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 치웁니다. 또 그물에 걸리거나 덫에 걸린 놈들은 산 채로 잡아다가, 광대처럼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공중제비를 넘게 하고, 묘기를 부리게 하며, 거리에서 북 치고 징 치는 구경거리로 만들어 온갖 장난을 다 치며 괴롭힙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물었다. "동굴 안에는 누가 일을 맡아 다스리고 있느냐?" 요괴들이 대답했다. "마원수와 유원수, 그리고 봉장군과 파장군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왔다고 알려라." 작은 요괴들이 동굴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대성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마원수, 유원수, 봉장군, 파장군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손오공을 맞이하여 동굴 안으로 모셔 왔다. 손오공이 가운데 자리에 앉자, 요괴들이 그 앞에 엎드려 여쭙었다. "대성 할아버지, 근

래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당삼장을 데리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신다면서 어찌 서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시 본산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모른다. 그 당삼장이라는 자가 어찌나 사리 분별을 못 하는지! 내가 길을 가는 동안 요괴들을 잡고 마물을 물리치려고 평생 갈고닦은 수단을 다 써가며 몇 번이나 요괴들을 때려잡아 주었건만, 오히려 내가 흉악한 짓을 저지른다고 내 제자가 되지 말라고 나를 쫓아냈느니라. 심지어 나를 내쫓는다는 문서까지 써서 내밀며, 다시는 나를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 하더구나."

원숭이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운수도 좋구나, 운수도 좋아! 그 스님은 대체 누구길래? 우리랑 같이 와서 몇 년 동안 신나게 놀아보자고!" 원숭이들은 또 소리쳤다. "어서 코코넛 술을 가져와라! 이 몸의 환영 잔치를 열어야지!"

손오공이 말했다. "술은 나중에 마시자. 그 사냥꾼 놈들은 대체 언제쯤 우리 산에 다시 나타나느냐?" 마원수와 유원수가 대답했다. "대성님,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놈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오늘은 왜 안 오는 것이냐?" 마원수와 유원수가 말했다. "곧 올 듯합니다."

손오공이 명령했다. "너희들은 모두 나가서 산에 불에 타 부스러진 돌덩이들을 주워다 쌓아 두어라. 스무서른 개씩 한 무더기로, 싯예순 개씩 한 무더기로 쌓아 두어라. 내가 쓸 데가 있다." 어린 원숭이들은 한데 엉겨 붙어 우르르 몰려나가더니, 여기저기 돌을 옮겨 쌓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자, 이제 모두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어라. 이 몸이 직접 도술을 부리겠다."

대성인 손오공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쪽 반편에서 북소리가 뚝뚝 울리고 징 소리가 땡땡 울려 퍼지며, 칼과 창을 들고 사냥개와 매를 부리는 천여 명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원숭이왕이 자세히 살펴보니, 저들은 기세가 매우 험악하고 용맹한 사내들이었다.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여우 가족을 어깨에 덮고 비단옷으로 허리와 가슴을 감쌌으며, 화살통에는 늑대 이빨 화살을 꽂고 허리에는 보배로운 조각 활을 찻구나. 사람은 산을 뒤흔드는 호랑이 같고, 말은 계곡을 뛰어넘는 용과 같으니, 떼를 지어 사냥개를 몰고 어깨에는 매를 가득 엮었도다. 바구니에는 화포를 담아 메고 해동청(사냥매)을 데리고 있으며, 끈끈이 장대는 백여 짐이나 메고 토끼를 잡는 작살은 천 개나 되는구나. 소 머리 모양의 그물로 길을 막고 염라대왕의 밧줄 같은 올가미를 챙겨, 일제히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니, 마치 하늘에 별이 흩뿌려지는 듯하구나.

손오공은 사람들이 자신의 산을 침범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주문을 외우더니, 동남쪽(巽方) 땅을 향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한꺼번에 확 내뿜으니 곧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다. 그 바람의 기세가 어떠했는가!

먼지와 흙이 하늘 높이 치솟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쓰러졌다. 바다 물결은 산처럼 높게 솟구쳐 만 갈래 파도가 겹겹이 밀려들었다. 하늘과 땅은 어둑어둑해져 해와 달조차 빛을 잃고 가라앉은 듯했다. 거센 바람이 소나무를 흔드는 소리는 호랑이의 포효 같았고, 대나무 숲을 헤집는 소리는 용의 울음소리 같았다. 온 세상 구멍마다 바람이 울부짖으

며 하늘이 탄식하는 듯하더니, 날아다니는 모래와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튀어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자, 부서진 돌덩이들이 바람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가엾게도 그 천여 명의 군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되었다.

돌에 머리가 맞아 가루가 되고, 모래바람에 말들까지 온몸을 다쳤다. 인삼과 관계령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붉은 피가 땅을 물들였다. 부자(藥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빈랑 또한 제집을 찾지 못했다. 시체와 말의 사체들이 산야에 널브러져 누워 있으니,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들의 마음은 타들어 갔다.

시로 이르되,

사람은 죽고 말도 쓰러졌으니 어찌 집으로 돌아가랴, 들판의 외로운 귀신들만 어지럽게 떠도네. 가련하도다, 용맹을 떨치던 장수들이여,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구분치 못한 채 모래밭에 피를 뿌렸구나.

손오공은 구름 위로 내려앉으며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로다, 운명이야! 당삼장을 따라 스님이 된 뒤로, 그가 매번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 ‘천 일을 선하게 살아도 선함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은 차고 넘친다’라고 말이야. 정말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그를 따라다니며 요괴 몇 마리를 때려잡기만 해도, 그는 내가 흉악한 짓을 한다며 나무라더니만.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에 이렇게 많은 사냥꾼을 해치우게 되었구나.” 손오공이 외쳤다. “애들아, 모두 나오너라!” 그러자 바람처럼 몰려있던

원숭이 무리가 대성의 부름을 듣고 하나둘씩 튀어나왔다. 손오공이 명령했다. “너희는 남쪽 산 아래로 가서, 죽은 사냥꾼들의 옷을 벗겨 집으로 가져오너라. 피를 깨끗이 씻어내어 추위를 막는 옷으로 쓰고, 시체들은 저 깊은 못 속에 모두 밀어 넣어버려라. 쓰러진 말들은 끌고 와서 가죽을 벗겨 신발을 만들고, 고기는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천천히 나누어 먹도록 해라. 그리고 저 활과 화살, 창과 칼들은 너희가 무예를 닦는 데 쓰고, 저 알록달록한 깃발들은 내가 쓸 수 있도록 모두 챙겨 오너라.” 원숭이들은 일제히 대답하며 명령을 받들었다.

손오공은 깃발을 새로 만들어 화려한 색채로 장식한 뒤, 그 위에 ‘화과산을 다시 세우고 수렴동을 정비하며, 제천대성이 다스린다’라는 열네 글자를 적어 넣었다. 그러고는 깃대 끝에 깃발을 매달아 동굴 밖에 높이 세웠다. 매일같이 요괴와 짐승들을 불러 모으고 풀과 곡식을 쌓아 두며, ‘스님’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손오공은 위세가 대단하고 수단 또한 영리하여, 사해의 용왕들을 찾아가 신령한 단비를 빌려와 산을 푸릇푸릇하게 씻어냈다. 앞쪽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뒤쪽에는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었으며, 복숭아, 자두, 대추, 매화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로써 모두가 유유자적하게 즐기며 평화롭게 살게 되었으니, 그 즐거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한편, 당삼장은 교활한 요괴의 말을 믿고 마음 놓고 말에 올라탔다. 저팔계가 앞장서서 길을 열고, 사오정이 짐을 짊어진 채 서쪽으로 향했다. 백호령을 지나자 갑자기 숲과 언덕이 나타났는데, 넝쿨이 엉키고 설켜 있고 잣나무와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모습이었다.

당삼장이 외쳤다. "제자들아, 산길이 험하고 걷기 무척 어렵구나. 게다가 소나무 숲이 뽕뽕하고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니, 요괴나 짐승이 나타날까 두렵다. 각별히 조심하거라."

저팔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오정에게 말을 맡기게 한 뒤, 갈퀴를 들고 길을 헤치며 당삼장을 이끌고 소나무 숲 안으로 들어갔다. 한창 길을 가던 중, 당삼장이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팔계야, 내가 오늘 정말 배가 고프구나. 어디 가서 먹을 만한 공양거리를 좀 구해오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 말에서 내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 못난 돼지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당삼장이 말에서 내리자, 사오정은 짐을 내려놓고 발우를 꺼내 저팔계에게 건네주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상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얼음을 깨서 불을 피우고, 눈 속을 뚫어서 기름이라도 찾아내어 반드시 공양을 해 올 테니까요."

그가 소나무 숲을 벗어나 서쪽으로 십여 리를 더 갔으나, 여전히 집한 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호랑이와 이리가 득실거릴 뿐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저 어리숙한 저팔계는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전에 손오공이 있을 때는 스승님이 원하기만 하면 금방 구해오곤 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니 정말이지 “살림을 직접 해보야 쌀과 나무의 귀함을 알고, 자식을 키워보야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이 딱 맞구나. 솔직히 말해, 탁발할 데가 전혀 없구나.’

그러다 다시 걷다 보니 잠이 쏟아져 왔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스승님께 공양을 구할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이만큼이나 걸어온 걸 믿어주시지도 않을 거야. 한두 시간쯤 더 돌아다니다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예라, 모르겠다. 그냥 이 풀숲에서 좀 자고 가자.’

저팔계는 풀숲에 머리를 박고 누워 잠을 청했다. 원래는 잠시 꾸벅 거리다 일어날 생각이었으나, 고된 길을 걷느라 지친 몸이 털썩 쓰러지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한편, 저팔계가 어디선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차치하기로 하고, 이야기는 다시 삼장법사에게로 돌아간다.

삼장법사는 숲속에서 갑자기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떨리는 듯하여 몸과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급히 사오정을 불러 물었다. “오능이 공양을 구하러 갔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스승님, 아직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 서쪽 지방에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집이 많은 데다, 저팔계 녀석은 배까지 커서 스승님 걱정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야 겨우 돌아오겠지요.”

삼장법사가 말했다. “과연 그렇구나. 만약 저 녀석이 거기서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날은 이미 저물어가는데 이곳은 머물 만한 곳이 못 되니, 어서 잠자리를 찾아야겠다.”

사오정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스승님. 여기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그 녀석을 찾아오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그래. 공양을 먹든 못 먹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물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사오정은 보물 지팡이를 챙겨 들고 곧장 소나무 숲을 나서서 저팔계를 찾아 나섰다.

삼장법사는 숲속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지루했다. 그는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한곳에 모아 쌓아두고 말은 나무에 묶어두었다.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내려놓고 지팡이를 세워 꽂은 뒤, 검은 승복을 매만지며 울창한 숲속을 천천히 거닐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삼장법사는 들꽃과 풀숲을 구경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등지로 돌아가는 새들의 울음소리조차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심란했다. 사실 그 숲은 풀이 우거지고 길도 좁은 곳이었는데, 마음이 어지러운 탓에 길을 잘못 든 것이었다. 그는 답답함을 달래려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팔계와 사오정을 찾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제자는 곧장 서쪽 길로 가버렸고, 삼장법사가 잠시 걷다 보니 어느새 남쪽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다.

소나무 숲을 벗어나 고개를 들자, 갑자기 저 멀리서 금빛이 번쩍이며 오색찬란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금빛 꼭대기가 빛나고 있는 보탑이었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금빛 탑 꼭대기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이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내 제자들이 인연이 없었나 보구나. 동토를 떠날 때, 절을 만나면 향을 피우고, 부처를 만나면 절을 올리며, 탑을 만나면 탑을 청소하겠다고 발원했거늘. 저렇게 빛나는 것이 황금 보탑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 길로 가지 못했을까? 탑 아래에는 분명 절이 있을 것이고, 절 안에는 반드시 승려들이 있을 터이니 일단 가보자꾸나. 짐과 백마는 이곳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별일 없겠지. 만약 그곳에 머물 만한 곳이 있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함께 빌려 쉬면 될 것이다."

아아! 삼장법사에게 불운이 닥쳤구나. 보아라, 발걸음을 옮기더니 그만 탑 근처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 그곳의 풍경은 이러하다.

돌 절벽은 만 장 높이로 솟아 있고, 산은 푸른 하늘에 맞닿아 끝없이 펼쳐져 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봉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있다. 양옆으로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뒤섞여 있고, 앞뒤로는 넝쿨이 백여 리에 걸쳐 얹혀 있다. 꽃은 풀끝에 비쳐 바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흐르는 물은 구름 낀 골짜기에 비치니 달빛이 뿌리 없이 떠 있는 듯하다. 쓰러진 나무는 깊은 골짜기에 가로놓여 있고, 마른 넝쿨은 빛나는 봉우리에 매달려 있다. 돌다리 아래로는 맑은 샘물이 쉼 없이 흐르고, 대좌 위에는 밝은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삼도천의 천국 같고, 가까이서 보면 봉래산의 절경과도

같다. 향긋한 소나무와 자줏빛 대나무가 산골짜기를 감싸고, 까치와 까마귀, 원숭이들이 험준한 고개를 넘나든다. 동굴 입구에는 짐승들이 줄을 지어 오가고, 숲속에는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든다. 푸른 향초는 뻗어나고 화려한 들꽃은 활짝 피어 있으니, 이곳은 분명 아름다운 곳이나 삼장법사에게는 불길한 운명이 닥쳐오는 곳이다.

그 노승이 발걸음을 옮겨 탑문 아래에 이르니, 안쪽에 얼룩무늬 대나무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발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석상 위에 한 요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해 주겠다.

푸른 빛이 도는 얼굴에 하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고, 양옆으로 덩수룩하게 난 구레나룻은 마치 연지를 바른 듯 붉었다. 보랏빛이 도는 수염은 마치 리치 열매가 돌아난 듯했고, 앵무새 부리 같은 코에 별처럼 번뜩이는 눈을 가졌다. 두 주먹은 승려의 발우처럼 둥글었고, 푸른빛이 도는 다리는 깎아지른 절벽에 뻗은 나뭇가지 같았다. 연노란색 도포를 비스듬히 걸친 모습은 비단 가사보다 더 화려했다. 손에는 빛을 내뿜는 칼을 쥐고 있었고, 베고 누운 돌은 티 없이 매끄러웠다.

그는 수많은 요괴를 거느리고 군대를 호령하던 시절도 있었고, 노련한 괴물로서 위세를 떨치던 시절도 있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크게 소리치며 “대왕님!” 하고 불렀을 것이다. 달빛 아래서 세 사람이 술잔을 나누기도 하고, 바람 부는 날 양 겨드랑이 사이로 찻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눈 한번 깜빡이면 천하 어디든 구석구석 누빌 수 있었다. 거친 숲에는 새와 참새

가 시끄럽게 울고, 깊은 덩불 속에는 용과 뱀이 잠들어 있다. 선녀는 백옥을 심어 기르고 도사는 불을 다루어 단사(丹砂, 주사)를 길러낸다. 이 작은 동굴이 비록 아비지옥만큼 끔찍한 곳은 아닐지라도, 이 멍청한 요괴의 모습만큼은 영락없는 소머리 야차(牛頭夜叉)의 형상이었다.

노승은 요괴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온몸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얼른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막 몸을 돌린 찰나, 요괴의 감각이 워낙 예민했던 탓에 금빛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이놈들아, 문밖에 누가 왔는지 보아라!” 그러자 한 요괴가 고개를 내밀어 문밖을 살피더니, 머리가 벗겨진 노승을 발견하고는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와 보고했다. “대왕님, 밖에 스님이 한 명 있습니다! 얼굴은 큼직하고 귀는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살결은 매끈하고 피부는 아주 곱상한 것이 참으로 괜찮은 스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괴가 꺾꺾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뱀 머리에 파리가 앉으니, 제 발로 먹을 것을 가져오는구나’라는 격이로다! 너희들은 어서 달려가 저놈을 잡아 오너라. 그러면 내 큰 상을 내리겠다.” 요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삼장법사는 화살처럼 빨리 도망치려 발을 놀렸으나, 이미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산길은 험하고 숲은 깊은 데다 날까지 저물어 도저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요괴들에게 붙잡혀 들려 나가고 말았다.

시로 이르되, 용이 얇은 물에서 새우에게 농락당하고, 호랑이가 평원에 떨어져 개에게 조롱받는구나. 아무리 좋은 일에 고난이 많다 한들, 당삼장이 서천으로 가는 길만큼 험난한 이가 또 있을까?

작은 요괴들이 삼장법사를 번쩍 들어 올려 대나무 발 바깥에 내려놓으며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대왕님, 스님을 잡아 왔습니다!”

요괴도 슬쩍 눈을 돌려 살펴보니, 삼장법사가 고개를 곧게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과연 번듯한 스님이었다. 요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훌륭한 스님이라면 분명 높은 분일 텐데, 내 주제에 함부로 대했다간 큰일 나겠군. 위엄을 좀 떨쳐야 저자가 겁을 먹고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듯 붉은 수염을 바짝 세우고 핏빛 머리카락을 하늘로 치켜든 채, 눈을 부릅뜨고 크게 호통을 쳤다. “그 스님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요괴들의 외침이 산을 울렸다. “예!” 요괴들은 삼장법사를 안으로 덩석 밀어 넣었다. 이미 적의 소굴에 들어왔으니 어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장법사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요괴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스님이냐?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어서 밝혀라!”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나는 본래 당나라의 승려로, 당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 우연히 탑 아래에서 성스러운 기운을 뵈고자 들렀다가, 본의 아니게 위엄을 깨뜨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서천에서 경전을 얻어 동토로 돌아가면 영원히 높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괴는 허허 웃으며 크게 말했다. “과연 높은 분이라 했더니 정말 그렇구나! 마침 너를 잡아먹으려던 참인데 아주 때맞춰 잘 왔다. 아주 잘 왔어!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보내줬을지도 모르는데 말 이야. 너는 이제 내 입속으로 들어갈 먹잇감이 되었으니,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격이라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 수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요괴가 작은 요괴들에게 명령했다. “저 스님을 가져다가 묶어라!”

과연 작은 요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삼장법사를 밧줄로 꼬꼬 묶더니, 정혼장(넛을 묶어두는 말뚝)에 매달아 버렸다.

늙은 요괴가 칼을 쥐고 다시 물었다. "중놈아, 일행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설마 혼자서 감히 서천까지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삼장이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대왕님, 저에게는 저팔계와 사오정이라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나무 숲에 가서 공양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짐 한 짐과 백마 한 마리도 모두 소나무 숲에 두고 왔습니다."

늙은 요괴가 말했다. "이거 운이 좋구나! 제자 둘에 너까지 셋이고, 말까지 합치면 넷이니 한 끼 식사로는 아주 충분하겠어."

그러자 작은 요괴가 나섰다. "저희가 가서 잡아 오겠습니다."

늙은 요괴가 가로막았다. "나가지 마라. 대신 앞문을 꼭 닫아라. 제자들이 공양물을 구하러 왔다가 반드시 스승을 찾으려 할 터인데, 스승

을 못 찾으면 분명히 우리 문 앞까지 찾아올 것이다. 흔히들 '제 발로 찾아오는 손님이 장사하기 제일 좋다'고 하지 않느냐.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잡으면 된다."

작은 요괴들이 모두 앞문을 닫아걸었다.

한편, 삼장법사가 재난을 만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

사오정이 저팔계를 찾아 숲을 헤치며 나아갔는데, 십 리 넘게 걸어도 마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오정이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주위를 살펴보니, 문득 풀숲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지팡이로 깊은 풀을 헤치고 가보니, 알고 보니 저팔계가 그 안에 서 잠결에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오정이 저팔계의 귀를 잡아당겨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스승님께서 공양을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저팔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지둥 일어나 물었다.

"형님, 지금이 몇 시입니까?"

사오정이 대답했다.

"얼른 일어나라. 스승님께서 공양을 구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일단 우리가 머물 곳부터 찾아보라고 하셨다."

저팔계는 멍청한 표정으로 발우를 받쳐 들고 갈퀴를 챙긴 채, 사오정과 함께 곧장 돌아왔다. 숲속을 살펴보니 스승님이 보이지 않았다. 사오정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 네가 공양을 제대로 못 해온 탓이야. 분명 요괴가 나타나 스승님을 잡아갔을 게 분명해."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괜한 소리 마쇼. 저 숲은 아주 고즈넉하고 아늑한 곳이라 요괴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요. 아마 노스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기 답답해서 경치나 구경하러 가신 모양이니, 우리가 가서 찾으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말을 끌고 짐을 챙겼다. 도포와 지팡이를 갈무리한 뒤, 소나무 숲을 벗어나 스승님을 찾아 나섰다.

이번 일은 역시 당승이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덕분이다. 두 사람이 잠시 찾아도 스승이 보이지 않던 차에, 갑자기 남쪽에서 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복 터진 사람은 따로 있나 보네요. 저기 좀 보세요, 스승님이 저쪽으로 가셨어요. 저렇게 빛이 나는 건 보답인데, 누가 감히 소홀히 대접하겠어요? 분명 맛있는 공양물을 준비해두고 스승님을 모실 거예요. 우리도 얼른 서둘러서 가서 공양이나 좀 얻어먹읍시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저건 분명 길흉을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가서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두 사람은 씩씩하게 문 앞까지 다가갔다. “어라! 문이 닫혀 있네.” 가만히 보니 문 위에는 흰 옥으로 된 판 하나가 가로로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완자산 파월동’이라는 커다란 글자 여섯 개가 새겨져 있었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여기는 절 같은 곳이 아니라 요괴의 소굴이에요. 우리 스승님이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형씨, 겁먹지 말게. 자네는 일단 말을 묶어두고 짐을 지키고 있게나. 내가 가서 저놈이 누구인지 물어볼 테니.”

저팔계는 쇠갈퀴를 치켜들고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동굴 안에서 문을 지키던 작은 요괴가 문을 열었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숨기며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손님이 왔습니다!”

늙은 요괴가 물었다. “손님이라니, 어떤 손님이냐?”

작은 요괴가 대답했다. “동굴 문 밖에 입이 크고 귀가 툭 튀어나온 스님 하나랑, 얼굴색이 아주 불길해 보이는 스님 하나가 와서 문을 열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늙은 요괴는 무척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 저팔계와 사오정이 나를 찾아온 것이로구나! 허허, 그놈들이 나를 찾아낼 줄이야, 어찌하여 여

기까지 찾아왔단 말이냐? 겉모습이 험악하고 사납다니, 결코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되겠다. 어서 갑옷을 가져오너라!”

작은 요괴가 갑옷을 가져와 요괴가 몸에 걸치고는, 칼을 손에 쥔 채 골장 문 밖으로 나갔다.

한편, 저팔계와 사오정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괴가 아주 험악한 기세로 나타났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푸른 얼굴에 붉은 수염,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황금 갑옷은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허리에는 옥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가슴에는 갑옷을 단단히 조여 댔으며, 구름무늬 끈을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산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거센 바람이 울부짖고, 바다 건너를 떠돌 때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데, 남빛 피부에 검게 탄 두 손으로는 혼을 쏙 빼놓고 목숨을 앗아가는 칼을 움켜쥐고 있었다. 이 요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황포'라는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된다.

황포괴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스님이길래 감히 내 문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이놈아, 나를 몰라보느냐? 내가 바로 네 주인님이다! 나는 대당에서 서천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몸이다. 내 스승님은 황제의 동생이신 삼장법사님이시다. 만약 스승님이 네 집에 계시다면, 내 갈퀴로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얼른 모셔내거라!"

그러자 괴물이 웃으며 말했다. "예, 예, 그렇고말고요. 마침 우리 집에 당승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지요. 사

람 고기로 만든 만두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와서 만두 한 접시 먹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멍청한 녀석이 정말로 들어가려 하자, 사오정이 얼른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저놈이 형님을 속이는 거예요! 형님이 언제부터 사람 고기를 드셨다고 그러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팔계가 갈퀴를 뻗 뻗아 들더니, 요괴를 향해 얼굴을 겨냥하며 내리쳤다. 그러자 요괴는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강철 칼을 휘둘러 맞았다. 두 존재 모두 신통력을 발휘하여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사오정도 짐과 백마를 내팽개치고 보배로운 지팡이를 들어 급히 싸움에 가세했다. 이때 무시무시한 스님 한 명과 사나운 요괴 한 마리가 구름 위에서 한바탕 큰 싸움을 벌였다.

정말로 이러하였다.

지팡이가 치켜 올라가면 칼이 맞서고, 갈퀴가 날아오면 칼로 막아낸다. 요괴 장수는 위세를 떨치고, 두 신통력 있는 승려는 본모습을 드러낸다. 구치갈퀴는 참으로 영웅답고, 요괴를 잡는 지팡이는 참으로 사납고 위엄 있다. 앞뒤 좌우에서 몰아쳐도, 저 황포 요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은빛처럼 번쩍이며, 그 신통력 또한 실로 광대하구나. 공중은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흐릿하며, 산 중턱은 절벽이 무너지고 고개가 뒤틀린다. 한 명은 명성을 위해 어찌 싸움을 멈추겠으며, 한 명은 스승을 위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세 사람은 공중에서 번득이며 수십 합을 넘게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각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하게 맞붙어 누가 이기고 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결국 당승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9회 — 재난을 벗어나 강을 따라 국토로 흘러오고, 은혜를 입은 저팔계는 산림으로 향하다

脫難江流來國土 承恩八戒轉山林

시로 이르되,

망상과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마라. 참된 진리는 스스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성품을 부처님 앞에서 닦아야 하거늘, 미혹함과 깨달음이 어찌 앞뒤로 나뉘어 있겠는가.

깨달음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미혹에 빠지면 만 겁의 세월 동안 흐르는 물처럼 떠돌 뿐이다. 만약 한 생각에 참된 수행을 합칠 수 있다면, 모래알처럼 쌓인 죄업과 더러움도 모두 사라지리라.

한편, 저팔계와 사오정이 요괴와 서른 합 동안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찌하여 승부가 나지 않았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따져 본다면, 스님 두 명은커녕 스물 명이 덤벼든다 해도 저 요괴를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당승의 목숨이 아직 다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호법신들이 그를 보살피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육정육갑, 오방계제, 사치공조, 그리고 열여덟 분의 호교가람 신들이 저팔계와 사오정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세 사람의 싸움은 일단 제쳐두기로 하자.

동굴 안에서 당승은 슬피 울며 제자들을 생각했다. 눈물을 흘리며 당승이 말했다. "오능아, 너는 어느 마을에서 선한 벗들을 만나 공양을 탐하며 지내고 있느냐? 오정아, 너는 또 어디에서 그를 찾고 있느냐, 혹 만나기는 하겠느냐? 내가 요괴를 만나 이곳에서 고난을 겪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언제쯤 너희를 다시 만나 이 큰 난관을 벗어나 영산(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당승이 이처럼 슬퍼하며 번뇌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동굴 안에서 한 여인이 정혼장(넋을 붙들어 매는 기둥)을 붙잡고 걸어 나오며 외쳤다. "스님, 어디서 오셨기에 저 요괴에게 붙잡혀 이곳에 묶여 계신 건가요?"

그 말을 들은 당승이 눈물 어린 눈으로 여인을 훑쳐보니, 여인은 서른 살쯤 되어 보였다. 당승이 말했다. "보살님, 물어보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운명이라 그대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온 것이니, 드시려거든 그냥 드십시오. 무엇을 더 묻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저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서쪽으로 삼백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보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그 나라 국왕의 셋째 공주인 백화수

라고 합니다. 십삼 년 전 팔월 보름밤, 달놀이를 즐기던 중에 이 요괴가 일으킨 광풍에 휩쓸려 이곳으로 끌려왔지요. 그와 십삼 년 동안 부부로 지내며 이곳에서 아이들도 낳고 키웠지만, 소식이 끊겨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얼굴 한 번 뵙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는데, 스님께서서는 어디서 오시다가 이렇게 붙잡히신 건가요?"

당승이 대답했다. "빈승은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뜻하지 않게 발길이 닿아 이곳에 잘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괴가 제 제자 둘까지 모두 잡아먹으려 합니다."

공주가 웃으며 달랬다. "스님,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스님께서 경전을 구하러 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보상국은 스님이 서쪽으로 가시는 길목에 있는 큰 길이에요. 저 대신 제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한 통 써주신다면, 제가 그분들을 설득해 스님을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살님, 만약 제 목숨을 구해주실 수 있다면, 기꺼이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공주는 급히 몸을 돌려 집안의 사정을 적은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 갈무리했다. 그리고는 기둥 앞에서 당승을 풀어준 뒤 편지를 건네주었다. 자유의 몸이 된 당승은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말했다.

"보살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귀한 곳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국왕께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 혹여나 부모님께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시면 어찌합니까? 부디 이 미천한 승려가 거짓말을 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주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서는 아들이 없으시고 저를 포함해 세 자매만 두셨으니, 이 편지를 보시면 분명 저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삼장법사는 편지를 소매 속에 깊숙이 넣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공주가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앞문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요괴들이 문밖에서 깃발을 흔들고 북과 징을 울리며 대왕을 도와 제자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뒷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대왕께서 직접 잡으신다면 문초라도 하겠지만, 자칫 작은 요괴들에게 잡히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해쳐서 스님의 목숨을 앗아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대왕께 가서 잘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대왕께서 스님을 놓아주신다면, 그때 제자들에게 허락을 구하여 스님과 함께 안전하게 길을 떠나십시오."

당승은 그 말을 듣고 절을 올린 뒤 공주의 분부대로 따랐다. 그는 공주와 작별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으나, 감히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가시덤불 사이에 몸을 숨겼다.

한편, 공주는 기발한 꾀를 내어 급히 앞으로 나갔다. 문밖으로 나가니 병기가 부딪히며 쟁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알고 보니 저팔계와 사오정이 요괴와 공중에서 한참 동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공주는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여보, 황포랑!"

요괴는 공주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팔계와 사오정을 내팽개치고 구름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강철 칼을 챙겨 들고 공주를 부축하며 물었다. “부인, 무슨 일인가?”

공주가 말했다. “여보, 제가 방금 막 휘장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금빛 갑옷을 입은 신령한 분을 뵈었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그 금갑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인가?”

공주가 대답했다. “그건 제가 어릴 적 궁궐에 있을 때 남몰래 세운 서약 때문이에요. 만약 현명한 부마를 얻게 된다면, 명산에 올라 신선께 절을 올리고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보시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당신과 혼인한 뒤로 부부 사이가 좋아 매일 즐겁게 지내느라 그 약속을 잊고 살았는데, 그 금갑신이 나타나 서약을 지키라고 재촉하더군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깨고 보니 그저 꿈이었지만요. 그래서 급히 얼굴을 단장하고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왔는데, 뜻밖에도 저기 저 승려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봐서라도 저 스님을 놓아주세요. 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제 서약을 대신 채우면 되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요괴가 말했다. “부인,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려.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한두 명쯤 잡아먹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저 스님까지 내버려 두란 말이오? 그냥 보내주세요.”

공주가 다시 말했다. “여보, 저 스님을 뒷문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요괴가 투덜거렸다. “번거롭긴! 그냥 보내주면 될 것을, 뒷문이니 앞문이니 따지고 드는군.”

요괴는 칼을 챙겨 들고 크게 소리쳤다. “이봐, 저팔계! 이리 와 봐라! 내가 네놈이 무서워서 싸우지 않는 줄 아느냐? 내 아내의 체면을 봐서 네 스님을 살려주는 것이다. 어서 뒷문으로 가서 스님을 찾아 서쪽으로 멀리 떠나거라. 만약 다시 우리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때는 절대로 가만 두지 않겠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저승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마냥 안도하며, 서둘러 말을 끌고 짐을 챙겨 귀족은 듯 조심스럽게 길을 재촉했다. 보월동 뒷문 밖으로 돌아 나간 그들이 “스승님!” 하고 소리치자, 목소리를 알아들은 삼장법사가 가시덤불 속에서 대답했다. 사오정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내고는 삼장법사를 부축하여 황급히 말에 태웠다.

시로 이르되,

독한 마음 품은 푸른 얼굴 귀신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다행히 백화수 공주의 정성 어린 도움을 받았구나. 뉘싯바늘에서 벗어난 물고기가 꼬리를 치고 머리를 흔들며 파도를 타고 노니는 듯하네.

저팔계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고 사오정이 그 뒤를 따르며 소나무 숲을 벗어나 큰길로 들어섰다. 두 제자는 끊임없이 투덜대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당승은 그저 허허 웃으며 달래줄 뿐이었다. 해가 저물면 숙소에 머물고, 닭이 울면 다시 길을 떠나기를 반복하며 정자와 주막을 거쳐 걷다 보니, 어느덧 이백구십구 리를 지나게 되었다. 문득 고개를 들

어보니 저 멀리 웅장한 성곽이 보이는데, 바로 보상국이였다. 참으로 보기 좋은 풍경이였다.

구름은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길은 아득히 멀었으나, 비록 천 리 밖의 먼 길일지라도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풍요로웠다. 상서로운 안개와 신령한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 안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손짓하는 듯했다. 첩첩이 솟은 먼 산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졸졸 흐르는 맑은 물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은 농사짓기에 더할 나위 없었고, 푸릇푸릇하게 자라난 새싹은 먹을 것이 풍족함을 보여주었다. 골짜기마다 낚시하는 이들의 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산등성이를 따라 나무를 하는 이들의 짐이 오간다. 성곽은 견고하여 마치 금으로 만든 해자처럼 튼튼했고, 집집마다 모여 사는 사람들은 그저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높이 솟은 구중궁궐은 궁전처럼 장엄하고, 층층이 쌓인 누각은 비단 깃발처럼 화려했다. 태극전, 화개전, 소향전, 관문전, 선정전, 연영전 같은 전각들은 저마다 옥계단과 금계단을 갖추고 문관과 무관의 관모를 정연하게 늘어놓았다. 대명궁, 소양궁, 장락궁, 화청궁, 건장궁, 미양궁 같은 궁궐들에서는 종과 북, 피리와 통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여인들의 그리움과 봄날의 시름을 달래주었다. 금지된 정원에는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고운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궁궐 안 수로에는 버드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었다. 넓은 대로에는 관복을 갖춰 입고 오마를 탄 귀한 이들이 위엄 있게 지나갔고, 한적한 곳에는 활과 화살을 든 무사들이 구름을 헤치며 용맹하게 달렸다. 꽃과 버들이 우거진

골목과 악기 소리 들리는 누각의 풍경은 낙양의 화려함에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승은 대당국을 떠나온 뒤로 마음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했고,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은 작은 역참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면서도 꿈속에서 스승을 그리워하며 시름에 잠겨 있었다.

보상국의 경치는 다 둘러보기도 전에, 스승과 제자 세 사람은 짐과 말들을 챙겨 역참의 여관에 머물렀다.

당승은 궁궐 문 앞까지 걸어가 각문대사(閣門大使, 궁문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말했다. "대당국에서 온 승려입니다. 폐하를 뵙고 통관문서를 교환하고자 하니, 부디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황문 주사관(黃門奏事官, 아뢰는 일을 맡은 관리)이 급히 백옥 계단 앞으로 달려가 국왕에게 고했다. "폐하, 대당국에 고승이 찾아와 폐하를 뵙고 공문서를 교환하기를 청하고 있나이다."

국왕은 상대가 대당이라는 대국이라는 말을 듣고, 계다가 사방을 떠도는 성스러운 승려라는 말에 마음이 매우 기뻐져 즉시 윤허하며 명했다. "그를 들여보내라."

당승이 금빛 계단까지 나아가 무도산호(舞蹈山呼)의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자, 좌우에 있던 문무백관들이 모두 감탄하며 말했다. "상국(上邦) 인물의 예법과 풍모가 참으로 의젓하고 품위가 있구나."

국왕이 물었다. "법사여, 우리 나라에는 무슨 일로 오셨소?"

당승이 대답했다. "소승은 대당의 승려로, 천자의 칙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본래 가지고 온 통관문서가 있으니, 폐하의 상국에 이른 만큼 마땅히 교환해야 합니다. 다만 진퇴의 법도를 잘 몰라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대당 천자의 문서가 있다니, 어서 가져와 보시오."

당승이 두 손으로 정중히 받들어 올려 어좌의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남섬부주 대당국, 하늘을 받들고 운수를 이어 다스리는 대당 천자의 문서를 보내노라. 내 덕이 부족하나 나라의 큰 기틀을 이어받아, 신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림에 깊은 못가에 서고 살얼음을 밟듯 아침저녁으로 늘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있노라. 일전에 경하(涇河)의 늪은 용을 구하지 못하여 황천상제(皇天后帝)의 견책을 받았으니, 짐의 삼혼칠백(三魂七魄)이 순식간에 저승으로 끌려가 무상한 나그네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수(陽壽)가 아직 다하지 않은 까닭에 명부의 임금이 감응하여 다시 살려 돌려보내 주었기에, 널리 선한 법회를 베풀고 망자를 천도하는 도량을 세웠노라. 이때 고통을 구제하시는 구고관세음보살께서 금빛 몸을 드러내시어, 서천에 부처와 경전이 있어 죽은 영혼을 제도하고 외로운 넋을 초탈하게 할 수 있다고 일러주셨도다. 이에 법사현장을 특별히 명하여 멀리 수많은 산천을 지나 불경과 계송을 구하게 하였으니, 만약 서방의 여러 나라에 이르거든 선한 인연을 끊지 말고 이 문서를 살피어 통행시켜 주기를 바라노라. 대당 정관 13년 가을 길일, 어전 문서임. (보인이 아홉 개 찍혀 있음)"

국왕은 이를 보고 자기 나라의 옥보를 가져와 서명한 뒤, 당승에게 건네주었다.

당승은 은혜에 감사하며 문서를 챙긴 뒤 다시 아뢰었다. "빈승이 이곳에 온 것은 첫째로 문서를 교환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폐하께 전해드릴 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편지인가?"

당승이 대답했다. "폐하의 셋째 공주님께서 완자산 보월동의 황포괴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빈승이 우연히 공주님을 만나게 되어 이 편지를 전해 드립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말했다. "십삼 년 전 공주가 사라진 뒤로, 문무백관 중 얼마나 많은 이가 파직되거나 물러났는지 모른다. 궁궐 안팎의 수많은 비녀와 내관들도 얼마나 매를 맞아 죽었는지 모를 정도다. 그저 궁궐 밖을 나가 길을 잃었을 뿐이라며 찾을 길이 없다고만 했지. 성안의 백성들도 수없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요괴에게 붙잡혀 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오늘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니 슬픔을 참을 길이 없어 눈물이 나는구나."

당승은 소매 안에서 편지를 꺼내 바쳤다. 국왕이 편지를 받아 보니 '평안함'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 손에 힘이 풀려 편지를 뜯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국왕은 즉시 한림원 대학사를 불러 대전으로 오라고 명했다.

대학사가 곧 대전으로 들어왔다. 전각 앞에는 문무백관이 늘어서 있고, 전각 뒤에는 왕후와 후궁, 궁녀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며 편지를 기다렸다. 대학사가 편지를 뜯어 낭독하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효한 딸 백화수가 머리 숙여 큰절 올립니다. 만수무강하실 아버님과 용봉전의 어머니들, 그리고 조정의 모든 문무 대신 여러분께 올립니다.

못난 딸이 다행히 여인의 몸으로 살아남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득하나, 힘이 부족하여 얼굴에 웃음을 띠어드리지도, 온 마음을 다해 효도를 다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십삼 년 전 팔월 보름, 달빛이 아름답던 그 밤에 아버님의 은혜로운 명에 따라 각 궁에서 연회를 열고 달빛을 즐기며 함께 즐거워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창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금색 눈에 푸른 얼굴을 하고 청색 머리카락을 가진 마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낚아채 상서로운 빛을 타고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디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고, 요괴는 강제로 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십삼 년을 버티며 두 아이를 낳았으나, 모두 요괴의 핏줄일 뿐입니다. 이런 일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인륜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해치는 일이라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 난 뒤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두렵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마침 대당국의 성스러운 승려

꺼서도 요괴에게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눈물로 글을 써서 용기를 내어 탈출한 뒤, 이 편지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립니다.

부디 아버님께서 가련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어, 장수들을 보내어 완자산 보월동의 황포괴를 잡아 주십시오. 저를 구해 궁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급히 쓰느라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불효한 딸 백화수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큰절 올립니다."

한림원 대학사가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가자, 국왕은 대성통곡했고, 삼궁(三宮, 왕비와 후궁들) 또한 눈물을 흘렸으며, 문무백관 역시 슬픔에 잠겨, 앞에서 뒤에서 그 누구도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국왕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문무백관을 향해 물었다. "누가 감히 군사를 일으키고 장수를 거느려, 과인을 도와 요괴를 잡아내고 우리 백화 공주를 구해낼 것인가?" 국왕이 몇 번이나 거듭 물었으나, 대답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야말로 나무로 만든 무장과 진흙으로 빚은 문관들뿐이었다. 국왕은 마음속에 번뇌가 쌓여 눈물이 샘솟듯 쏟아졌다.

그때 여러 관리들이 일제히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 부디 근심을 거두소서. 공주님은 이미 실종되어 십삼 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마침 당나라의 성스러운 스님을 만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니 그 내용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물며 저희는 모두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 병법과 무예를 익혔다 한들 진을 치고 진영을 지켜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저 요괴는 구름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자라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데, 어찌 군사를 일으켜 구하러 가겠습니까? 생각건대 동토에서 경전을 구하러 오시는 분은 나라의 성스러운 스님이십니다. 저 스님은 도력이 높아 용과 호랑이도 굴복시키고, 덕이 높아 귀신조차 공경하니, 반드시 요괴를 물리칠 술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곧 시비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께 요괴를 물리쳐 공주를 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고개를 돌려 당승에게 청했다. "스님, 만약 스님에게 능력이 있어 법력을 발휘해 요괴를 잡고 내 딸을 구해궁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서천에 가서 부처님께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소. 짐이 스님과 형제의 의를 맺고 함께 용상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떻겠소?"

당승은 당황하며 간곡히 대답했다. "빈승은 그저 염불하는 법만 겨우 알 뿐, 사실 요괴를 물리치는 재주 따위는 없습니다."

국왕이 되물었다. "요괴를 잡을 줄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서천까지 가서 부처님을 뵈겠다고 하시오?"

당승은 더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제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폐하, 빈승 혼자서는 도저히 이곳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제게는 두 제자가 있는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을 만큼 능력이 뛰어나 빈승을 이곳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었습니다."

국왕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스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소. 제자가 있다면 어찌 그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 짐을 뵈지 않았단 말ियो? 조정에 들어온다면 마음에 꼭 드는 상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형편에 맞춰 정성껏 대접은 할 것이오."

당승이 말했다. "제 제자들이 워낙 못생겨서 감히 함부로 입궐했다가 혹여 폐하의 용체에 놀라움을 끼쳐 해를 끼칠까 두려워 그러는 것입니다."

국왕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도 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마치 짐이 그들을 무서워하기라도 할 것 같구려."

당승이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큰 제자는 성은 저이고 이름은 오능, 팔계라고 합니다. 입이 길고 송곳니가 톱 튀어나왔으며, 뽀뽀한 털이 귀를 덮고 있습니다. 몸집은 굵고 배는 볼록하며, 걷는 모습이 바람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성이 사씨이고 법명은 오정 스님인데, 키는 한 장 두 척에 팔은 아주 굵고 얼굴은 쪽빛처럼 푸르며 입은 혈분(피가 담긴 대접)처럼 붉습니다. 눈빛은 번뜩이고 이빨은 못을 박아놓은 듯 가지런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이런 모습이라 감히 함부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스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소? 어서 불러오시오."

국왕은 즉시 금패를 내려 관역으로 보내 그들을 정중히 모셔오게 했다.

저팔계는 부르러 온 소리를 듣고 사오정에게 말했다. "형님, 그러게 편지 전하길 잘했지? 이제야 편지 전한 보람을 보는구먼. 아무래도 스승님이 편지를 전하시니, 국왕께서 '편지를 전한 사람을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시며 분명 잔치를 차려 대접하시려는 게지. 스승님은 식사량(食腸)이 변변치 않으신지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이름을 들먹이셨고, 그래서 금패를 보내 청하신 게야. 다 같이 한 끼 배불리 먹고 내일 길을 떠나자고."

사오정이 대답했다. "형님, 무슨 영문인지 알겠으니 그럼 어서 가봅시다."

두 사람은 짐과 말은 모두 역승에게 맡겨두고, 각자 몸에 지닌 병기만 챙긴 채 금패를 따라 궁궐로 들어갔다. 이윽고 백옥 계단 앞에 이르러 좌우로 늘어서더니, 임금이 계신 위쪽을 향해 한 번 읍(揖)을 하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문무백관 가운데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모두들 수군거렸다. "저 두 스님은 생김새가 못생긴 건 그렇다 쳐도, 너무 상스럽기 그지없구나. 어찌 우리 임금을 뵈는데 절도 올리지 않고, 읍을 마치고는 몸을 펴 꺾꽂이 서 있기만 한단 말인가? 참으로 괴이하고 괴이하다."

그 소리를 들은 저팔계가 말했다.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시오. 우리는 본래 이렇소. 언뜻 보면 좀 못생겨 보여도, 한참 두고 보면 꽤 불만하단 말이오."

국왕은 저팔계의 흉측한 외모를 보고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게다가 저 멍청해 보이는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자 겁이 더욱 나서, 앞

아 있지도 못하고 용상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곁에 있던 관리들이 급히 부축해 올렸다. 당승은 당황하여 전각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폐하, 빈승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 제자가 외모가 워낙 추하여 감히 뵙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혹여 폐하의 옥체에 해가 될까 염려하다 그만 폐하를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국왕은 벌벌 떨며 다가와 당승을 부축하며 말했다.

“장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저 자를 보았더라면, 과인은 분명 놀라서 저 자를 죽이라 명했을 것입니다.”

국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저팔계 장로와 사오정 장로 중, 누가 요괴를 잡는 데 능합니까?”

저팔계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대답했다.

“이 못난 저팔계가 잘합니다.”

국왕이 되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저팔계가 말했다.

“저는 본래 천계의 천봉원수였습니다. 다만 천계의 법도를 어긴 죄로 인간 세상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지금은 수행을 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동토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요괴를 잡는 데는 제가 제일입니다.”

국왕이 말했다.

“천계의 장수였으니 분명 변화술에도 능하겠구려.”

저팔계가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변화술을 몇 가지 조금 알 뿐입니다.”

국왕이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저팔계가 말했다.

“무엇으로 변할지 주제를 정해주셔야 그 모양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그럼 아주 커다란 것으로 한번 변해 보시오.”

저팔계 역시 서른여섯 가지의 변화술을 부릴 줄 알았다. 그는 계단 앞에서 숨씨를 뿜내며 손으로 결(訣)을 맺고 주문을 외우고는, "커져라!" 하고 크게 한 번 외쳤다. 그러고는 허리를 한 번 굽히더니, 순식간에 키가 여덟아홉 장이나 되도록 길게 자라나 마치 길을 터주는 개로신

(開路神)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문무백관은 벌벌 떨었고, 온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때 대전을 지키는 진전장군(鎭殿將軍)이 물었다. "스님, 그렇게 키가 커지면 대체 어디까지 자라야 멈추는 것입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다. "바람을 봐야지요. 동풍이 불면 그런대로 괜찮고, 서풍이 불어도 그럭저럭 견디겠지 만, 만약 남풍이 불어닥치면 저 푸른 하늘에도 커다란 구멍을 뚫어 버릴지 모릅니다."

국왕이 깜짝 놀라 외쳤다. "신통력을 거두게! 그 정도 변화술을 부린다는 건 충분히 알았네."

저팔계는 몸을 쑥 낮추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뒤, 계단 앞에 공손히 섰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 가실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놈과 싸우겠소?"

그러자 저팔계가 허리춤에서 쇠갈퀴를 쑥 뽑아 들며 말했다. "이 못난 놈은 이 쇠갈퀴를 씁니다."

국왕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여기 채찍, 창, 몽둥이, 망치부터 칼, 창, 도끼, 검, 창, 작두까지 아주 많으니, 그대가 쓰기 편한 것으로 하나 골라 가시오. 그런데 그 갈퀴가 대체 무슨 무기란 말이오?"

저팔계가 대답했다. "폐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갈퀴가 비록 투박해 보여도,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몸에 지니고 다닌 물건입니다. 예전에 천계의 물의 궁전에서 장수를 맡아 팔만 수병을 거느릴 때도 오로지 이 갈퀴의 힘에 의지했었지요.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스승님을 보살피며, 산을 만나면 호랑이와 이리 굴을 부수고 물을 만나면 용과 신령이 사는 굴을 뒤엎는 것도 모두 이 갈퀴 덕분입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진심으로 믿었다. 곧바로 아홉 명의 후궁과 비빈들에게 명하여, "짐이 직접 마시는 술을 병째로 가져와서 스님을 배웅하는 데 쓰도록 하라"고 일렀다. 국왕은 술을 잔에 가득 채워 저팔계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님, 이 술 한 잔은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요괴를 잡아 내 딸을 구해온다면, 그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천금의 사례를 내리겠습니다."

저팔계는 잔을 받아 들었다. 겉모습은 거칠어 보여도 행동하는 꼴은 제법 점잖았다. 그는 당승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스승님, 원래 이 술은 스승님께서 먼저 드셔야 하는 것인데, 임금님께서 제게 내리셨으니 감히 거역할 수가 없군요. 이 못난 돼지가 먼저 마셔서 기운을 좀 내어 요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잔을 채워 스승에게 건넸다.

당승이 말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너희 형제들이 마시거라." 사오정이 다가와 잔을 받았다. 저팔계는 발밑에 구름을 일으키더니 곧장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모습을 본 국왕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저팔계 스님이 구름을 타고 날 수도 있단 말인가?"

저팔계가 떠나자 사오정은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말했다.
 “스승님, 아까 황포괴가 스승님을 붙잡았을 때 저와 저팔계 형님이 싸웠지만, 겨우 막아내는 수준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팔계 형님이 혼자 갔으니, 아마 그 요괴를 이기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그렇구나. 애야, 너도 가서 저팔계를 좀 도와주려무나.” 사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요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 광경을 본 국왕은 당황하여 당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장로님,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와 함께 앉아 계십시오. 구름을 타고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당승이 탄식하며 말했다. “가련하도다, 참으로 가련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한편, 전각 안에서는 국왕과 당승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사오정이 저팔계의 뒤를 따라잡으며 말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저팔계가 물었다. “동생, 여긴 어쩐 일이야?” 사오정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힘을 보태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팔계는 기뻐하며 외쳤다. “그렇지,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우리 둘이 마음을 합쳐 힘을 쓰면, 저 괴물을 잡아서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 나라에서 이름 석 자는 널리 알릴 수 있을 거야!”

시로 이르되,

상서로운 빛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 떠나가고 상서로운 기운은 도성에서 피어오르네. 왕의 명을 받들어 동굴로 향하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 괴물을 잡으려 하도다.

두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에 도착하여 구름을 타고 내려앉았다. 저팔계는 갈고리 모양의 창을 휘둘러 보월동의 석문을 힘껏 내리쳤고, 이내 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문을 지키던 작은 요괴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급히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입이 크고 귀가 넓은 스님과 얼굴빛이 어두운 스님이 또 와서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요괴가 놀라며 말했다. “그게 정말 저팔계와 사오정 두 놈이란 말이나? 내가 스승을 살려주었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내 문을 부순단 말이나?”

작은 요괴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잊어버린 물건이라도 있어서 찾으러 온 모양입니다.”

그러자 요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헛소리 마라!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남의 집 문을 부순단 말이나?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괴는 서둘러 무장을 갖추고 강철도를 챙겨 밖으로 나와 물었다. “이놈들, 내가 네 스승을 살려주었거늘 어찌 감히 다시 내 문을 부수러 왔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이 못된 요괴 놈아, 네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요괴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네놈이 보상국의 셋째 공주를 속여 동굴로 데려와 억지로 아내 삼아 십삼 년이나 살았으니, 이제는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나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밧줄에 묶여 나오너라. 그래야 이 저팔계가 손을 쓰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요괴는 몹시 분노했다. 몸을 부르르 떨며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더니, 기세등등하게 칼을 치켜들고는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저팔계는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못이 박힌 창으로 맞받아 쳤고, 뒤이어 사오정이 보물 지팡이를 들고 달려들어 함께 싸움을 시작했다. 산봉우리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말실수는 남을 화나게 하고, 독한 마음과 상처 주는 말은 분노를 일으키는 법이다. 요괴는 커다란 강철도로 머리를 내리치고, 저팔계는 구치철로 정면에서 맞서 싸운다. 사오정은 보물 지팡이를 휘두르고, 요괴는 신령한 무기로 이를 막아낸다. 사나운 요괴와 신통한 두 스님이 뒤엉켜 한참을 싸워대니, 요괴는 “나라를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스님들은 “네놈의 못된 짓을 바로잡겠다” 한다. 요괴는 “공주를 강제로 취해 나라의 체면을 깎았다” 하고, 스님들은 “네 일에 상관 말고 참견 마라” 한다. 결국 편지를 전하려던 일 때문에, 스님과 요괴 모두 마음 편할 날이 없구나.

그들은 산비탈 앞에서 여덟 아홉 합 동안 격렬하게 싸웠으나, 저팔계는 점차 힘이 빠져 창을 들어 올리기도 버거울 정도로 기력이 다했다. 어찌하여 이토록 싸움이 밀리는 것일까? 처음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호법신들이 당승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 안에서 저팔계와 사오정을

몰래 도와주었기에 겨우 승부를 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신선이 보상국에서 당승을 지키고 있어, 두 사람이 요괴를 당해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저팔계가 말했다. "사오정, 네가 앞으로 나가서 저놈이랑 싸워라. 나는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러더니 그는 사오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쑥과 덩굴이 뒤엉킨 가시덤불 속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뛰어들었다. 그러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굵히는 등 엉망진창이 되어 굴러떨어지더니, 다시는 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귀 한쪽만 쫓긍 세운 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다.

요괴는 저팔계가 도망치는 것을 보자마자 곧장 사오정에게 달려들었다. 사오정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요괴에게 붙잡혀 동굴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요괴의 부하인 어린 요괴는 사오정을 네 다리가 엇갈리도록 꼬꽂아 묶어버렸다.

결국 사오정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0회 — 사악한 마귀가 바른 법을 침범하고, 뜻을 둔 말은 마음의 원숭이를 그리워하다

邪魔侵正法 意馬憶心猿

한편, 요괴는 사오정을 꽂꽂 묶어 놓고도 죽이지도, 때리지도 않았으며,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강철 칼을 치켜든 채 속으로 생각했다. '당승은 나라의 귀한 인물이니 예의와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만약 내가 그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제자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겠는가? 아, 이것 참! 내 아내가 그 나라로 어떤 편지를 보냈기에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것일까. 가서 그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요괴는 갑자기 흉포한 성질을 드러내며 공주를 죽이려 들었다.

한편, 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화장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공주가 보니 요괴는 눈을 부라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었다. 공주는 애써 웃는 얼굴로 다가가 물었다.

"낭군님, 무엇 때문에 이토록 번뇌에 잠겨 계십니까?"

그러자 요괴가 으박지르며 욕설을 내뿔었다.

"이 천박한 계집 같으니라고! 도대체 인륜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비단 옷을 입히고 금 장신구를 채워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다 주었고, 사계절 내내 정성을 다해 너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부모 생각만 하고, 부부로서의 도리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겁에 질려 바닥에 엎죽 엎드리며 말했다.

"낭군님, 어찌 오늘 갑자기 이별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요괴가 소리쳤다.

"이별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내가 그 당승을 잡아온 것은 너와 함께 즐기기 위함이었는데, 어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를 놓아줄 수 있단 말이나? 분명 네가 몰래 편지를 써서 그놈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두 스님이 다시 내 문 앞까지 쳐들어와서 그를 돌려보내려 한단 말이나? 이것이 네 짓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공주가 대답했다.

"낭군님, 저를 너무 의심하십니다. 제가 어찌 보낼 편지가 있겠습니까?"

요괴가 몰아붙였다.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 여기 증거가 될 만한 놈을 딱 붙잡아 두었는데도 발뺌할 셈이냐?"

공주가 물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괴가 말했다.

"당승의 두 번째 제자인 사오정이다!"

사람이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법이니, 공주는 그저 요괴와 맞서며 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공주가 말했다.

"낭군님, 우선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편지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때려죽여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편지가 없다면, 저를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꾸할 것도 없이, 키만큼 커다란 남빛 손을 휘둘러 공주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공주를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다. 요괴는 강철 칼을 치켜들고는 사오정을 심문하며 으박질렀다.

"사오정, 너희 둘이 감히 우리 문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다니! 혹시 이 여자가 편지를 보내서 보상국 국왕이 너희를 보낸 것이냐?"

이미 결박당해 있던 사오정은 요괴가 너무나 흉악한 데다, 공주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칼을 휘두르며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저 여자가 편지를 보내 우리 스승님을 구해주었으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구나. 만약 내가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저놈이 공주를 죽이고 말 테니,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아니겠는가? 에이, 모르겠다. 나 사오정이 스승님을 모시며 그동안 보답한 것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붙잡혔으니 내 목숨을 바쳐 스승님의 은혜를 갚으리라.’

사오정은 이윽고 크게 소리쳤다.

“이 요괴 놈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무슨 편지가 있다고 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목숨까지 해치려 하느냐? 우리가 공주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놈이 우리 스승님을 동굴에 가두었을 때, 스승님께서 공주의 모습과 행적을 보셨느니라. 보상국에 도착했을 때 국왕이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길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스승님께서 공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자 국왕이 공주가 자기 자식임을 알고 우리에게 술까지 내려주며, 공주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시킨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며, 무슨 편지가 있단 말이나! 정 죽이려거든 이 사오정을 죽여라.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요괴는 사오정이 씩씩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칼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공주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내가 잠시 성미가 급해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노여워 마시오." 그러고는 공주의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겨 넘겨주고 머리 모양을 예쁘게 매만져 주었다. 요괴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로 공주의 기분을 맞춰주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앉히고는 정중히 대접했다. 공주는 본래 여인이란 마음이 물처럼 잘 변하는지라, 요괴가 태도를 바꿔 정중히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공주가 말했다. "여보, 만약 우리 부부의 정을 생각하신다면, 저 사오정을 묶은 밧줄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요괴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사오정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되, 몸은 여전히 쇠사슬로 묶어두게 했다. 사오정은 결박이 풀려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생각했다. '옛말에 '남을 편하게 해주면 자신도 편해진다'고 했다. 내가 저들에게 편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저놈이 어찌 나를 이렇게 풀어주려 했겠는가?'

요괴는 다시 술상을 차려 나오게 하여 공주의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요괴는 갑자기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에는 보검을 차더니, 공주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부인, 당신은 집에서 술이나 마시며 아이들을 잘 돌보시오. 그리고 사오정을 놓아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 당승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나도 서둘러 가서 친척 인사라도 드려야겠소."

공주가 물었다.

"누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인가요?"

요괴가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님 말일세. 나는 그분의 사위이고, 그분은 나의 장인이니 당연히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소?"

공주가 만류했다.

"가시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된단 말ियो?"

공주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힘으로 쟁취하신 강산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나라예요. 태자 시절부터 성문 밖을 멀리 나가본 적도 없으신데, 당신 처럼 험악한 사내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당신의 그 얼굴과 생김새는 너무나 못생겨서, 아버님께서 보시기라도 하면 아마 깜짝 놀라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나아요."

요괴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잘생긴 모습으로 변해서 가면 될 것 아니요."

공주가 말했다.

"그럼 한번 변신해 보세요. 어디 잘생겼는지 내가 직접 보겠어요."

정말 대단한 요괴였다. 그는 술자리 한가운데서 몸을 한 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아주 잘생긴 선비로 변신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풍채는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말씨는 관원처럼 격식 있고 처

신은 한창 젊은 나이답게 멋스러웠다. 재주는 자건(子建, 조식)처럼 시를 쉽게 지어내고, 외모는 반안(潘安)처럼 빼어나 여인들이 던지는 과일들을 가볍게 받을 정도였다. 머리에는 까치 꼬리 모양의 관을 써서 검은 머리카락이 단정히 내려앉았고, 몸에는 옥빛 비단 옷을 입어 넓은 소매가 바람에 휘날렸다. 발에는 주름이 잡힌 검은 장화를 신었으며, 허리에는 빛나는 띠를 둘렀다. 그 풍모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멋진 사내라, 산을 솟구치게 할 만큼 기개가 높고 수려했다. 공주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그러자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 변신이 마음에 드시요?" 공주가 대답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당신이 궁궐에 들어가면 아버님께서 분명 문무백관을 불러 연회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 술을 드시는 동안 천 번 만 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절대로 본래의 못생긴 얼굴을 드러내거나 꼬리를 밟혀서 소문이 나게 해서 는 안 돼요.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요괴가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요괴가 구름을 타고 날아가니 순식간에 보상국에 도착했다. 구름에서 내려 궁궐 문 앞에 이른 요괴가 문지기 관리에게 말했다. "삼부마가 폐하를 뵙고자 찾아왔으니, 부디 전해 주시오." 그러자 황문 관리(궁궐의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가 백옥 계단 앞으로 나아가 국왕에게 보고했다. "폐하, 삼부마께서 뵙기를 청하며 조정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국왕은 당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삼부마라는 말을 듣고는 관리에게 물었다. "과인에게는 두 명의 부마뿐인데, 어찌 삼부마라는 자가 또 있단 말이나?" 관리가 대답했다. "삼부마라니, 필시 요괴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국왕이 말했다. "그를 들여보내도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은 당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했다.

"폐하, 요괴는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요괴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며 날아다니는 영물입니다. 그를 들여보내든 아니든 어차피 들어올 터이니, 차라리 그냥 들여보내어 대면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국왕이 허락하여 사람을 보내 요괴를 금계단 앞으로 불러들였다. 요괴는 평소처럼 산을 울릴 듯 씩씩하게 춤을 추며 절을 올렸다. 조정의 관리들은 요괴의 생김새가 워낙 준수하고 수려하여, 그가 요괴라는 사실을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다. 관리들은 모두 평범한 눈을 가진 범인들이라 그를 참된 선비로 여겼다. 국왕은 요괴의 기개가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한 것을 보고, 나라를 구할 인재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부마, 그대의 집은 어디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언제 우리 공주와 혼인하게 되었기에 이제야 친척을 찾아온 것인가?" 그러자 요괴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주군, 소신은 성 동쪽 완자산 파월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 산이 이곳에서 얼마나 멀기에 그러한가?" 요괴가 대답했다. "멀지 않습니다. 겨우 삼백 리 정도 됩니다." 국왕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삼백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우리 공주가 어떻게 그대와 혼인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요괴는 교묘한 말솜씨로 가식적인 대답을 늘어놓았다. "주군, 소신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혀 사냥을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십삼 년 전, 가솔 수십 명을 데리고 매와 사냥개를 풀어 사냥을 하던 중, 갑자기 무늬가 화려한 맹호 한 마리가 여인을 등에 태운 채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신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니 맹호가 쓰러졌고, 소신은 그 여인을 본가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정성껏 보살피며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여인에게 어디 사는 사람인지 물었으나, 그녀는 자신을 '공주'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황실의 공주라고 했다면, 소신이 어찌 감히 마음을 속이고 함부로 혼인을 맺었겠습니까? 마땅히 금전(金殿)에 나아가 관직을 얻어 명예를 높였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말했기에 소신이 본가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여인의 미모와 소신의 재주가 서로 마음에 들어 수년간 부부로 지내온 것입니다. 혼인 직후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친척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려 했으나, 공주께서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셨습니다. 공주께서 호랑이를 살려달라며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뜻을 받아 부부가 되었으니, 중매도 증표도 없이 인연을 맺었구나. 전생에 붉은 줄로 발이 묶여 있었기에, 이번에는 호랑이가 중매인이 되었다.' 소신은 이 말을 듣고 호랑이의 줄을 풀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화살을 맞은 채 꼬리를 자르듯 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호랑이가 목숨을 건진 뒤 산속에서 몇 년간 수행을 하더니, 몸을 단련해 요괴가 되어 사람들을 홀리고 해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소신이 듣기로 예전에도 경전을 구하러 온 이들이 몇 번 있었다는데, 모두 당나라에서 온 당승이라 하더군요. 아마도 저 호랑이가 당승을 해치고 그가 가진 경전 증명서를 뺏어, 당승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지금 조정에서 주군을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군, 저 수놓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십삼 년 전 공주를 등에 태웠던 그 맹호입니다. 진짜 경전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오, 저 줏대 없이 마음이 잘 변하는 임금이라는 자를. 어리석고 눈이 멀어 요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요괴가 내뱉는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구나. 국왕이 물었다. "어진 부마, 그대는 어찌하여 저 승려가 공주를 등에 태웠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자

요괴가 대답했다. "주군, 소신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잡아먹고 호랑이가죽을 입으며, 저놈과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났으니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국왕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정말 안다면, 저놈에게 본모습을 드러내 보라고 명하시오." 요괴가 말했다. "정수 반 잔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놈의 본모습을 바로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국왕은 즉시 관리에게 명하여 물을 떠 오게 한 뒤 부마에게 건네주었다.

요괴는 손에 물을 받아 쥐고 몸을 일으켜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흑안정신법(검은 눈으로 몸을 굳게 만드는 술법)'을 펼쳤다. 요괴가 주문을 외우며 당승을 향해 물을 한 입 뱉어내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그 승려의 본래 모습은 전각 안으로 숨어버리고, 정말로 무늬가 화려한 맹호 한 마리로 변해버렸다. 이때 국왕과 신하들이 육안으로 본 그 호랑이의 생김새는 이러하였다.

이마는 희고 머리는 둥글며, 몸에는 화려한 무늬가 있고 눈은 번뜩였다. 네 발은 곧고 늠름하게 뻗어 있으며, 스무 개의 발톱은 갈고리처럼 날카로웠다. 톱날 같은 이빨은 입을 가득 채웠고, 뽀족한 귀는 눈썹까지 이어져 있었다. 흥측한 모습이 마치 커다란 고양이 같으면서도, 사나운 기세는 어린 황소처럼 용맹했다. 뺨뺨한 수염은 은색 막대기처럼 뻗어 있고, 붉은 혀를 내밀며 악한 기운을 뿜어냈다. 과연 무시무시한 무늬를 가진 맹호였으니, 그 위풍당당한 기세가 보상국 보전 안을 휘감았다.

국왕은 이를 보자 혼비백산하여 났을 잃었고, 많은 관리들도 겁에 질려 모두 자리를 피했다. 그중 배짱 좋은 무장 몇몇이 장수와 교위들을 이끌고 우르르 달려나가 갇은 병기로 마구 휘둘러 쳤다. 이 정도 공

격이라면 당승이 목숨을 부지할 운명이 아닌 이상, 스무 명의 승려가 달려들어도 고기죽이 되었을 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갑, 계제, 공조, 호교 등 여러 신령이 공중에서 몰래 보살피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병기가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신하들이 소란을 피우며 해가 저물 때까지 씨름한 끝에야 겨우 저 호랑이를 산 채로 붙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쇠사슬로 묶어 철창에 가둔 뒤 조정의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한편, 보상국 국왕은 광록사(光祿寺)에 명을 내려 성대한 잔치를 열게 하고, 자신들을 구해준 부마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게 했다. 만약 요괴의 꾀에 넘어갔더라면 큰 화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대신들이 조회를 마치고 물러간 뒤 요괴는 은안전으로 들어갔다. 요괴는 열여덟 명의 궁녀와 무희를 골라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게 하고, 술을 권하며 즐겁게 놀았다. 요괴는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고, 좌우로는 아름답고 요염한 여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요괴가 술을 마시며 즐기던 중, 밤이 깊어 이경(밤 9시~11시 사이)쯤 되었을 때 술기운이 확 올라왔다. 요괴는 참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한번 웃더니, 본래의 괴물 모습으로 변해 흥포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키처럼 커다란 손을 뻗어 비파를 타던 여인을 낚아채더니, 단숨에 머리를 덤석 물어뜯어 버렸다. 그 모습에 겁에 질린 나머지 열일곱 명의 궁녀들은 살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도망치며 숨기 바빴다. 그 광경을 시로 읊으면 이러하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희들은 경악하니, 마치 밤비에 젖어 흐트러지는 연꽃 같구나. 무희들은 놀라 서두르니, 마치 봄바람에 휘날리는 작약 같구나. 비파를 부수며 목숨을 구걸하고, 거문고를 내팽개치며 살길을 찾아 달아나네.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인지도 모른 채, 전각의 동서 방향도 잊고 뛰어가네. 옥 같은 얼굴은 부딪쳐 상하고, 고운 얼굴은 엉망이 되었구나. 사람마다 목숨을 구하려 달아나니, 저마다 남은 생을 이어가려 애쓰는구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도 감히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밤이 너무 깊어 임금의 행차를 방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모두들 낮은 담장 아래 숨어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한편, 요괴는 자리에 앉아 술을 스스로 따르고 마셨다. 술을 한 잔 들이켠 뒤에는 사람을 끌어다 피가 낭자하도록 두어 번 크게 뜯어먹었다. 요괴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이, 밖에서는 사람들이 "당승은 호랑이 요괴다!"라며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걸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금정관 역까지 이르렀다. 이때 역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백마만이 여물통에서 풀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백마는 본래 서해의 소룡왕이었으나, 천계의 법도를 어긴 죄로 뿔이 잘리고 비늘이 벗겨진 채 백마로 변하여 당승을 등에 태우고 서쪽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이었다. 백마는 사람들이 당승이 호랑이 요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스승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신데, 분명 요괴가 스승님을 호랑이로 변하게 하여 해를 끼친 것이 틀림없다.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큰사형은 떠난 지 오래되었고, 팔계와 사오정도 소식이 없으니 어찌할꼬.' 백마는 밤이 깊어 이경(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지금 당장 당승을 구하지 않으면, 이번 수행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백마는 참지 못하고 고삐를 꼭 쥐고 안장을 다잡은 뒤, 몸을 날려 급히 본래의 모습인 용으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먹구름을 타고 구만리 높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 상황을 살폈다. 시로 이르되, 삼장법사 서쪽으로 와서 부처님

을 뵈려 하는데 길목마다 악한 요괴들이 앞을 가로막네. 오늘 밤 호랑이로 변한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백마가 고삐를 잡아 주인을 구해야 하리라.

소룡왕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은안전 안은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만당홍(滿堂紅, 무쇠로 만든 큰 등잔걸이) 여덟 개 위에 양초 여덟 개가 꽂혀 있는 것이었다. 구름 아래로 머리를 숙여 자세히 살펴보니, 요괴가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사람의 살점을 뜯어 먹고 있었다. 소룡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 보게, 꼬리가 밟혀서 형세가 기울었구나. 이제는 도망칠 궁리나 해야 할 판에, 사람을 잡아먹는 짓이 무슨 발전이 되겠다고 저러고 있단 말인가? 내 스승님의 행방은 어떠신지 걱정되는데, 하필 이런 괴물과 마주치다니. 일단 내가 가서 저놈을 한번 골려 주어야겠다. 만약 요괴를 잡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 스승님을 구해도 늦지 않겠지."

백마는 몸을 획 바꾸어 궁녀로 변신했다. 몸놀림은 정말 가볍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백마는 재빨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 요괴에게 인사를 건넸다.

“부마님,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술을 한 잔 올려 드릴게요.”

요괴가 말했다.

“술을 가져오너라.”

백마는 술병을 받아 요괴의 잔에 술을 따랐다. 술은 잔 위로 대어섯이나 높게 솟아올랐지만, 조금도 넘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소룡왕

이 부리는 ‘비수법(물을 강제로 조절하는 술법)’이었다. 요괴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네게 이런 재주가 있느냐?”

백마가 대답했다.

“더 높게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더 따라라, 더 높게 따라 보란 말이다!”

백마가 술병을 들고 계속해서 술을 따르니, 술이 마치 13층 보탑처럼 뽕족하고도 가득하게 솟아올랐으나 조금도 넘치지 않았다. 요괴는 입을 내밀어 술을 한 잔 들이켜고는, 죽은 시체를 곁에 둔 채 다시 한 입을 마시고는 물었다.

“노래는 할 줄 아느냐?”

백마가 말했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백마는 곡조에 맞춰 짧은 노래 한 곡을 불러준 뒤, 다시 술을 한 잔 올렸다. 요괴가 또 물었다.

“춤은 출 줄 아느냐?”

백마가 대답했다.

“조금은 압니다만, 손이 거칠어서 춤사위가 그리 예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괴는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을 뽑아 백마에게 건네주었다.

소룡왕은 칼을 받아 들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술잔이 놓인 상 앞에서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화려한 칼춤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단한지 요괴조차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다. 소룡왕이 화려한 칼놀림을 멈추더니, 요괴를 향해 단숨에 칼을 내리쳤다. 요괴는 깜짝 놀랐으나 재빨리 몸을 옆으로 비켜 피했다. 당황한 요괴는 급히 붉은색 몽둥이를 들어 보도를 막아냈다. 그 몽둥이는 원래 잘 달궈진 무쇠로 만든 것이라 손잡이까지 무게가 여든아홉 근이나 나갔다. 두 괴물이 은안전을 뛰쳐나오자, 소룡왕은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요괴와 격렬하게 맞붙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실로 장관이었다.

시로 이르되,

한쪽은 산에서 태어난 괴물이고, 한쪽은 서양 바다에서 내려온 참된 용이라. 한쪽은 하얀 번개 같은 빛을 뿜어내고, 한쪽은 붉은 구름 같은 기세를 내뿜네. 한쪽은 마치 흰 상아가 세상에 나온 듯하고, 한쪽은 마치 황금 발톱을 가진 고양이와 내려온 듯하구나. 한쪽은 하늘을 떠받치는 옥기둥 같고, 한쪽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금빛 들보 같으니, 은빛 용

은 춤추듯 날아다니고 황색 귀신은 요동치며, 보도와 몽둥이는 쉴 새 없이 맞부딪치며 허공을 가르는데.

두 존재는 구름 위에서 여덟아홉 합을 넘게 싸웠다. 소룡왕은 손이 저리고 몸이 저러오는 반면, 요괴는 힘이 넘치고 기세가 등등했다. 소룡왕이 적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자, 칼을 휘둘러 요괴를 내리쳤다. 하지만 요괴는 칼을 받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보도를 받아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만당홍을 던지며 몰아붙였다. 소룡왕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뒷다리를 한 대 얻어맞았다. 당황한 소룡왕은 급히 구름 아래로 몸을 날렸는데, 다행히 어수하가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소룡왕은 그대로 물속으로 머리를 박고 숨어버렸다. 요괴가 뒤쫓아와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보도를 챙기고 만당홍을 챙겨 은 안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

한편, 소룡왕은 물밑에 몸을 숨긴 채 반 시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겨우 이를 악물고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뛰어올랐다. 그는 먹구름을 밟고 곧장 역참으로 달려가, 다시 원래의 말 모습으로 변하여 여물통 아래에 엮드렸다. 가련하게도 온몸은 물에 젖어 있었고 다리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시로 이르되, "의마와 심원(意馬心猿, 뜻의 말과 마음의 원숭이 곧 일행)이 모두 흩어지고, 금공과 목모(金公·木母, 손오공과 저팔계를 상징)도 다 시들어버렸네. 황과(黃婆, 사오정을 상징)마저 상하여 서로 갈라졌으니, 도의가 사라진 마당에 어찌 도를 이룰 수 있랴!"

당승이 재난을 만나고 백마가 싸움에서 패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한편, 저팔계는 사오정과 헤어진 뒤 풀숲에 몸을 숨기고는 돼지들이 사는 웅덩이 같은 곳을 파고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한바탕 깊은 잠을 자고 나니 어느덧 한밤중이 되어서야 눈이 떠졌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저팔계는 눈을 비비며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 주위를 살폈다. 아! 산속은 너무 깊어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들판은 너무 넓어 닭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대략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쯤 된 모양이었다. 저팔계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오정을 구하러 가려 해도, 혼자서는 도저히 힘에 부치는구나. 그래, 일단 성안으로 들어가 스승님을 뵙고 상황을 말씀드린 뒤에, 용맹한 군사들을 좀 모아서 내일 사오정을 구하러 가야겠다.'

저팔계는 급히 구름을 타고 성 안으로 곧장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관에 도착하니, 때는 달이 밝고 사방이 고요했다. 두 복도에는 스승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백마만이 한쪽 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말의 몸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고, 뒷다리에는 접시만 한 푸른 멍 자국이 나 있었다. 저팔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런,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군! 이 녀석은 걸어온 것도 아닌데, 어째서 몸은 땀에 젖어 있고 다리에는 멍이 들었던 말인가? 필시 나쁜 놈들이 스승님을 습격하면서 이 말까지 때려눕힌 모양이구나." 그때 백마가 저팔계인 것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사람의 말로 "사형!" 하고 불렀다. 저팔계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찧고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자 백마가 몸을 내밀어 저팔계의 검은 옷자락을 덥석 물며 말했다. "형님, 저를 겁내지 마세요." 저팔계가 벌벌 떨며 말했다. "동생아, 네가 어찌

오늘 갑자기 말을 하는 것이냐? 네가 말을 꺼내는 걸 보니 분명 커다란 불길한 일이 생겼음이 틀림없구나." 소룡왕이 말했다. "스승님께 큰 난리가 난 것을 모르셨습니까?" 저팔계가 물었다. "모른다, 어찌 모른다 말이나?" 소룡왕이 말을 이었다. "정말 모르시는군요. 형님과 사오정이 황제 앞에서 실력을 발휘해 요괴를 잡아 공을 세우고 상을 받으려 했지요. 그런데 요괴의 도술이 워낙 뛰어나 형님들의 수단이 부족한 탓에 요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쯤은 돌아와 소식이라도 전해야 마땅했건만, 그마저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요괴가 잘생긴 선비로 변신해 조정으로 침투하더니, 황제와 친척 관계인 것처럼 속여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스승님을 얼룩무늬 호랑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승님이 신하들에게 붙잡혀 조정의 철창 속에 갇히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창자가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형님이 이틀 동안 소식이 없으시니 혹여 스승님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걱정되어, 급히 용의 몸으로 변해 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도착해도 스승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안전 밖에 이르렀을 때 요괴를 만났고, 저는 궁녀로 변신해 그 괴물을 속였습니다. 요괴가 저에게 칼춤을 추어 보이라고 시키기에, 저는 기회를 봐서 그를 베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괴가 가볍게 피하더니, 양손에 만당홍(滿堂紅, 무쇠로 만든 큰 등잔걸이 몸통이)을 들고 저를 패퇴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칼을 날리며 공격하자, 요괴는 그 칼을 낚아채더니 만당홍을 휘둘러 제 뒷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수하로 도망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다리에 든 푸른 멍은 바로 그 만당홍에 맞은 자국입니다."

저팔계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란 말이나?" 백마가 대답했다. "내가 설마 너를 속이겠느냐?"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어찌

면 종단 말이냐? 어쩌면 좋아? 너 몸은 좀 움직일 수 있겠느냐?" 백마가 말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어쩔 텐데?" 저팔계가 맞받아쳤다. "움직일 수 있거든 차라리 바다로 돌아가 버려라! 짐 같은 건 이 몸이 다 짊어지고 고로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사위 노릇이나 하련다!" 백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팔계의 겹옷을 덥석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사형, 제발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게으름을 안 피우면 어쩌란 말이냐? 사오정 형제는 이미 그놈에게 붙잡혔는데, 내가 그놈을 이길 수도 없으니, 이 기회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또 무엇을 기다리겠느냐?"

백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형, 내 말은 잊어버리세요. 스승님을 구하려면 그저 딱 한 사람만 모셔 오면 됩니다."

저팔계가 물었다. "누구를 모셔 오라는 거야?"

백마가 대답했다. "어서 구름을 타고 화과산으로 가서 큰사형 손행자를 모셔 오세요. 그분은 요괴를 물리치는 대단한 법력이 있으니, 스승님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패배를 안긴 저 요괴에게 복수도 해주실 겁니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이보게, 그냥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잖아. 그 원숭이 녀석과는 사이가 좀 안 좋단 말이야. 지난번 백호령에서 그 백골 부인을 때려잡았을 때, 내가 스승님더러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라고 부추겼던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든.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었는데, 그 노스님이 정말로 주문을 외우는 바람에 결국

손행자를 쫓아버렸잖아.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절대로 안 올 거야. 만약 가서 말다툼이라도 벌어지면 그 녀석의 의봉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잖아. 눈치 없이 덤벼다가 몇 대라도 맞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백마가 말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때리지 않을 거예요. 인자하고 의리 있는 원숭이 왕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스승님이 위험하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고, 그저 '스승님이 형님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라고만 해서 달래서 모셔 오세요. 이곳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면, 분명 분노해서 요괴와 맞서 싸울 겁니다. 틀림없이 요괴를 잡아내고 우리 스승님을 구해줄 거예요."

저팔계가 말했다. "에휴,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내가 안 가면 내 성의가 없는 꼴이 되겠지. 이번에 가서 만약 손행자가 오겠다고 하면 같이 돌아올 거고, 만약 안 온다고 하면 너도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 나도 그냥 돌아올 테니까."

백마가 재촉했다. "어서 가세요, 어서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멍청한 녀석은 쇠갈퀴를 챙겨 정리하고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더니, 쉼쉴 뛰어올라 구름을 타고 곧장 동쪽으로 향했다. 이번 일 또한 당승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순풍이 불어오자, 그 녀석은 두 귀를 뚫처럼 짹 펴쳐 바람을 탔다. 덕분에 동양의 넓은 바다를 순식간에 지나 구름 아래로 내려앉았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자,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아 나섰다.

저팔계가 막 길을 가려는데, 문득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팔계가 자세히 살펴보니, 손행자가 산골짜기에서 원숭이 무리를 불러 모아놓고 있었다. 손행자는 커다란 바위 절벽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천이백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차례대로 줄을 맞춰 서서 "만세, 대성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칭송하고 있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한 호강이로구나, 정말 대단해! 어쩐지 이놈이 스님 노릇은 안 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에, 저렇게 많은 어린 원숭이들까지 모시고 있으니 말이야. 만약 나에게도 저런 산 하나만 있었다면, 나도 스님 노릇 따위는 안 했을 게야.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면 좋지? 반드시 가서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저팔계는 손행자가 무서워 대놓고 다가가지 못하고, 풀이 우거진 절벽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천이백삼백여 마리의 원숭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따라 머리를 조아렸다.

손오공은 워낙 눈썰미가 예리하고 영리한 데다 높은 곳에 앉아 있었기에, 상황을 단번에 꿰뚫어 보고는 물었다.

"저 무리 속에 섞여서 함부로 절을 하는 놈은 어디서 온 이방인이냐? 당장 끌고 오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원숭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저팔계를 밀어 올린 뒤 바닥에 짓눌러 눌렀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이방인이냐?"

저팔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다.

"아닙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내 휘하의 원숭이들은 모두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네놈은 얼굴이 아주 제각각인 데다 생김새도 험상궂으니, 분명 다른 곳에서 온 요괴임이 틀림없구나. 다른 곳에서 온 놈이 내 부하로 들어오고 싶거든, 먼저 명부라도 제출해서 이름을 보고해야 내가 너를 여기 머물게 해줄 것 아니냐. 그런데 머무를 생각도 없으면서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절을 하느냐?"

저팔계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빼죽거리며 투덜거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 못된 표정을 짓는구나. 내가 너랑 형제처럼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나를 몰라보고 이방인이라니!"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고개를 들어 보아라, 내 직접 확인하겠다."

그러자 저팔계가 멍청하게 입을 쭉 내밀며 말했다.

"보시겠소? 나를 못 알아보겠다면, 이 입술이라도 알아보시겠소?"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팔계냐?"

저팔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오르며 외쳤다.

"맞다, 맞아! 내가 바로 저팔계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아보니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하겠군.'

손행자가 말했다. "당승과 함께 불경을 구하러 가지 않고 여기는 왜 온 거야? 분명 네가 스승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스승님이 너를 쫓아낸 게 틀림없구나. 쫓겨났다는 명령서가 있으면 내게 좀 보여줘 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께 잘못된 적도 없고, 명령서 같은 건 없어. 나를 쫓아내지도 않으셨다고."

손행자가 되물었다. "명령서도 없고 쫓겨난 것도 아니면, 여기까지 왜 온 건데?"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이 너를 그리워하셔서, 너를 모셔 오라고 나를 보내셨단 말이다."

손행자가 말했다. "스승님은 나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리워하지도 않으서. 그날 하늘을 두고 맹세하며 직접 명령서까지 쓰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나를 그리워하고 너를 멀리까지 보내서 나를 모셔 오라고 하시겠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어."

저팔계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며 급히 말했다. "정말로 그리워하셔, 정말로 너를 그리워하신단 말이야!"

손행자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이 왜 나를 찾으시는데?"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이 말을 타고 가시다가 '제자야!' 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사오정은 귀가 먹은 척을 했지 뭐야. 그러자 스승님이 갑자기 네 생각이 나셨대. 우리 같은 녀석들은 쓸모없지만, 너는 참 영리하고 똑똑해서 부르면 늘 대답도 잘하고 척척 알아듣는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네가 생각나서 나를 특별히 보내 너를 모셔 오라고 하신 거라고. 부디 한 번 가주시게나. 그래야 스승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외롭게 해 드리지 않고, 멀리서 온 내 정성도 헛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을 듣자마자 손행자는 절벽 아래로 경충 뛰어내려 저팔계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아우야,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선 나와 좀 놀다 가자꾸나."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여기가 워낙 멀어서 스승님이 기다리시다 지치실까 봐 걱정이야. 노는 건 나중에 할게."

손행자가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산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야지?"

어리숙한 저팔계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손행자를 따라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끌자, 수많은 작은 요괴들이 그 뒤를 따라 화과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다. 참으로 좋은 산이었다. 대성인 손오공이 집으로 돌아온 덕분에, 요 며칠 사이 산의 모습은 예전처럼 아주 깨끗하고 새롭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풍경을 묘사하자면 이러했다.

푸른 빛은 깎아지른 듯 선명하고, 높이는 구름을 찌를 듯했다. 주변에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세가 서려 있고, 사방에서는 원숭이의 울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침이면 구름이 산 정상을 봉긋하게 덮고, 저녁이면 해가 숲 사이로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 흐르는 물은 옥패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쟁쟁하게 울리고, 골짜기에서 떨어지는 샘물은 요금(瑤琴)을 연주하듯 똑똑 소리를 냈다. 산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 있고, 산 뒤에는 꽃과 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산 위로는 옥녀가 머리를 감는 대야처럼 맑은 기운이 이어지고, 산 아래로는 은하수가 갈라져 내려온 듯한 물줄기가 이어졌다.

하늘과 땅의 정기가 모여 빚어낸 이 아름다운 풍경은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에 비견될 만했고, 맑고 탁한 기운이 어우러져 진정한 신선의 동굴을 이루고 있었다. 이 절경은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그려내기 어렵고, 선녀라 할지라도 하늘의 신비로운 기운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영롱한 괴석들은 저마다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오색찬란한 능선과 봉우리들은 보석처럼 빛났다. 햇빛이 움직이면 수천 갈래의 자줏빛 광채가 일렁이고, 상서로운 기운이 흔들리면 만 갈래의 붉은 노을이 피

어울랐다. 신선이 사는 복된 땅이 바로 인간 세상에 있었으니, 온 산에는 새로 돌아난 나무와 꽃들이 가득했다.

저팔계는 그 광경을 녀을 잃고 바라보다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형님, 정말 끝내주는 곳이네요! 과연 천하 제일의 명산답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느냐?"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보물 같은 산은 신선들이 사는 복된 땅인데, 어떻게 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산을 내려왔다. 길가에 가보니 어린 원숭이 몇 마리가 보랏빛이 선명한 포도와 향긋한 배와 대추, 노란 빛깔의 비파와 붉고 탐스러운 양매를 받들어 들고 길가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원숭이들이 외쳤다.

“대성 할아버지, 어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내 위장이 커서 식성이 보통이 아니긴 하지만, 과일로 끼니를 때우지는 않는다네. 뭐, 어쩔 수 없지. 보잘것없더라도 그냥 간식 삼아 좀 먹어주마.”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나도 위장이 크긴 하지만, 가는 곳의 풍습을 따르는 법이지요. 어서 가져오너라, 가져와! 나도 맛이나 좀 보게.”

두 사람이 과일을 먹고 나니 어느덧 해가 높이 떴다. 저팔계는 혹시라도 당승을 구하는 일을 그르칠까 봐 마음이 급해져서 재촉하며 말했다. "형님, 스승님께서 형님과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손행자가 말했다. "아우야, 그럼 수렴동으로 들어가서 좀 놀다 가거라." 저팔계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형님의 친절하신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스승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 동굴 안까지 들어가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행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는 붙잡지 않으마. 여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자꾸나."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정말 안 가실 겁니까?" 손행자가 대답했다.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나는 하늘도 땅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이곳에서 자유자재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지 않고서야, 무엇하러 스님 노릇을 하겠느냐? 나는 가지 않을 테니 너 혼자 가거라. 다만 당승에게는 이렇게 전해라. 이미 다 쫓아냈으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말이다."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더 고집을 피우지 못했다. 자칫 손행자의 성질을 건드렸다가는 당장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별수 없이 저팔계는 찢찢매며 작별 인사를 고하고는 길을 찾아 떠났다.

손오공은 저팔계가 떠나는 것을 보고, 즉시 재빠른 원숭이 두 마리를 보내 저팔계의 뒤를 쫓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게 했다. 정말로 그 어리석은 저팔계는 산을 내려온 지 삼사 리도 채 되지 않아, 뒤를 돌아보며 손오공을 향해 입을 놀려 욕을 해댔다.

"이 원숭이 녀석, 스님 노릇은 안 하고 요괴 노릇만 하고 있네! 이 원숭이 놈, 내가 좋은 마음으로 모시러 왔더니 도통 갈 생각을 안 하잖아. 안 가면 말아!"

저팔계는 몇 걸음 가다가 또 몇 마디 욕설을 내뱉었다. 뒤를 쫓던 원숭이 두 마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대성님, 저 돼지팔계 녀석이 아주 정직하지 못합니다. 가면서 자꾸 욕을 해대고 있어요."

손오공은 크게 화가 나서 외쳤다.

"당장 잡아 와라!"

그러자 원숭이 떼가 사방에서 날아와 저팔계를 덮쳤다. 원숭이들은 저팔계를 뒤집어 놓은 채 털을 잡아당기고 귀를 잡아끌며 꼬리를 붙잡고 늘어져, 그를 붙잡아 돌아왔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목숨이 붙어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